



죄인들의 성인들

하느님에게서 힘을 얻은
비참한 아홉 영혼들

알반 구디어 대주교

목 차

서문

불안한 영혼

히포의 성 어거스틴

제 2 의 막달레나

코르도나의 성녀 마가렛

부랑자

천주의 성 요한

실패자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

죄수

십자가의 성 요한

노름꾼

성 가밀로 데 렐리스

마보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

내적 순교자

성 클라우드 드 라 콜롬비에르

결인

성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

저자 약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 코린토 1:27—29

죄인들의 성인들

서 문

이 책이 전기인지 아니면 소설인지는 저자 자신도 잘 모르겠다. 사실을 전기로 쓰고자 성실하게 시도했다면 작가가 전기로 인정받기를 희망했을 테고, 사실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해석하여 생기를 주려고 노력하여 허구가 포함되었다면 이 작품은 소설로 불려야 할 것이다. 어떻게 분류되든, 작가는 모든 것이 사실에 바탕을 두어 기술되었기를 바라며, 우리가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는 더욱 더 심오한 진실을 입증하기 바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하느님은 성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 주님은 “스스로 선택하는 이를 택하신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인생에서 주님의 은총이 미치지 못할 조건은 없으며, 너무 비천한 것이란 없으며 주님은 이를 스스로 가치 있게 하실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을 “죄인들의 성인들”로 하면서 “죄인들”이라는 단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죄의식과 그로부터 나오는 나약한 감정 말고도, 패배감 비슷한 감정과 무력함,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공허하다고 깨닫게 하고 또한 때때로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들의 원인 제공자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영적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할 때, 이러한 것은 성인들도 감당했으며. “덕성은 부족한 가운데에 완전해지며”, 삶의 십자가는 모든 것 위에 있는 이상이나, 이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흔들리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이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거룩함 보다 더 많이 고려되었다. 거룩함이란 바탕이 되는 본질의 깊이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불안한 영혼

히포의 성 어거스틴
(353-430)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성 어거스틴에게 다가간다. 그는 당대의 사람들, 어쩌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 위에 우뚝 서 있기에 사람들은 어떤 경외심이나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본다. 과거 어떠한 저술가들의 작품보다도 그의 저작을 잠시 훑어 보기만 해도 놀라서 기가 꺾이게 된다. 누군가는 어거스틴의 저술을 읽어보는 데만 보통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어거스틴의 위대함 안에 인간적인 면모와 결점이 보이는 것이 신기하다. “나는 놀기를 좋아했다”: (“delectabat ludere”)라고 그는 유년시절의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말년에 자신의 내면에서 이와 똑같은 기쁨을 찾았다고 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에 있는 타가스테라는 로마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자유로운 마을이었으며 많은 로마의 도로가 집중되는 상업 지역으로서 동서로부터 대상들이 사치스러운 물품을 가져와서 로마에서와 같은 화려한 생활이 되풀이되고 아프리카 지역의 자유를 누리는 곳이었다. 그는 유복한 시민이며, 이교도였으나 광신자는 아닌 파트리시우스의 장남이었다. 파트리시우스의 삶의 이상은 너무 드러나지는 않는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었다. 파트리시우스는 40 세에 부모 양쪽이 기독교인인 17 세 된 모니카라는 소녀와 결혼했다. 모니카가 종교나 도덕적인 교육을 대부분 나이 든 유모에게서 받았다는 사실로 보아 결혼만으로 믿음이 어느 정도 약해진 것 같지는 않다.

결혼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혼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교도인 파트리시우스에게 결혼이란 나이가 들수록, 형편이 나빠질수록 자신의 종교에 매달릴 뿐이며 남편의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 방식을 나쁘게 말하며

이에 관여하지 않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했다. 모니카에게 결혼이란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난폭한 기질이 있는 파트리시우스에게 얻어맞기까지 하는 학대를 받으며, 파트리시우스에게 열심히 투쟁이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그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자신을 질투하는 이들의 비방을 받으며 사는 생활을 의미했다. 그들에게서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거스틴이 첫째였고, 그들 중 아무도 세례받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중간 과정이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선 세례 지원자로 등록하고 나중에, 아마도 죽을 위험에 처할 때에, 세례를 받았던 것 같다.

어거스틴은 이교도 학교에서 이교도 아이들 가운데서 교육받았는데 처음부터 그의 도덕관념은 다른 아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는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기를 누구보다도 잘했다. 이런 짓을 영리하고 능숙하게 잘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재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싫어했는데, 학교에서 받는 구속과 배우는 것 모두를 싫어했다. 그는 되풀이해서 벌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조차 그를 가엾어하지 않았다.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소년 시절에 불행했으며 이 때문에 비참하고 무모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나이에 비해 매우 똑똑해서, 그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 뿐인 벌을 받았고 게을렀지만, 친구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기대를 걸게 되어 타가스테에서 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기로 결정하고는 그를 30 마일 떨어진 활기찬 도시인 마다우라로 보냈다.

그 당시에 30 마일이면,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소년에게는, 떨어지기에는 대단히 먼 거리였다. 여기서 그는 뭐든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뭐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해서 이교도의 고전을 공부했다. 그들의 문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상론과 인생론도 배웠다. 이러한 것은 모두 그의 주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그는 마음껏 참여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쾌락을 추구하고, 박카스 신 축제의 요란스러운 술잔치에 끼어들고, 사악한 사랑이 넘치도록 허락되는 로마의 타락한 이상, 재치, 음란, 관용, 무모, 비웃음 등을 숭배했다. 이러한 것이 영리하고, 욕망이 넘치고, 무모한 어거스틴이 열다섯 살 나이에 아플레이우스의 도시에서 호흡하게 되어 있었던 분위기였다. 거기에 맞서는 어거스틴에게는 이교도인 아버지의 부추김과 그가 이미 경멸하게 된 기독교인

어머니의 심약한 두려움 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그는 곧바로 부도덕한 이교도가 되었다.

그 결과는 필연적이었다. 어거스틴은 가장 밑바닥까지 타락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더 나빴던 것은, 그에게는 양심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리고 더욱더 나빴던 것은 젊어서의 방탕은 훗날 크게 될 것을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이만큼 지나친 것을 남자다운 증거로 보아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를 구속하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경건한 생활을 비웃고 계획적으로 무시하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기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감탄하는 마음과 사랑은 꾸준히 커졌다. 이는 그녀도 마찬가지로, 모자간의 유대감은 더 강해졌다.

남편과 함께한 모니카의 삶은 불행했으며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간절히 주고자 한 사랑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무모한 아들에게 쏟아 부었다. 자식을 많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녀는 그가 이미 사는 삶과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져다줄 미래를 생각하고는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그가 타락한 데는 자기 탓도 있다고 자책했다. 그녀는 아들이 마다우라로 갈 계획에 적극 찬성했으나 거기 가있는 동안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일생을 바쳐야 할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식을 회개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완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게 되었다. 적어도 그를 감화시키려면 자신부터 진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거의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멀찌감치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고, 부도덕한 짓 한 것을 자랑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를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기도하고,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자라났다.

어거스틴의 인생에서 다음 단계는 카르타고에서였다. 그곳은 북아프리카의 학문과 환락의 중심지였는데, 어거스틴은 두 가지 다를 원했다. 그를 감시하거나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열일곱 살부터 마음껏 배우며 사랑했다. 그는 나중에, “나는 카르타고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부끄러운 사랑이 내 주위에서 끓어 오르는 기름처럼 부글거렸다.”라고 썼다. 그러나 그는 현명하게도 이때가 인생에서 좋은 기회임을 알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럴 즈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죽음에 따른 가난의 고통으로 그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그는 곧 카르타고 대학교에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재능있고, 가장 방종한 학생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그가 자랑스러워한 삼중의 성공이었다. 수사학 학교에서는 그의 웅변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으로 제시되었으며, 학교 밖에서 그는 무모한 사랑의 신봉자로 숭배받고 구애받았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기묘하다. 어느 날, 이처럼 경솔하게 살아가던 중에, 그는 키케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음 구절에 눈길이 머물렀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불멸이고 신성하다면, 영혼은 이성과 진정한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데 더욱더 빠져들어야 하고, 악덕과 열정에 덜 물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면, 영혼은 틀림없이 더욱더 지상으로 올라와 창공으로 솟구칠 것이다.”

그는 갑자기 마주친 이 문장은 광명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했으며, 그의 눈은 되풀이해서 거기로 되돌아갔다. 그는 결국 자신이 영향을 받은 것만큼 행복했는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는 가르침을 확인하거나 옳고 그름의 판단도 유보하거나 하는 것도 가리지 않고 다른 데서 해답을 찾았다. 그는 다른 이교도 철학자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얼마 동안은 성경에 빠져들었으나 그것도 곧 지루해져서 치워두었다. 그는 선과 악에 대한 마니교의 교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마니교도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세상의 선을 그다지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체했다. 죄는 뿌리칠 수 없고, 욕정은 필수라는 교리는 이 새로운 사실과 양심에 관한 기준으로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대단히 들어서 그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마니교도가 되었다.

이제 몇 년을 건너뛰어서, 어거스틴은 타가스테로 돌아가서 학교를 세웠다. 그의 불안한 영혼은 곧 싫증이 났다. 그곳의 지방색이 그를 숨 막히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카르타고로 갔다. 거기서 웅변술 학교를 열어서 크게 성공했으나 겨우 스무 살을 조금 넘은 젊은이로서 그는 독서를 더 하여 지식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 욕심쟁이에게는 무엇이든 좋았다. 그는 고전,

밀교의 과학, 점성술, 미술 등,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읽었다. 그런데 확신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변증법 훈련으로, 그는 친구들을 마니교로 개종시키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일부 성공하기도 했다. 마침내, 또다시 많이 불안해졌고, 야망으로 욕심이 커져서 카르타고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어 세계의 중심이자 수도인 로마에서 행운을 찾기로 했다. 어머니의 호소와 자신이 망쳤으나 충실하게 대해주는 여인의 간청을 물리치고, 제국의 심장부에서 언어의 마법사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이들을 피해서 몰래 빠져나왔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아주 달랐다. 어거스틴의 로마 체류는 그가 기대했던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려서 회복될 때까지 생색을 내는 친구들의 자비에 의지하여야 했고, 이 때문에 그는 몹시 마음이 상했다.

건강을 되찾자마자 주위에 생도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 혼잡한 로마에서는 그것이 카르타고나 타가스테에서 보다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그곳의 기후와 생활이 그의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숨 막히는 공기와 자갈로 뒤덮인 울퉁불퉁한 도로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로마 사람들보다 부도덕했지만, 아직도 교화를 고집하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곳의 거친 풍속은 언더리가 났다. 주위에 음식을 마구 먹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고, 외국인 이민자에게 내지르는 거친 고향은 극장이든 어디서든 수시로 들렸다. 가장 교양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조차 지적인 관심은 부족했으며, 부자들과 소위 상류층에서는 동양의 화려한 사치를 유치하게 모방했고, 온갖 신들을 모시는 잡다한 사원은 사교에 빠진 신자들—로마의 심장부는 아시아의 뱀에게 먹히고 있었다—에게 인간의 삶을, 그들이 노예나 포로로서 욕되게 살게 하여 일상을 구역질 나게 하고 있었다. 그 자신이 타락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는 더 고독했기에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진행 중이었으므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죄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든, 그리고 아무리 자유를 뽐낸다 하더라도 자신은 죄의 노예임을 알았다. 한 때는 변증법을 마니교를 위해 쓰기도 했지만, 마니교를 믿지 않게 된 지는 오래되어 지금은 그것을 찢어발기는 것이 즐거웠다. 현재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삶을 덮어주고 변명을 해주는 편리한 구실이 되기에 아직도 그는 마니교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더는 그 교리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다른 일로 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로마에 학원을 계속 열고 있었으나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생도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그는 아프리카로 되돌아가야 할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밀라노에서 교수 자리를 공개 모집하니 응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거스틴에게 밀라노는 로마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다가왔다. 로마가 아니라 밀라노는 그 당시에 황제와 법원이 있는 도시였다. 밀라노는 문화와 유행의 중심지였으며, 무엇보다도 암브로시오 주교의 본거지였다. 그리고 암브로시오는 수사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었다. 어거스틴은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한 끝에 여러 친구의 도움으로 합격했다. 그는 밀라노로 가서 암브로시오를 찾아내었는데, 첫째 목적은 문학 전문가로서 비평하기 위해서였고, 다음 목적은 친구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오래지 않아서, 그 자신도 놀랐지만, 그는 자신의 비참한 영혼을 주교의 귀에 부어 넣고 있었다.

아직은 그것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았다. 많은 면에서 어거스틴 보다 훌륭한 학자였지만, 아주 솔직한 로마인인 주교로서는, 열정적이고, 우울하며, 예민하고 감각적이며, 자신을 진리로 이끌어줄 안내자를 이때까지 열심히 찾고 있던, 아프리카 태생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다. 젊고 야심 찬 이 수사학자는 마침내 기반을 닦았다. 밀라노인들은 그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대단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그들 주목해서, 그들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그들의 일원이 된다면 더는 바랄 수 없겠다고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를 잡고 이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했다. 그는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결혼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르고 싶어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되게 한 여인을 버려도 쉽게 용서받으리라고 여겼다.

그는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실패했다. 마음이 끌렸던 한 가지가 끝나버리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것은 본성 일부로서, 그의 삶의 방식은 죄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왜 더 걱정해야 하는가?

어느 날 그가 황제 앞에서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갖 찬사를 받은 다음에 술 취한 채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로질렀다. 왜 그는 과거의 것처럼 살면 안 되는가? 사실은 그와 같이 난폭하지 않게 사는 것 말이다. 그러나 알맞게 술 취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순간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날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이 질문을 하는 내내, 새로운 사실이 그를 일깨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수사학자로서의 관심을 두고 암브로시오의 설교를 들었는데, 수사학에 대해서는 잊은 채, 가슴에 불붙는 화살이 맞은 듯한 느낌을 갖고 떠나왔다. 암브로시오가 자신이 자신에게 그려온 이상적인 인물이라면, 더욱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러나 깨닫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 그는 교회의 전례에 가보았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기쁨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눈물까지 흘리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직도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감사드리오며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뱃속 깊이 주님의 사랑에 잠기어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 누가 당신과 같사옵니까? 당신은 제 뼈들을 부러뜨리시고 저는 당신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나이다. 주님께서 부러뜨리심을 당신을 경배하는 만방의 모든 이들에게 고하면 그들은 저의 고백을 듣고, ‘하늘과 땅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도다.’고 하리라.”

“원수는 저를 잡아서 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고집에서 욕정이 솟아나왔습니다. 제멋대로인 욕정은 습관이 되었고, 들어버린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슬의 고리가 되었고, 저는 그 사슬에 묶여서 자유롭게 당신을 섬기고 전적으로 당신을 즐기고자 하는, 오 하느님, 유일한 참 기쁨인, 제 안에서 이미 생겨난 새 의지는 무자비한 세월로 해서 더 강해진 제 이전의 계획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 의지는 제 안에서 서로 다투어 불화를 일으킴으로써 제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가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지만, 어거스틴은 아직도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 자신의 망설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그것은 그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당신 말씀이 모든 면에서 참됨을 보여주셨으며 진실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둔하고 지루한 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면 머지않아, 아니면 잠시만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러나 저의 ‘머지않아’는 곧 오지 않고, 저의 ‘잠시’는 오래갑니다.”

“저를 비난하는 데 무슨 말을 하지 않으셨나이까? 당신 뒤를 따르려 노력하기 위하여, 저의 죄를 책망함으로써 제 영혼을 채찍질했나이다. 그러나 제 영혼은 뒤로 물러서서, 따르기를 거부하며 한마디 용서도 청하지 않았나이다. 그 논란은 부질없었고, 자기 방어는 소용없었나이다. 말없이 위축되었을 뿐이며, 악습이 치유되어 스스로 소멸할까 두려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영혼이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서, 이전보다 더 거세게 자신을 비난하며, 지금 저를 구속하는 속박이 온전히 풀리기를 열망하며, 뒹굴며 몸부림치고 있으나, 이 속박은 아직도 저를 단단히 구속하고 있나이다. 그리고 오 주님, 당신은 무자비한 자비로 당신의 자비 가운데에서 저를 괴롭히시나이다. 두려움과 수치의 채찍질을 늘리시어 제가 다시 주저앉지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속박을 제가 깨뜨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구속이 강화되어 더 단단하게 저를 묶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나이다. 즉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루었나이다. 저는 거의 이루었으나, 이룬 것이 아니옵나이다. 아직도 전에 있던 곳에 주저앉았나이다. 제가 있던 곳에서 다시 숨을 쉬었나이다. 한 번 더 해보았고, 결코 제가 성과를 올리길 바라지 않았나이다. 절대 바라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제가 바라던 것에 손을 대 거의 잡을 뻔했나이다. 하지만 다시는 다가가지도, 손에 닿지도, 잡지도 않았나이다. 저는 아직도 멈칫거리나이다. 저는 죽지 않고 살겠나이다.”

“이 하찮은 장난감 중의 장난감들, 이 헛되고도 헛된 것들, 오랫동안 나를 홀린 것들, 이들이 아직도 저를 붙잡나이다. 그것들은 제 육신의 옷을 잡아당기고, 달래듯이 중얼거렸나이다. 당신은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순간부터 저희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지 않게 되나이까? 이 순간부터 이런저런 빛은 영원히 당신에게 합당치 않게 되나이까? 라고”

“제가 그 소리를 거의 듣지 않게 된 때가 왔나이다. 이제 그들은 공공연히 나타나지 않고, 저에게 말대꾸하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마치 제 뒤에 있는 것처럼 서서, 나지막하게 탄식하며 남몰래 제 외투를 끌어당기며 간청하였나이다. 가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들을

뒤돌아 보려고 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그들의 속박은 저를 방해해서,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망설이고 제 사슬을 깨뜨리고 제가 불린 곳을 향해 앞으로 뛰쳐나가려 하지 않았나이다. 마침내 몇 가지 습관이 제 귀에 이렇게 속삭였나이다. 너는 이들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러나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했다. 그녀는 아들 가까이 있으려고 밀라노에 온 지 오래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함께 즐기고, 치하를 함께 받았으나 시간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냈기에 주교인 암브로시오의 주의를 끌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러한 어머니를 둔 데 대하여 치하했다. 이 뜻밖의 말은 연극에서 마지막 장의 시작인 것처럼 보였다. 어거스틴은 이 소중한 칭찬을 받고 기뻐했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기뻐고, 마음속의 사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큰 운명이 달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거스틴 자신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더라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힘든 시련에 맞설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씩 속박을 풀어 던졌다. 첫 번째로는 그를 죄 중에 살도록 한 속박이었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그릇된 철학 때문인 속박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마니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마지막으로 시 정부 연설가로서의 업무를 그만두었다. 그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해온 거짓말들이 부끄러워졌다고 말한 것은 이때까지 그가 해온 일들이 자신을 순화하는 과정이었음을 증거한다.

마침내 마지막 은총이 다가왔고, 어거스틴은 그걸 받았다. “나는 시간을 재촉하는 것에도 시간에 쫓기는 것에도 지쳐있었다,”라고 그는 썼다. 그는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가 밀라노에 처음 왔을 때는 회의론자였다. 지금은 회의론을 멀리 뒤로 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삶의 지표로 삼는 이들이 누리는 평화와 기쁨, 모든 철학자가 말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괴로움을 이전에 겪었고,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보았으며, 뛰어넘음으로써 안식과 평화를 찾은 위인들의 사례, 이 모든 것들이 문득 떠올랐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다른 선택은 선과 악,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포기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태까지 삶을 즐기게 한 것으로서, 적어도 그와 같은 사람이 찾아내기를 바랄 수 있을 만큼 즐거운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주저하는 자신을 경멸했으나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게 된 로마인들의 세계를 경멸했으나 거기를 떠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맘때에 병들어서 몸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를 변경하는 것은 무모했다. 다시 건강해지면 고집하거나 뒤집을 수 없을 것이며, 일단 후회한다면 두 번째 상황이 첫 번째보다 나빠질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한다고 해도, 행동에 옮길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는 암브로시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암브로시오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했으나 아직은 실패하고 있었다. 암브로시오의 고해신부인 심플리키아누스라는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절망에 빠져 그를 찾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심플리키아누스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 그에게 진리와 희생의 소중함을 지적하며 자존심마저 충족시켰다. 어거스틴의 앞에는 이집트의 은수자들인 성 안토니오와 그의 제자들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 기독교국인 로마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였으며 학식이 높지 않은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어거스틴은 정원에 있었는데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무 밑에 누워서 울었는데 눈물이 땅을 온통 적셨다.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란 말인가? 늘 내일 또 내일이라니. 왜 지금 나의 비열함을 끝내지 않는가?”라고, 그는 외쳤다.

그때 이웃에 있는 집에서 어린아이가 동요를 노래하는 것을 들었는데, 후렴이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였다. 어거스틴은 기계적으로 팔을 뻗어서 자기가 가져온 책을 집었다. 그것은 성 바오로의 서한집이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아무 데나 펼쳤더니 다음 글이 보였다: “너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 하지 마라.”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이 결심했으며,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 어거스틴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어머니의 발아래에서 지난날을 영원히 포기했다. 곧이어 그는 암브로시오의 발아래에서, 자신을 버리고 마침내 다시 찾았다. 그는 그때에 서른세 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다음 글과 같이 자축하였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오며 당신 시종꾼의 아들이입니다. 당신은 저의 사슬을 깨뜨리셨으니, 당신께 찬미의 제물을 바치오리다. 제 심장과 제 혀가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제 모든 지체가 아뢰오리다. 오 주님, 누가 당신과 같사옵니까? 그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저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나는 너의 구원이니라, 하고 말씀하소서.

저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제 행위가 얼마나 사악하였나이까? 행위가 아니라면 제 말이, 말이 아니라면 제 의지가 얼마나 사악하였나이까? 하오나 좋으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서는 제 죽음의 어두운 심연으로 오른팔을 뻗치시어, 제 마음 밑바닥 깊숙이 있는 타락한 마음을 비우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은총으로 저는 전에 원했던 바를 더는 원하지 않게 되었으나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세월이 흐르고, 깊고 어두운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다음에, 어찌하여 제 자유 의지는 순식간에 불림 받아 제 목을 당신의 가벼운 멍에에 내맡기고, 제 어깨를 당신의 가벼운 짐에 내맡기게 된 것이옵니까? 오 그리스도 예수님, 제 위로자이시며 구세주시여. 보잘것없는 즐거움들이 없어지니 얼마나 좋은지요! 떠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지금은 떠나서 즐겁나이다. 당신이 제게서 앗아가 버리시니, 당신이 진리이시고 가장 풍요로운 기쁨이나이다. 당신이 그것들을 앗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모든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거움이신 당신 자신으로 대신하시었나이다. 그 즐거움은 피와 살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빛보다 더 밝으나,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감추어져 있고, 모든 명예보다 더 높으나, 자만심으로 드높은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나이다. 지금 제 영혼은 자유롭나이다…….그리고 제 유치한 혀는 당신께 자유롭게 말씀드리나이다. 저의 빛, 저의 부요함, 저의 건강, 저의 하느님이신 주님이시여.”

어거스틴의 남은 생애를 너무 깊숙이 파헤치는 것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아니다. 그 주위 사람에게 그는 아직도 밀라노의 훌륭한 교수였으며 몇 명의 친구만이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강의를 맡았으므로 그가 특별히 화제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호된 시련 때문에 악화하여 결코 좋은 편이 못되었다. 이를 핑계 삼아 그는 카시킴에 있는 친구의 별장으로 물러나 거기서 얼마간 머물렀다.

이는 복된 휴식 기간이었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혼자 있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 이후 활동을 하는 동안 그는 내내 이러한 열망을 갖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반은 이교도인 어거스틴 그대로로서, 성인이 지녀야 할 품성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토론을 즐기는 것이

좋았고, 지상에서 삶을 누리는 주위 모든 것들을 대단히 좋아했으며, 여유 덕분에 안락했고,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으며, 눈길이 닿는 모든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 밀라노에서의 강의를 그만두었으나, 새 거처에서 계속해서 가르쳤다. 하지만 강의 내용은 주위에 있는 좋은 일들, 새벽녘의 하늘빛, 물이 흐르는 소리, 혈관에 느껴지는 태양 빛의 기분 좋은 온기 등에서 이끌어낸 것들이었다. 이렇게 자연에 묻혀서, 그는 정화되어, 아직은 닦쳐오지 않은 위대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그는 밀라노와 로마를 떠나서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야 했다. 가는 도중에 그의 일행은 오스티아에서 멈추었다. 거기서, 그가 말에 따르면, 어머니 모니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느님의 환시를 어머니와 함께 보게 된 잊지 못할 장소가 되었다. 거기서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카르타고로 돌아가 거기서 서둘러 타가스테로 향했다. 이제 그는 지극히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작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집을 수도원으로 고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은퇴자로서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타가스테에서 유명해서, 그 당시 관습대로, 어느 날 사람들이 그가 사제가 되기를 청해서 그는 서품을 받았다. 그는 사제로서 히포에 부임했으며,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도생활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주위의 이교도들에게 대한 공부와 설교 때문에 은둔생활은 불가능해졌으며 곧 주교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의 나머지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도나투스파의 격퇴, 진실로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의 재건, 가난한 이들, 소위 노동자 계층의 구호, 그의 어깨에 짊어진 법률을 집행할 임무, 끊임없는 설교와 저술 등 엄청난 양의 활동이 우리를 몹시 놀라게 한다. 그는 매일, 때로는 한 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의 설교 내용이 암시하듯이 사람들은 종종 그가 식사하러 가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해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이러한 노고 중에 있는 사람의 내적 영혼이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결코 잊을 수 없었기에, 자신이 그전 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주교로 서품받을 때에 자신의 과거와 과거에 입은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뇌하며 자신에게 물었다. 때때로 과거의 일이 되살아 났으나 그의 영혼이 가진 열정은 이들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갔다. 나이가 들었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자신을 이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떨었다. 유혹을 억누르려고 쉴새 없이 일했으며 자신에게 휴식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설교하지 않거나 다른 영혼을 돕지 않을 때에는 글을 썼으며, 글을 쓰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였다. 고령 때문에 극도로 피로를 느껴 기도하기가 어려워도 손에 쥔 펜으로 기도했다.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휴식은 독서로서, 그는 그것이 아직도 자신의 기쁨이라도 고백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다른 본능을 억눌렀다. 엄청난 양의 저술을 볼 때, 우리는 어거스틴이 저작을 한 동기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쉴 새 없이 일함으로써 자신의 저열한 본능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럼에도 단지 일만으로 그가 구원받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신학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력이 쉽사리 동원되던 폭력의 시대에 대주교로 지내면서, 그는 스스로 엄격하게 행동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아직도 어거스틴의 마음은 다정다감했다. 과거에는 그 때문에 방황하기도 했었지만, 훗날에는 그를 거룩하게 이끌었다. 그가 주위의 도나투스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동안에, 같은 시기에 그는 동료 사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 명심할지어다. 절대 시들지 않을 온유함으로 실천하고 설교해야 함을. 여러분이 싸우는 상대를 사랑하고, 그들의 거짓만을 죽여라. 지극한 겸손으로 진리에 머물라. 진리를 지키되 잔인하지 않게 지켜라. 여러분이 반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교화시키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직도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갈망은 커져만 가고 있었다. 그가 개종할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갈망이 그의 구원을 증거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이 기억할 만한 말을 하였다. “주여, 당신은 스스로 저희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저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처를 찾을 수 없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사랑의 목표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갈망은 더욱 강해질 따름이었다. 그의 만년에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 주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자신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그는 자신이 주교가 될 때 기도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 계약 일부였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그들과 맺은 계약 일부였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으니 새로 계약을 하고, 주중에 며칠 혼자서 지낼 시간을 허락해 주면 그들도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약속했으나 다시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상황이 그와 그들 모두에게 좋지 않았다. 그는 옛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폐허 위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었고, 그의 눈과 가슴이 천국을 열심히 갈구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지성과 설교는 필연적으로 하느님의 도성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거스틴이 마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교도 세계를 알고 있었기에 그 세계에서는 옛날부터 그때까지 아무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표현했다. 그가 한 묘사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해결 방안도 사실이고 유효하다. 그 자신이 하느님에게 갈 때까지 자신의 어둠 속을 온통 더듬어 찾아야 했고, 그러고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모든 것을 바로 보았기에, 그는 인류에게 이렇게 일렀다. 인간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소위, 평화에서도, 구속을 억제하는 데에서도, 도덕을 법률로 대신하는 데에서도, 감히 악행을 비난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제하는 데서도, 모든 죄를 묵인하는 듯한 애매한 표현을 찾아내는 데서도 찾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것을 홀로 찾을 수 있는 곳에서만 찾게 된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어거스틴은 생전에 자신이 예고한 새로운 날의 새벽을 보지는 못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태양은 떨어지고 가장 어두운 밤이 아프리카와 히포를 뒤덮었다. 나이 든 그가 주교 관저에 머무를 때에 아리우스파 반달족이 무자비한 파괴를 자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아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북아프리카는 이 재앙에서 복구되지 않았다. (예술, 문화의 파괴 행위를 뜻하는) 반달리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유럽 언어로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로마의 통치자에게 정의를 수호해 달라고 간청했다. 통치자는 그는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는 배신했다. 그러나 그는 동요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사제들에게 양 떼와 함께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죽으라고 지시했다. 마침내 히포가 육로와 해상 모두 포위당하게 되었다. 포위당한 지 석 달 만에 어거스틴은 병에 걸렸는데, 아마도 포위로 말미암은 분노 때문인 듯하다. 그의 병은 악화하였다. 그는 자신이 죽어감을 알았다. 그는 충고백을 하고는, 마침내, 하느님과 함께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침대에 누워서 그는 멀리서 들리는 전투 소리를 들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는지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회복되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 세상 끝까지라도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어쨌든, 언젠가는, 세상은 구원받을 것이다. “Non tollit Gothus quod custodit Christus.(고트족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점령할 수는 없다.)”라고 중얼거리고, 인류에 대한 어떤 희망을 품고, 그는 언젠가 자신이 “안식을 취하는 곳,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는 곳,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곳으로 가버렸다. 로마력으로는 9월 5일이고, 주 후 430년, 8월 28일이었다.

제 2 의 막달레나

코르도나의 성녀 마가렛
(1247-1297)

마가렛이 태어난 때는 토스카나의 혼란기였다. 그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켈프당원(교황파)인 만프레드와 기벨린 당원(반 교황파)인 콘라딘이 활동했는데,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정열이 솟구치는 극도의 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때는 또한 극악한 죄인들과 위대한 성인들의 시대이기도 했다. 마가렛은 생존 중에 성 켈레스티누스 5 세의 대관식과 퇴임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의 삶과 죽음은 그 세대에 걸쳐 풍미한 시대 정신의 생생한 기록이다. 그때는 파리의 성 토마스, 플로렌스의 단테, 치마부예와 지오토의 시대였으며, 대성당과 대학교가 건립된 때이기도 하다.

토스카나로는 군인들이나, 황제나, 교황이 오가지 않고, 그 지방은 한결같이 혼란 상태에 빠져있었으며, 지방 사람들을 그들 방식대로 가르쳤는데, 그곳에서는 소도시들간에 자그마한 전쟁이 늘 일어나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예컨대, 마가렛이 어린 아이일 때에, 그녀가 살던 대교구인 큐지에는 귀중한 유물인, 복되신 동정녀의 반지가 있었다. 어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사가 그것을 페루지아로 옮겼다.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여 큐지와 페루지아가 싸워서 페루지아가 이겼다.

이러한 일이 그녀가 살던 시대의 정신이었고, 그녀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양육되었다.

그때는 또한 대부흥의 시기로서 새로운 수도회가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으며, 오래된 수도회는 쇠신되었다.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지방의 방방곡곡이 보다 나은 그들의 부름에 응했다.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는 마가렛이 태어난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알베르노 산에서 20년 전에 오상을 받았다. 성녀 글라라는 마가렛이 네 살일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반대되는 성격의 위기가 있었으니, 이는 신앙심이 이단으로 빠져버린 광신자들이었다. 마가렛이 열 살일 때에, 그녀가 살던 바로 그 지역에서 고행자들의 무리가 나타났는데, 허리까지 벌거벗고 피가 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남,여,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행렬은 그녀와 그녀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은 아니었다.

마가렛은 큐지 교구에 속하는 작은 마을인 라비아노에서 태어났다. 부모들은 그곳에서 노동을 하였는데, 어린 아이가 대단히 아름다웠고, 게다가 무남 독녀였으므로 맹목적으로 사랑하여서 성격을 버려놓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처음부터 마가렛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버릇 없는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대단히 고집 세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다. 곧 그녀는 친구들이 필요했고, 이웃 마을의 길거리가 더 활기가 있고 신나는 데라는 것을 알게되자 아버지의 오두막집은 그녀에게 너무 작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작은 마을이 너무 작아졌고, 그녀가 알게된 마을 저 너머에는 넓은 세상이 있었으며, 마가렛은 그 세상의 일부가 되기를 열망했다. 그녀가 사는 곳과 주위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눈길을 보냈는데, 그녀는 원한다면 이들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고, 때로는 외부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던 지위가 높고 돈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는 아름다운 용모에 정신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들은 다시와서는 기꺼이 그녀와 사귀고자 했고,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선택한다면 그 세상에서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곧 알게되었다. 마가렛은 자기가 명령하기만 하면 기꺼이 복종할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재빨리 알아챘다.

그녀가 아주 젊었을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는 이제까지 그녀를 감시해온 유일한 영향력이 사라진 것 같은 사건이었다. 마가렛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결코 잊지 않은 것이, “오 주 예수님, 간구하오니, 제가 기도하옵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재혼한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는 변덕스러워서, 약하고 너그럽기도 했고, 지나치게 폭력적일 때도 있었지만, 잘 보아 줄 이유가 있을 만큼 호감이 가는 점이 많았다. 그러나 계모와는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다투었다. 그녀는 마가렛이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인 점에 충격을 받고, 그 집에 처음 올 때부터 그녀를 엄격하게 대하기로 결심했다. 마가렛에게 이런 대접은 끔찍했다. 최근에 어떤 학생은 그녀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마가렛은 환경 탓으로 성격의 약한 면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었다. 그녀 자신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듯이,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들 중의 하나로서, 사랑 받는 것이 그녀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그녀는 영혼이 자유로와 지도록 사랑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가정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도덕적이나 육체적으로 더 약한 부류에 속했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영적 불모 상태에서 무기력해진 채, 마침내는 아버지가 골라준 남자와 결혼하여 어느 정도 평화롭고 순탄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럴수록 그녀는 고집이 세고 무모해질 따름이었다.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즐거웠고,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머지않아 마을에서는 그녀의 평판을 시샘하지 않게 되었고, 열 일곱 살이 되기 전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방종한 생활에 스스로를 내맡겼다.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마가렛이 라비아노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그녀를 내몬 상황은 그리 분명하지 않으나 가장 그랬음직한 정황을 가려본다. 그 당시에는 아주 먼 거리인 몬테폴치아노 바깥쪽에 사는 어떤 귀족에게 성에서 일할 하인이 필요했다. 마가렛은 그 일자리를 얻었는데, 거기서는 적어도 계모에게서 자유롭고, 제약이 있기는 하나, 즐겁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주인은 젊고,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였으며 그 부류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남자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는 듯이 고개를 높이 쳐들고, 분수를 모르고 도도한 얼굴을 하고 저택을 돌아다니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소녀에게 그의 눈길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관심을 표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그녀가 자신의 시중을 드는 동안에도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쪽에서는, 마가렛은 눈치가 빨라서, 라비아노에서 같이 놀아났던 지체가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주인도 자신에게 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간파했다. 게다가 이즈음에는 그녀 자신이 마음이 끌려서,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자기도 자신의 방식대로 거기에 응했다. 실제로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경쟁자도 없었고, 주의를 줄 어머니도 없었으며, 학대할 계모도 없었다. 곧 마가렛은 그 당시 관습상 결코 용납이 되지 않을 주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보다 쉽게 용인이 될 그의 정부로 성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언젠가 그는 그녀에게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났고 그로써 마가렛은 그 상황에 안주했다.

몇해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나, 나날이 불안한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부도덕한 생활과는 별개로, 그녀의 자유로운 기질은 곧 자기가 자유롭지 않은 노예상태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비아노에서의 불안한 어린 시절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덜 불행했던 것 같았고 아버지의 오두막집에서 겪은 가난과 구속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부와 황금 사슬 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러한 시간에는 어머니의 추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얼굴에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로해서 최근에 무시해왔고,또 대단히 무분별한 생활로 사라져 버린 죄의식이 되살아 났으나 이제는 유령이 출몰한 것처럼 그녀 앞에 어렴풋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 모두를 보았고, 그 모두를 싫어했고, 그 때문에 자신을 싫어했으나 피할 데가 없었다. 그것은 아주 비참했으나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스스로 떠안아야 했다.

고독할 때에 그녀는 숲의 그늘 속을 방황하며, 이루어 졌을지도 모를 인생과, 옳바르고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꿈꾸곤 했다. 그녀는 성문에서는 너그려웠다.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남을 돕기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교만해서 여왕처럼 도도한 태도로 성 주위를 돌아다녔다. 아무도, 그녀를 소유한 남자조차도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뇌를 몰랐다. 때때로 그녀를 붙잡히 여기는 이들을 만나곤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했으며, 그녀가 겪고있는 위기에 대해 경고했으나 마가렛은 재치있게 경고를 웃어넘기고 언젠가는 자기가 성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가렛이 스물 일곱 살이 되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 우연히 그녀의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야만 했다. 며칠이 지나, 그가 돌아올 때가 되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성문에는 그가 데려간 애견이 나타났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개는 곧바로 마가렛의 방으로 와서, 킁킁거리기 시작하고는 그녀를 밖으로 데려가려는 듯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마가렛은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뭔가 의심스럽기는 해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녀는 벌떡 일어나 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개는 그녀를 성벽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끌어 내렸다. 나뭇꾼들이 쌓아 놓은 것이 분명한 나무 부수러기가 쌓인 무더기에, 개는 조용히 멈춰서, 전보다 더 킁킁거리며, 코로 무더기 밑을 쭈셨다. 마가렛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 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 밑에 있는 구덩이 안에 죽은지 며칠 지난 것이 분명한 주인의 시신이 놓여있었는데, 구더기와 벌레들이 그 위에서 바글거렸다.

결국 그가 어찌하여 죽게 되었는지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갈등이 깊고, 가족간의 불화가 심한 그 시절에는 이런 살인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시체를 세심하게 매장한 것으로 보아 살인인

듯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마가렛에게는 자기가 본 것이 죽음 이상의 것으로 느껴졌다.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바와 같이, 그녀 가슴 속에는 아직도 믿음이 살아 있어서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사랑하고 시중들었던 남자의 시체는 눈앞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영혼이 벌을 받아서 지금 지옥에 가 있다면, 적어도 그에 대하여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육신을 죽였겠지만, 그녀는 한없이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게다가 그녀 자신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었다. 과거에 남자들이 그녀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도록 부추겼으며 그걸 얼마나 자랑으로 여겼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 때문에 어떤 경쟁자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누군가가 알지도 모른다.

다시 생각하면, 그가 지금 누워있는 곳에 그녀의 시신이 누워있어서, 빼어난 미모가 벌레들에게 먹히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 그녀의 영혼은 어디에 있게될까? 그 점에 대하여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 생애가 앞에 전개되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평생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마가렛은 이중으로 비참해져서 제 정신을 잃고, 그곳에서 급히 떠나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는 오래지 않아 결심했다. 성이 아직도 그녀의 집일지는 몰라도, 단 한 순간도 더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러나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녀가 알고 있는 피난처는 단 하나 있었으며, 세상에서 그녀를 동정해줄 것같은 사람은 단 하나였다. 그녀의 품행으로 인해 아버지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눈밖에 났고, 그녀가 초래한 부끄러운 짓으로 인해 그는 여러 해동안 내내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아직도 거기에는 그가 그녀에게 늘 보여준 다정함과 사랑의 추억이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특히 남들이 그녀를 나쁘게 말하고 품행을 비난할 때면, 때때로 화를 낸 건 사실이나, 언제나 결국에는, 그녀가 그에게 가면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들였다. 그녀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한 번 용서를 청할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실망시켜서 되돌아 가지 않으려 했었더라도, 그녀는 마음 속으로 이번에는 자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옷을 입은 그대로, 아이를 팔에 안고, 자신이 한 부끄러운 일에는 개의치 않고, 그녀는 성을 떠나서, 무거운 걸음으로 산등성이를 넘고 골짜기를 내려가 라비아노에 있는 아버지의 오두막집으로 가서 그안에 홀로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무릎에 주저 앉아 죄를 고백하고 한 번 더 받아들여 달라고 눈물로 간청했다.

노인은 딸을 바로 알아 보았다. 만난지 오래 되었으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어찌 되었든 세월이 흘러 빼어나게 아름다운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어도, 그의 가슴속에서 한 때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한 아이의 모습이 사라질 수는 없었다. 용서는 쉬웠다, 그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서 찾아 내기가 쉬웠다. 그녀가 어렸을 때에 제 멋대로 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경이 많은 성품을 가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좀 더 안락하게 했더라면, 아마도 가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좀 더 세심한 보호자였더라면, 오래 전에 나쁜 길로 유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했더라면, 그녀는 그렇게 멀리 방황하지 않았을테고, 이러한 치욕을 그와 그녀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후회하고 있었고, 행실을 고치고자 했으며, 자신의 말로써 이를 증거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신뢰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니 그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리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노인은 스스로와 갈등한 다음, 자신을 납득시키고는 얼마 동안 그렇게 지냈다. 마가렛과 아이는 받아들여졌는데, 그녀가 집에서 조용히 살았더라면 과거는 잊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는 것은 마가렛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가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았고, 속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으며, 큰 추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과거와 단절했음을 증거해야 하고, 회개할 뜻이 있었다. 공개적으로 속죄함으로써 죄와 맞서 투쟁한다는 마음이 확실하지는 않았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의 선교사들이 이에 대해 설교했고, 그녀의 이웃에 이를 위협스러운 정도로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마가렛은 자기가 책임져야할 치욕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웃이 알게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허리 둘레에 속죄의 밧줄을 묶었다. 그녀는 교회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가 지나가며 자신을 멸시하게 했다. 그래도 그녀가 바라는 모욕을 받지 못하자, 어느날, 사람들이 미사에 참례하러 모였을 때에, 모인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자신이 살아오며 저지른 부도덕한 짓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조용히 지내며 추문이 사그라들게 내버려 두기를 바랐으나, 그녀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잠깐 사이에 그녀에 대한 그의 마음은 바뀌었다. 관용은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비통함으로, 비통함은 미움 비슷한 것으로 변했다.

게다가, 집 안에는 고려해야 할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계모였다. 그녀는 처음 왔을 때부터 마가렛과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가렛의 귀가를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나, 때가 오기를 기다렸었다. 이제 그의 마음이 흔들리자, 그녀는, 노인에게는 은밀하게, 마가렛에게는 면전에, 비장의 수를 꺼내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주장을 다 내세웠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식구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 닭고닭은 여자가, 그것도 팔에 포대기로 감싼 아이를 안고서, 감히 깨끗한 문지방을 넘어왔다. 그녀가 어렸을 적에 무모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를 했었지!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가 떠날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말해 줬다. 여러해 동안 자기는 사치스럽고 안락하게 살면서, 가족들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가족들을 좋게 대한적이 없고, 아는 척 한 적도 없지 않은가. 조심하라고 하라지. 결과를 받아들이라지. 이 집은 대단히 치욕을 겪었다. 그런 년을 한 지붕 밑에 두어서 더 이상 치욕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어느날 사태가 막판에 다다랐을 때에, 마가렛과 아이는 한 마디 동정의 말도 없이 문밖으로 내쫓겼다. 그녀가 참회를 바란다면, 가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광적인 고행자들과 함께 그것을 하라는 것이었다.

마가렛은 버림받은 신세가 되어 스스로를 책망하며 정처없이 길거리에 서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이 현명하다거나 마음 놓이는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그녀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도 그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가렛은 그걸 알았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쫓겼으니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었다. 그저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이고 행길에서 홀로 머물 곳을 찾을 뿐이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자신만 돌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품안에 아이도 있었다. 나무 밑에 앉아서 그녀는 눈길은 라비아노에서 멀어져서 몬테폴치아노가 있는 산등성이를 어지러이 배회했다. 산등성이 위쪽으로는 두고온 밝고 즐거운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근심이 없고, 거기에서는 추문을 짓밟고 여왕처럼 살 수 있다. 거기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녀의 처지를 묵인해준 부유한 친구들과 그녀가 자선을 베풀어서 은혜를 입은 가난한 친구들이. 위에 있는 성안에서는 아직도 재물과 사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그녀가 그들에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동료로서 갖는 평화도 거기에서 기다린다. 그런 것 말고는 성에서는 그녀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리! 그녀는 지금 자유롭다.

고요히 따로 떨어져서 회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으므로,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벗어나 그 위에서 최선의 것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다른 한 편으로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회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렇게도 노력했으나 겨우 여기까지 왔다. 그녀는 정처없이 길거리에 내쫓겨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다. 마침내 용서받고 사람들이 다시 받아들인다 해도, 그녀는 결코 다시는 그전처럼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때까지 자신을 잘 알았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아지기를 바랬던가? 자유의 기쁨을 알게된 그녀가, 라비아노에서는 오랫동안 자라온 옛 환경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뒤에 남겨둔 농부와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오래 전에 했던 생활이 다시 지겨워지거나, 그것이 더욱 부담스러워 질 것 같지 않은가? 다시 옛 유혹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거나, 늘 빠져 있었거나,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결코 견딜 수 없을지 불확실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마지막 상태는 최초의 상태보다 더 나쁠 것이다. 신중히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고, 아마도 여태까지는 나쁘게 사용한 수단과 재능을 좋은 데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것일까? 이렇게 괴로와하며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에, 온통 잘못 되어가던 참회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던 옛 생활로 되돌아가 이제부터는 더 나아지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열망이 마가렛에게 떠올랐다. 나무 밑에서 홀로 있던 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녀와 그녀를 뒤따른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마가렛을 어려움을 이겨냈다: “나는 그대를 타오르는 빛이 되게 하겠노라,” 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어둠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밝혀라.---나는 그대를 죄인들의 본보기로 삼아, 어떻게 나의 자비가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그대에게 자비롭듯이 그들에게도 자비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래전에 결심하고이제는 과거로 되돌아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일어나 가려고 했다. 하지만 어디로?

그녀가 내려간 길은 코르도나로 뻗어있었다. 그내 내면의 목소리가 거기로 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코르도나에는 프란치스코회 수도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곳은 지방에서는 유명했다. 에리아스 수사가 설립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수도사들은 어디서든지 죄인의 친구라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거기로 가면, 아마도 그들은 동정해서 거처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지방뿐만 아니라 코르도나까지도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철저한 변화를 쉽사리 믿어주리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시도나 해볼 수 밖에 없었다. 최악의 경우또 다시 길거리로 나왔을 수 밖에 없었다. 그것도 그녀가 방금 라비아노에서 받은 대접보다는 견딜만 할 것이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었다. 마가렛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수사들은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동정해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충고백을 하며 엄청난 눈물을 쏟아서 목격한 이들이 닦아주었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마가렛이 진지하고 해롭지 않으므로 그들은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는 그녀를 마을의 점잖은 부인 두 명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어려운 처지를 돕기위해 보잘것 없는 재산을 쓰고 그녀를 보살폈다. 그들의 집에서 그녀는 진실된 참회의 삶을 시작했다.

마가렛은 무슨 일이든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았다. 죄짓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죄짓기에 세상과 맞섰다. 이제는 회개하기로 마음먹고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무시해 버렸다. 그녀는 화려한 옷과 보석에 빠졌었다. 이제부터는 친구들이 허락하는 한, 철저히 누더기를 입고 지냈다. 전에는 화려한 침상에서 잤으나 이제부터는 딱딱한 바닥 위에만 누웠다. 그녀의 미모는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망쳤으며, 지금은 스물 일곱 살인데도, 아직도 그녀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감탄하는 시선을 끌었기에, 그녀는 망가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얼굴을 베고, 상처를 내어서 어느 남자든 쳐다보지 않도록 했다. 아니, 그녀는 외부로 나가서 대부분의 죄를 지었는데, 그 대부분에 대하여 참회를 하였다. 그녀는 몬테폴치아노로 가곤 했는데, 거기에서 그녀는 여인을 고용하여 목 주위에 밧줄을 묶은채 짐승처럼 끌며 외치게 했다. “죄 많은 년, 마가렛을 보세요.”라고. 그녀에게 한계를 지키게 하는 데는 강하고 현명한 고해신부가 필요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속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여러해 동안 그녀는 과거의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 욕망은 깊이 뿌리를 내려 즉시 뿌리 뽑히지 않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라도 그대로 있을 것이므로 그녀가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에게 얼마나 오래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묻곤 했다. 때때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그러면 그녀는 인생을 보통 사람들 처럼 살아야 만한다. 또 때때로 그녀 주위의 사람들은 그녀가 하고 있는 노력이란 모두 대단한 오만을 증거할 따름이 아니겠느냐는 말을 꺼내곤 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후에 그녀가 도달한 고결하고 하느님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경지를 보게 되며, 마지막에 마가렛은 대단히 인간적이었다. 단련되기는 했지만 그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렛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고해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이시여, 저에게 제 육신에 굴복하라고 하지 마소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저와 제 육신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나이다.”

마가렛의 여생은 하느님이 회개자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놀라운 기록이다. 그녀 자신과 아이가 지내던 곳에서, 신부들은 현명하게도 그녀에게 스스로 빵을 벌어들이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간호사 일로 벌기 시작했는데, 곧 가난한 사람들만 간호해주고 자신은 구호품으로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은퇴하여서, 그 이전의 성 프란시스처럼, 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대신에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위협으로 이끌었던,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자라났다. 그녀는 그 열망은 여기, 지상에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거나, 아니면 전혀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느님은 그녀에게 좋으신 분이였다. 그분은 그녀 자신에 대해 본질적으로 알게 해주셨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 그녀를 위한 그분의 돌봄 등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녀를 기쁘게 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은 자신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분에게서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커졌다. 이 자신감은 그녀의 강점인 동시에 약점인 천성에 근거한 거룩함의 특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제 2의 막달레나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것은 이 때문이지, 단지 그녀가 회개자였다는 사실 만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제 1의 막달레나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녀는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곤경 중에도, 죄 중에도,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취할 것을

추구했으며, 사람들이 무어라 생각하든, 사랑보다는 슬픔을 위하여, 사랑과 슬픔을 밀접하게 결합시켜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나중에 마찬가지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죄책감은 결코 그녀를 주님께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갈보리 언덕에서의 사건 이후 주님께서 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녀가 첫번째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할 만한 장면에는 우리가 그녀를 재빨리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그분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을 드러내셨다. “마리아,” 라고. 하지만, 마치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발에 매달리자, 그분은 그녀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이르셨다.

코르도나의 마가렛의 성격과 행동은 일치했다. 그녀는 전에 자신이 어떠한지 잊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에 대한 생각이 잠시라도 결코 그녀를 우리 주님께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개에 전념했으나, 그 동기는, 그녀가 회고했듯이, 참회라기보다는 사랑이었다. 회개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남자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에도 용감하게 맞섰다. 처음에 그분은 그녀의 기분을 맞추어 주셨다. 그분은 그녀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분은 심지어는 그녀를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냥하게 대하셨는데, 그때는 그녀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싫증났을 때였다. 그러나 나중에, 가장 위대한 은총의 시간이 오자, 그분은 그녀를 보다 더 멀어지게 이끄는 것처럼 함으로써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 “Noli me tangere”(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는 장면이 반복된 것이다.

이것은 생애의 마지막 23년 동안 마가렛에게 퍼부어진 놀라운 은총과 계시의 이유로 충분하다. 그녀는 스물 일곱 살에 회개자로서 코르도나에 왔다. 프란시스코회 신부들은 그녀에게 성 프란시스 제 3 수도회의 입회를 허락하기 전에 3년동안 시험했다.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기간 동안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빵을 벌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기를 그만 두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덜 일하지 않으며, 그대신 자신에게 지급되는 구호품만 받았다. 곧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선단체에서 주는 것의 절반을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서야 만족스러워 했다.

마가렛은 실질적이며 조직적인 생각을 가졌기에 이밖에도 다른 일들을 계획하였다. 그녀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할 여인들을 위한 기구를 창설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그 지방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니, 그 지역의

호전적인 주교 조차 그녀의 말을 마지못해 듣게 되고,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물 중에서 상당한 몫을 내놓아야 했다. 그 정신이 불가사의한 통찰력으로 신비스러웠기에, 그후의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처럼, 마가렛은 행동하는 영혼을 함께 지닌 신비가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행동으로 이루어진 영혼을 보여주는 놀라운 한 예이다.

마가렛은 꼭 50 세 되는 해인 1927 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고해신부이자 첫번째 전기작가는, 그녀의 사망 직전 어느 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환시를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가장 충실한 사도는 은으로 된 외투를 입고,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거룩한 천사들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그녀가 이 탈혼 상태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렛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막달레나, 그대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한다.”

알려진 또 다른 사례로, “영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불려가서, 그녀는 예전에 막달레나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그러는 동안에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보고자 했으며, 주님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했다.”, 고 한다. 이렇게 끝까지 그녀에게는 막달레나와 일치하는 점이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녀는 코르도나의 성 바실 성당에 묻혔다. 그녀의 시신 주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의 무덤에서 수없이 많은 육체적 그리고 영적 기적이 일어나서, 그녀의 고해신부는 개인적으로 혼자 알고있는 기적을 기록한다면 책 한 권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증언한다. 그리고 오늘날 코르도나는 그 시신보다 더 거룩하고 귀중한 것은 없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 시신은 6 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도 부패하지 않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다.

부랑자

천주의 성 요한
(1495-1550)

지구상 어디에서든 이름을 떨친 사람들 중에서 천주의 성 요한처럼 불운한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1495년, 폴투갈의 몬테마요르 엘 노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으나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외아들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다. 그러나 이 보물을 오래 가질 수 없을 운명이었다.

어느날, 요한이 여덟살일 때, 그는 사라졌다. 그가 계획적으로 유괴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낯선 사람의 꼬임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얼마 후에 그가 태어난 곳 반대쪽, 스페인 반도 해안의 카스티야 왕국, 오르페사 거리에서 갈 곳 없는 부랑자 신세로 발견되었다. 거기, 외국 땅에는 그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그는 찾을 수 있는 생존 수단이면 무엇이든 만족해야 했기에 부근에 있는 시골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스물 두 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듯하다.

그리고, 변화가 생겼다. 그때는 전쟁과 정복의 시대였는데, 특히 스페인에서는, 시골 사람들일지라도,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새로운 나라가 발견되었다던지,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던지, 그들 가운데에서는 찰스 1세로 알려진, 찰스 5세 황제로부터 평범한 병졸에 이르기까지, 그당시의 영웅들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 등을 빼고는 할 이야기가 없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한 번도 진적이 없다는 믿을 수 없는 무용담으로 마을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바다를 헤매다 돌아온 선원들은 미국이나 동인도 제도에서 만난 신기한 사람들과, 그들이 본 신기한 광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때로는 누군가가 호주머니 가득히 황금을 가득히 채우고

돌아와서는,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생을 자립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골 태생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들도 나가서 그렇게 하면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는 모병관들이 와서는 이 젊은이들의 눈앞에 황제의 군대에서 복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번쩍거리는 미끼를 흔들며 대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쟁기를 밀어놓거나, 양떼를 언덕 비탈에 내버려 두고는, 하사관의 북소리를 뒤따라가서는 입대했다.

머지않아 목동 요한도 다른 사람들처럼 들떠버렸다. 그가 거의 스물 두살일 때 그는 보병 중대에 입대하여, 찰스 5 세 황제를 위해서, 처음에는 폰타라비아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싸우고, 나중에는 헝가리에서 터키족에 맞서 싸웠다. 요한은 18년 정도를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기병으로 종군하였다. 그러나 전투에서 이기는 걸 돕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은 거의 다 잃었다. 카스티야 언덕에서 그는 몇가지 종교 의식을 지속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지녔던 보잘 것 없는 믿음과 신앙심마저도 잃었다. 그는 도덕심을 버리고, 동료 군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부끄러워 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혼이 굳어져 버렸다,

아직,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만은 아니었다. 때때로, 밤에 그가 밀짚 침대에 홀로 누워 있을 때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 나곤 했다. 여덟 살에 집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의 정경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어린 아이였을 때에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오두막집이 어슴프레 떠오르거나, 양들과 함께 있던 언덕 비탈이 떠올랐다. 그 언덕에서 그는 혼자서 돌아다녔으나, 마음은 행복했고 완전히 자유로웠다.

이러한 추억은 그의 현실--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때때로 전리품으로 재물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고, 환락과 음주 그리고 죄에 빠지고, 무엇보다도 잔인한 생활--과 비교가 되었다. 여기에 그가 진실로,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성품이 있었으니, 그의 삶이 아무리 거칠었다 하더라도, 요한은 마음속으로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가없이 여겼다. 그의 성품이 아무리 무모하였다 할지라도, 요한은 찾아오는 어느 결인에게나 줄 수만 있으면 적선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일이 없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듯이, 그들 중에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다.

한 두 가지 사건이 그가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번은 약탈을 하러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심하게 다치고, 적에게 잡힐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죽음을 예감하며

땅바닥에 누워있는 동안에, 본능적으로 어린시절의 기도가 입술에 떠올랐다. 그는 마리아에게 구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아무튼 그는 구조되었다.

다른 사건으로, 그는 엄청난 약탈품 더미의 보초를 섰다. 보초 교대를 하고서 그 귀중품들 중에서 많은 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연스럽게 요한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가 도둑의 공범이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총살형을 선고받았는데, 좀 더 관대한 장교가 그가 사면을 받도록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군대에 대한 그의 염증이 깊어지게 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군에서 빠져나와 그가 알고 있는 평화를 되찾고자 했다.

자유를 되찾는 날이 오기 전에 요한은 40 살이 넘어버렸다. 헝가리에서의 종군이 끝난 후에 그의 연대는 마침내 해체되었고, 사람들은 갈리시아 해안에 상륙했다. 그 즉시 그는 자신의 일에 착수했다. 그 당시에는 회개자들은 순례를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므로, 요한은 걸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순례를 떠났다. 그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어서 성지에서, 자신을 하느님 바로 앞에 봉헌하고, 고백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용서받은 기쁨과 더불어 그의 아주 어린 시절에 생각이 미치고,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커다란 열망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폴투갈의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아저씨를 만나서 용케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다. 그에게서 어머니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녀의 죽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버지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여서, 거기에서 일생을 마쳤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요한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 순간에는, 그는 자신이 타락한 기병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이기에 그 나라에 더 이상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요한은 폴투갈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생계 수단으로 무엇에 의지할 수 있었을까? 세월이 좋을 때에 전직 군인이라 자존심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늘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런 사람은 무법 생활에 길들여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장사할 줄 모르고, 너무 나이 들었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과 언어가 주위의 젊은이들과 여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 신중한 아버지들과 주의 깊은 어머니들 모두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 체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여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이 이 자리를 구할 때 같은 부류의 사람들 정도로만 대접받았다. 그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그의 나이는 또 다른 장애물이었으며, 비참하리 만큼 가난해서, 결국은 세빌리아 부근에 사는 부유하고 인정 많은 부인택에서 다시 목동으로 일하는 자리를 구한 것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나이 42 세에, 요한은 20 년전에 떠난 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 언덕에서 양들과 외롭게 있는 시간에는 적어도 기도를 하려고 애썼다. 기도 중에는 자신이 대단히 헛되이 살았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들었다. 실로 헛된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었다. 그는 남들에게 끼친 엄청난 해악에 소름이 끼쳤다. 도달한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가 권한을 인간에게서 받는다면, 그는 분명히 그들로 부터 오로지 멸시만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해를 끼치고, 아마도 어머니를 포함하여, 대단히 많은 이들의 목숨에 책임을 져야할 그가 양떼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안락하게 지내는 것에 만족해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하든, 그가 파멸시킨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의 삶에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속죄를 위해 내놓아야 했다. 그가 한 나쁜 짓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의 무어족들 사이에서 고통받는 기독교인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졌다. 그는 그들에게 가기로 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들의 몸값으로 쓸 것이고, 벌 수 없다면 아마도 자신을 그들 중의 한 명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었다.

마음 속에 이런 계획을 품고서, 요한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지브랄타로 갔다. 여기에서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한 폴투갈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런데 그는 세우타 해협 건너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지독히도 가난했기에, 적어도 그를 돕는 것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한은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세우타로 가서, 거기에서 요한은 신축중인 성채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번 것을 가난한 동포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래 가지 못했다. 얼마후에 정착지에서 사목하던 신부가 그를 보았다. 그가 새 신자와 인간성과 그의 과거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되자, 그는 요한에게 스페인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프리카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있을 곳이 못되었다. 그는 그에게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살며 겪을 위험을 지적했다. 부분적으로 그들은 옛날의 그와 너무나도 비슷했다. 그의 동료들은 다들 바가 없었고, 곧 이전에 받은 유혹을 다시 받게 되어 타락할 것이다. 이슬람 교도들과 어울리는 위험이 또 있었다. 이미 그와 비슷한 사람들 몇명이 그들의 도덕률에 매혹되어 그들의 종교에 입교했는데, 그 도덕률은 자신들의 것보다 더 마음에 맞았던 것이다. 만약에 요한이 조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따라 갔을 것이고, 그의 마지막 상황은 제일 처음 것보다 더 나빴을 것이다.

요한은 신부의 주의를 받아들여 스페인으로 되돌아 갔다. 첫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일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가 받아야 할 응분의 벌을 스스로 확실하게 받을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에게 선행을 할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 질 것인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곧 그는 목적을 이루는데 매우 적당한 장사를 스스로 생각해 내었다. 다음에 그는 손수레를 끌거나 행상 바구니를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성화와 신앙 서적과 성물을 팔았는데, 손님에게는 아무쪼록 잘 쓰기 바란다는 훈계를 덧붙이고서야 물건을 내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그라나다로 왔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행 중에 그는 길에서 허약한 맨말의 조그마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길을 가며 좀 업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요한은 쉽사리 아이를 들어서 어깨에 태우고는 이중의 짐을 갖고 터벅터벅 걸었다. 그러나 무게가 많이 나갔고, 요한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다. 길가에 있는 썸에 다다라서 요한은 아이에게 쉬었다 가자고 제의했다. 그러자 아이는 그의 어깨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모습을 바꾸고는, “천주의 요한이여, 그라나다는 그대의 십자가이노라.” 라고 말하고는 바로 사라졌다.

그라나다에 도착하여, 요한은 스스로 선택한 장사를 계속했으나 규모가 더 커졌다. 설교를 할 줄 몰랐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었으나, 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라나다 시 입구 부근의 길 모퉁이 가게를 세워서 성화와 서적과 성물 팔기를 계속했다. 그는 또 이웃에 있는 교회를 꾸준히 찾아갔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교회의 설교자는성녀 데레사, 보르기아의 성 프란시스, 그리고 거룩하기로 잘 알려진 여러 사람들의 친구인 아빌라의 복자 요한이었다.(이 책이 출판된 후인 1970년 5월 31일에 시성됨) 어느 날(성 세바스찬의 축일, 스페인에서는 대축일) 아빌라의 요한이 설교하고 있었다.

그날의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는 영광이었다. 설교를 듣고있던 청중들 가운데에서 천주의 요한은 여기에 그의 첫번째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가 과거에 지은 죄에 합당하도록 그를 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이것은 할 수 있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바보는 될 수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는 일에 착수했다. 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요한은 먼저 나가서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자신의 얼굴과 몸을 마구 치며, 진흙탕에 덩굴고, 도로를 지나는 행인들 발치에 주저 앉았다. 그렇게 이 길 저 길로 옮겨다니며 이웃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무리지어 그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굉장하게 즐겁게 해주었다. 그들이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그는 어리석은 짓을 고집하며,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곧 이웃 사람들은 길 모퉁이 가게 주인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가 늘 이상하더니 이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가엾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동정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으면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날 교회에서 미사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요한은 뛰어 들어가 바닥에 벌렁 누워서 이전 보다 더 크게 자비를 구하여 울기 시작했다. 물론 소동이 벌어졌다. 그는 분명히 미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 신자들 중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몇이 그를 잡아 끌고는 가까운 정신병자 수용소로 데려갔다.

마침내 요한은 소망을 이루어서, 정말 바보로 인정 받았으며 또 그렇게 대접받았다. 이러한 대접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그는 수용소 안에서 그전보다 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에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로 쓰던 방법은 채찍질이었다. 요한은 특별히 골치 아픈 환자였으므로, 매일 끌려나가 매를 맞았다. 그러나 맞으면 맞을수록 그는 어리석은 짓을 더 고집했다.

마침내 어느날 아빌라의 복자 요한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듣게 되었다. 이제 복자 요한은, 아마 고백을 통해서였겠지만, 가게 주인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가 이상하다는 걸 쉽사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미쳤거나 정신 이상이 아니었다. 회개자의 술책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에, 그는 이 일에 결말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는 병원으로 가서 요한을 단독으로 만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요한이 제 정신인데도 미친척 한 것이 진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짓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었는데도 정신 병자에게 주는 자선 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그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지쳐빠지게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들을 끝없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 모든 지적으로 해서 요한은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새로운 관점으로 비추어 보았다. 그는 바로 제 정신으로 돌아왔고, 아빌라의 복자 요한은 바로 그의 퇴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요한은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기의 가게로 되돌아 갔다. 그러나 정신 병자 사건이 증거하듯이, 이때에는 그의 열정에 비해 그 가게는 너무 작아졌다. 그는 좋은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오기만을 종일 기다릴 수 없었기에, 뭔가 다른 할 일을 찾아야 했다. 처음에 그는 과달루페의 모후 성지로 순례를 떠나서 분명히 어떤 결심을 하고 돌아왔다. 마침내, 여러 해가 지나서. 알게되듯이, 그는 그의 참 성소를 찾아 냈다.

그라나다에 되돌아 와서, 그는 다른 집을 세언어서는, 즉시 그 마을에서 쓰레기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를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집없는 부랑자와 유랑인들, 교회 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들,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서 나온 죄수들 등, 누구든 문제삼지 않는 것 같았다. 요한에게는 모두가 같았다. 그는 그들이 누울 수 있는 판자만 있으면 그들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다. 너무나도 자주, 너무 불구가 심해서 자신의 숙소까지 기어 갈 수도 없는 거지들을 보면 자신의 등에 업고서 데려갔다. 그러한 사람들을 업고있는 요한은 그라나다의 거리에서 눈에 익은 풍경이 되었다.

집안에서 요한은 스스로 모든 일을 다했다. 처음에는 봉사자도, 간호사도 없었으나 전쟁에서의 경험이 이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타고난 착한 마음씨로 해서 그는 상처와 붕대에 대하여 배웠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지식으로 일에 착수했다. 그는 환자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는 그들의 발에 입맞출 수 있었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보살피 줌을 느끼게 했다. 그는 그들을 침대에 누이고 제집에 있는 기분을 갖게 했다. 그는 그들의 침대 옆에 앉아서 함께 즐거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기도하러 가라고 넌지시 유도했다. 그것은 모두 임시 변통이었으나 그 집안에는 적합했다.

이러한 조치로 어떻게 그라나다의 쓰레기들의 모임이 곧 평온과 만족의 모범이 되었는지 놀랍기만 하다.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겼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행상인이었고 길거리에서 목청껏 소리지르기를 배웠다. 게다가, 예리한 유머 감각으로, 그는 남자나 여자나 그의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제 그는 같은 방법을 써먹었다. 그는 손에 든 양철 깡통을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소리 장단은 그의 유머 감각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적선합쇼, 신사 숙녀 여러분, 적선합쇼.” 는 그가 써먹던 구호였다. 그러면 그 특이한 것이 사람들을 웃겼을 뿐만 아니라 살들의 주머니를 열게끔 했다.

돈은 오로지 이런 방식으로만 들어왔다. 곧바로 요한에게 자선금을 준 사람들은 뒤따라가서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는 그들은 경악했다. 그는 간호사도 의사도 아니었고, 신부도 수도사도 아니었으며, 교육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함께 지내는 환자들 말고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은 때때로 그의 사랑의 열기에 사로잡혔다. 곧바로 그 집 주위에 스스로 그의 후원자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더 부유한 남녀들의 모임이 생겨났다.

이렇게 놀라우리 만큼 짧은 시간내에 요한은 그라나다에서 공인이 되어버렸다. 바로 이러한 지위로 올라간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상처받을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모든 종류의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도록 그의 조직이 확장되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걸인들을 모으는데 만족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그들이 사는 소굴을 뒤졌다. 평판이 나쁜 집들이라도 그가 찾아다니는 대상이었으며, 곧 그가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그는 그 집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사는 이들을 꾸짖고, 타이르고, 동정했다. 그의 수고는 자주 조롱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신에 또한 그 만큼 자주 많은 회개자들을 데려와 정직한 삶의 길로 되돌려 놓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하던 일은 교회 당국의 주의를 끌었다.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기이한 방법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요한이 거둔 놀라운 결실 밖에 볼 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주교에게 호출당했는데, 주교는 그 당시에 그라나다의 시장직도 맡고 있었다. 주교는 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옛날에 좁은 시골길에서 도와준 아이가 그를 천주의 요한이라고 불렀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천주의 요한이 언제나 그대의 이름이 될 것이니라,”고 주교가 응답했다. 그래서 그는 그 호칭을 갖게되었다. 그리고는 주교는 그의 옷에 대해서 물었다. 요한이 지위가 상당한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데도 우중충한 몰골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옷과 바꾼 거지의 옷 한 벌을 입고 있었다. 주교는 그에게 수도복을 입도록 명령했다. 이 옷으로 그가 주교의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그라나다의 시민들이 그에게 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병원이었다. 그런데 병원이라고는 해도 일종의 구빈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우리가 지금 구빈원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너무 과분한 이름일 것이다. 이제부터 요한은 운영에 전념해야 했다. 그에게는 그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자원 봉사 직원이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가 불운에서 구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기꺼이 보답하려 했다. 그러나 요한이 단지 성공하기만 했다면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었다. 몇 명의 친구들 말고는 그에게는 적이 많았다. 그가 하던 종류의 일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반대가 일어나게 마련이었다.

첫째로는 방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구경을 했다. 그들은 소외자들을 지나치게 배려한다고 비난했다. 요한이 그들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면 부랑자들과 게으름뱅이들게 못된 버릇을 조장할 따름이라 했다. 그가 맡은 돈을 잘못 쓰고 낭비하는지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매우 자주 이를 인정했어야 했고 그들이 옳은 것같이 보였다. 요한이 기록을 해두지 않았고 들어오는 것 만큼이나 빨리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바야돌리드에서 개최된 모임에 구걸을 하러가서 많은 돈을 모아서 돌아왔으나 그라나다에 도착했을 때에는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그 돈을 몽땅 길거리에서 주어버렸는데, 대부분 바야돌리드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숙소에 있던 친구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비난하자 그는 단지, “하느님은 그라나다에는 물론 바야돌리드에도 계시다네,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거기서도 그분께 드릴 수 있지.”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과 나이 든 이들은 그가 한 때 정신병자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어서, 그를 그대로 취급했다. 한 번은 더러운 물이 담긴 통을 들고 가던 소년이 그 물을 정신병자 요한에게 퍼부었다. 그러자 거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요한도 그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을 그를 대단한 바보로 바보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 번은 요한의 외투가 스페인 신사와 우연히 스쳐서

땅 바닥,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 신사는 분개하여 요한을 주먹으로 쳐서 비틀거리게 했다. 요한은 정신을 차려서 외투를 집어 들고는 한 대 더 때려달라고 때린 사람 앞에 섰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요한에게 영향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를 조금도 성가시게 하지 않은 외부로부터의 시험이었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병원 내부로부터의 박해였다. 환자 자신들 간에 많은 불화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요한이 중재를 하려고 애썼지만 여러 곳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부정이라든가, 낭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비난하곤 했다. 그의 모든 노고가 허사가 된 것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다.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골치 덩어리는 그가 죄에 빠진 생활에서 구해낸 여인들이었다. 그는 이 가엾은 인간들을 사악한 환경에서 꺼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리라는 경고를 한 차례 이상 받았다. 그들의 본성은 믿을 수가 없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안정하기로 유명했으며, 회개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척 했을 따름이었다. 그가 그들을 위해 더 이상 해준다면, 그들은 그와 맞설 따름이었다.

요한은 이것이 지당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전처럼 해 나아갔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하려고 새 안식처를 찾아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의 친구들이 예견했던 것과 같은 일이 생길 뿐이었다. 이렇게 마련해준 안식처에서 이 가난하고 불안한 인간들을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주든지 언제나 더 달라고 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들 가까이 있는 이 걸인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욕을 받을 뿐이었고, 그것도 넘치도록 받았다. 그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거나, 그리고 그들이 늘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하면, 그들은 그를 위선자이자 광신자라고 부르며 비웃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아 알아서 전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암시하며 대들곤 했다.

그러면 요한은 늘 그렇듯이 낙천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모욕을 잘 받아들이곤 했다. 그의 성격상 그는 평생 동안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지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것에 동조하곤 했다. 그는 이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쁘게 말한 것이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번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어린 시절을 들춰내며 지독히 모욕하자, 그는 그 여자에게 은전 두 개를 주고는 길거리로 나가서 자기에게 비공식적으로 비난한 말을

온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해도 좋다고 했다. 또 다른 경우에, 어떤 방문객이 그에게 퍼붓는 비난을 우연히 엿듣고는 개입하고 싶어하자, 요한은 비난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라고 간청했다. 그는 “자비를 베푸시어, 말하고 싶은데로 말하게 해 주시오. 그들은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쁜 놈이란 걸 알고 있지요.” 라고 말했다.

천주의 성 요한은 아주 독자적인 분류되어야 할 성인이었다. 그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고, 스스로의 방식에 따라 거룩하게 되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혼자 힘으로 활동했다. 그가 설립한 천주의 성 요한 구호 수도회는 그가 거의 모르는 채 성장했다. 이는 그가 보인 모범과 영감의 결실이었으며, 그 첫 회원들은 그와 비슷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고, 그는 그들이 자신처럼 참회하며 수행하도록 했다.

그가 받은 하느님의 위안은 그 자신의 성격이었다. 초년에 그가 처음 그라나다로 갈 때에 업어준 아이는 매우 무거운 짐이었다고 앞서 말했었다. 언젠가, 말년에, 그가 십자가상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후와, 성 요한을 앞에 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 가운데에서 모후께서, 금도 아니고, 장미도 아닌 가시관을 손에 드시고는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그의 머리에 얹고는 세계 누르셨다. 그분은, “요한이여, 그대는 가시와 고통으로써 천국에서 그대를 기다리는 나의 아들이 줄 관을 받아야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다만, “모후의 손으로 주시는 가시와 고통이라면 기꺼이 받겠나이다. 그것들은 저의 꽃이며 장미이내이다.”, 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때에 그는 길거리에서 걸인을 보았는데, 방치된채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다. 늘 하던대로 그를 업고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그를 침대에 눕히고,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 발에는 구멍 뚫린 상처가 있었다. 요한이 놀라서 쳐다 보았더니, 그 걸인은 모습을 바꾸었다. 그의 온몸이 빛나는 것 같았고, 그 광채가 요한을 감싸는 것 같았다. 그가 다시 홀로 되어서, 병원을 통해 걷고 있었는데, 그의 주위에 비치는 빛이 너무 밝아서 그 병동에 있던 환자들은 그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서 몹시 놀랐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괜찮다고 설득하느라고 혼났다.

젊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해를 속죄하기 위하여,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 15년을 이제는 그들에게 선행만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두 가지 결심을 실천하며 보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베풀었다.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자신이 아플 때에도, 더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병은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더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어느날 그가 모금을 하러 외출했다가 우연히 강변을 지나치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그는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했으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 와서는 오한과 고열에 시달렸다. 그는 힘들게 평상시에 하던 일을 계속했으나 어쩔 수없이 병원내에서 그가 자식들이라 부르던 아이들 옆에 간간히 누웠다. 이것이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걸 그들의 아버지 답지 않았다. 그들은 침대 밖으로 나와서 그의 침상 주위를 떼지어 둘러쌌다. 그래서 요한은 질식할 위험에 처했는데 한 여자 후원자가 구하러 왔다. 병원을 방문한 어느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는 그의 치료에 더 도움이 될 다른 집으로 요한을 데려가고 싶어했다. 주교가 급히 그렇게 하도록 지시할 때까지 그는 그녀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임종하게 되었다. 죽음이 확실해 보이자 주교가 직접 그에게 종부 성사를 주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예,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실제적인 사랑의 모범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첫째로는,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총을 입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고, 거기에 거의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제가 죽은 후에, 제가 구해낸 여인들과, 제가 선도한 죄인들이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셋째로는, 저를 믿고 돈을 주었지만, 저에게 다 받지 못한 분들이, 제가 죽고나서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주교가 그를 안심시키자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다. 그러자 그의 성격 그대로, 그는 침대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잠시동안 자신을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인생을 혼자 살아왔고, 혼자서 죽을 것이었다. 그들이 나가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십자가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잠시후 간호사가 들어와서는 그가 아직도 거기에 무릎 고 있는 걸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구세주의 발위에 놓여 있었으나 그는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매장하려고 눕기 위해 일으켜 세울 때까지 무릎 꿇은 채로 있었다. 1550년 3월 8일 자정 조금 지나서였다. 죽을 당시 요한의 나이는 55세였다.

실패자

프란시스 사비에르
(1506-1552)

프란시스 사비에르를 빼다면 교회의 달력에 이름을 올릴 만한 성인은 아마 없을 것이며, 아마도 그보다 더 열렬한 숭배자들을 가진 영웅들은 역사상 아무도 없을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신앙의 형제들부터 우리들의 시인 드라이든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쓴 찬사의 글들보다 더 지극한 글들은 분명히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무한한 범위에 이르는 그의 시야, 지극히 헌신적이었던 삶, 그가 한 노력의 찬란한 결실, 이것들 모두가 위대함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가장 물질적이든지 가장 실용적이든지, 사람들이 성인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마음대로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여기서, 최소한, 그가 성인이었지만 인간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비에르가 인간들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인간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 베푸는 정도와 베푸는 대상에 한계가 없음을 그가 알았던 것 같으나 아마도, 무엇보다도, 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지불한 대가와 거두어 들인 결실로 업적을 평가하는, 행동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호소한다.

따라서, 교회 안팎의 찬미자들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호소하는 성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 자세히 설명한다.

동시에, 사람들은 사실상 성인의 인생에서 이러한 면이 진실로 가장 숭배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만일 선택되어 천국에 있기를 허락받았다면, 프란시스 사비에르 자신이 그에게 명예가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내재된 용기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의 행간을 읽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른 면의 진상은 너무나 명백할 따름이다.

그의 전성기에,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금 그가 거두었으라고 보는 위대한 성공을 결코 이루지 못했다. 반대로, 내부 그리고 외부 증거 자료 없이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 적어도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생각했다. 여기저기에 몇명의 충실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가 쓴 편지마다에 우정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있지만,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고립과 고독이 있었다. 때때로 그는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는 듯했다. 예를 들면, 그가 유럽에 있는 신앙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며, 가능하다면 기꺼이 그들 각자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했고, 고통스러웠던 때에, 인도에 있는 한 명의 추종자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홀로 있을 때에 자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던 한 친구를 찾았다.

또한 그 자신이 쓸모없음을 굳게 확신했다는 증거는 더 많이 있다. 매우 예민하고 쾌활한 천성을 가진 그는 강한 반작용으로 고생했으니, 비범한 재능을 부여받았기에, 무엇을 하던 방해가 되는 주위 사람들이 쓸모가 없어서 의기소침했고, 넓은 시야와 무한한 야망을 지닌 사람으로서, 영원히 우울과 절망에 쉽게 빠지고, 하는 일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안팎으로부터의 갖가지 실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했고, 여태까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치고, 아마도 그것을 실패로 돌리고, 아직도 멀리있는 지평선을 향하여 눈을 앞으로 부릅뜨고 죽은 데에 진실로 그 인간의 참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그가 운명을 성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하겠다고 결정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알아 온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의 가족도 실망했는데, 그 가족은 귀족계급에 속했으나 이제는 부유하지 않았으며, 나바르의 지배권을 놓고 스페인과 싸운 프랑스 편을 충실히 도왔으므로 가진 것 모두를 잃었다. 밤베르나를 잃은 계기가 된 전쟁에서 그의 형제들은 승자 프랑스 편에서 싸웠다. 이제, 스페인이 패전한 이래, 그 가족은 제일 나이 어린 아들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스페인 정복자 밑에서 복무할 수 없었으므로, 학자로서, 교회에서의 경력을 쌓아야 했다. 그랬지만, 단지 괴상한 거지꼴을 한 학생의 꼬임을 받아, 게다가 스페인 학생으로서, 과거는 더 의심스러운데다가, 모든 가능성을 희생하고, 성지를 변화시켜보겠다고 헛된 짓을 시작했더니! 사비에르의 가족 정도보다 더 기독교인다운 많은 가족들이 이보다 덜 확실한 것에도 실망한 것이 당연했다는 사실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또, 대학교에서는 그에게 실망했다. 학교측은 모든 혜택을 주었으니, 그를 교수직에 임명했고,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유럽의 새 엘리트 계층에서 최고 수준으로 스스로를 끌어 올릴 자리로 그를 발탁했다. 하지만 열광의 순간에, 그가 되돌려 준 것이란 신뢰성이 별로 없는 이로 간주되었던 어떤 사람의 제의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다. 물론 이그나티우스 로올라의 방해에 대하여 학교 당국이 분노한 데에는 근거가 있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결국, 변덕스럽고, 경솔하고, 몽상가이며 신뢰할 수 없다는 그들의 평가는 합당한 증거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수회의 첫 회원들이었던 그의 동료들에게는, 그의 삶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보이고, 그의 성격은 너무 기이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았다. 생활 변화로 인한 흥분을 지닌 가운데, 그는 카루투시오 수도회로 가고 싶어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한사코 말려서 가지 않았다. 처음 로마로 도보 여행을 하는 길에, 보통 사람의 판단력으로는 쉽사리 회피했을 고행을 지나치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그가 그들 모두의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테리에 도착해서, 볼로냐로 갔는데, 거기서 그는 유명해졌다. 그는 타고난 설교자이자 사도였으며, 분명히 그 도시와 다른 곳을 개혁할 인물이었다. 이리하여, 겉보기에는 개인 사무원으로는 쓸모없고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책상에 앉아서 하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신앙의 형제들은 지혜롭게도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장상 바로 곁에 두었다. 그렇게 재능있고, 통찰력이 있으며, 동정심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야말로 빠르게 성장하는 수도회의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힘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겨우 하루전에 알리고는 폴투갈로 가버려서, 그때부터 문명사회에서 사라졌다.

폴투갈에서 그는 또다시 제 자리를 찾았다. 거기서 서인도 제도행 선박이 출항 준비를 갖추는 때까지 여섯 달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사도직 활동을 하였다. 보로냐에서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감옥의 죄수들, 특히 화형장까지 함께 가기까지 한 종교재판의 희생자들이 개종했다. 그러나 그의 주된 활동은 귀족들 가운데에서였는데, 그들의 삶은 대단히 잘못된 본보기로 생각되었기에, 그들의 개종은 그들이 통치한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로써 그는 성공했다. 이러한 설교사는 이전에 궁정에서 결코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대단한 개혁이 이전에 일어난 적도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갑자기 끝낸다면 명백한 실수였다. 왕과, 백성들, 그리고 성직자는 사비에르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서인도 제도로 보내고 그는 폴투갈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떠들썩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철저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그에 관한 보고서가 나돈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5년이란 짧은 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비에르는 벌써 서른 다섯 살이 되었다. 그는 1541년 생일 날에 인도를 향해 출항했는데, 그가 들은 이야기의 전부는, 친애하는 폴투갈인들로부터 구원 신앙을 받아들이기만 열망하는 임금들과 백성들이 사는 나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착하고 나서, 그는 아마도 놀라지는 않았을지라도 얘기가 매우 다르다는 걸 알았다. 사치가 넘치고 노예들이 많으며, 온갖 나쁜 짓과 무절제를 두고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과 경쟁하던 도시인 고아—이곳이 그가 활동을 해야 했던 본거지였다. 화약과 칼을 지니고,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꼬이고, 강제로 폴투갈 병정들과 부대를 쫓아다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는—만약에 정말로 결혼이라 불려도 무방하다면—사람을 미워하는 종교, 이는 세례용 성수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었다. 도덕적으로 지극히 해이한 성직, 수녀마다 자신의 노예 시종꾼을 거느리고 있는 수녀원—이것이 그가 함께 활동해야 할 대상이었다. 교회는 거의 다닥다닥 붙어서, 넘치도록 많았다. 고아에서 일요일은 여자들과 몇몇 남자들이 교회로 가고 노예들이 옆구리에 기도서를 끼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었다. 그밖에, 종교는 주로 정복과 부의 수단으로서 중요했다.

이러한 종교와 사치와 폭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비에르는 던져졌으며, 그 첫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을 뿐이다. 그는 폴투갈인 관리들과 불화했는데, 그렇게 큰 불화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들의 권위를 간섭했거나, 탐욕을 방해했거나, 그들이 유럽에 두고 오고 싶어했던 불쾌한 진실을 절실히 느끼게 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폴투갈 깃발의 보호하에 인도에 왔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은 깃발과 함께 하여야 하고,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믿음에 따르는 사람은 폴투갈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침착하지 못한 사람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폴투갈 소유의 엄청난 영토일지라도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이 굶주리는 그의 새 영세자들을 후원하도록 그에게 준 모든 금전도 그렇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택한 데로 갔고, 공식적으로는 폴투갈의 왕이 파견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를 기쁘게하는 왕권을 섬겼지 그 이상은 없었다. 그들은 불만을 폴투갈에 전했고, 로마에 있던 장상 이그나티우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지 않았으며, 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로 대단히 확실해 보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결론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극히 비합리적이지는 않았는데, 그 자신은 더욱 크게 실망하였다. 천성적으로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높은 이상을 지니고 살던 사람이었고,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데에서 그만의 행복을 찾도록 운명지워진 것 같았다. 그런데 연이어서 그가 자신 앞에 설정한 목표를 손아귀에서 빼앗겼다. 어려서 그가 고국에 복무하러 기꺼이 형제들을 따라 나섰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그 자신이 세상에 나아가야 했다. 대학교에서는, 의심할 나위없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모든 생각에 몰두했다. 스승께서 보다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에게 학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하리라는 희망은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 대신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걸어서 로마까지 가서 시리아로 가는 배를 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지시받은 대로 하고, 목상 생활에 몰두하였다. 어떤 이는 그가 그것이 성소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그는 성지 여행을 허락받지도 못했으나, 이태리의 여러 도시에 들어가 설교하고 가르치게 되었다.

다시 그는 지시받은대로 했다, 그리고 또 다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야망이 놓여있었다. 그는 설교할 수 있었으며, 자신도 그걸 알았다. 그는 자신이 무얼 알고 있는지 알았기에 가르칠 수 있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모두 바쳤다. 그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 모든 걸 미루어 놓고 개인 사무원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 물러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삶의 목적이 있었다. 한 가지는 대 수도회를 건립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였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의 막역한 친구 한 사람과 꾸준히 교분을 나누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잘 지내고, 중대한 일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하던 일을 모두 치우고, 알고 있던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하루 내로 폴투갈과 서인도 제도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에 그 서글픈 상황에 추가되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해외선교를 열망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특별한 성소로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다른 성인들이나 위대한 선교사들의 경우는 달랐다. 성 베드로 클라베르는 소위 개종 초기부터 흑인 선교를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다. 복자 가를로 스피놀라는 처음부터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활동하기를 열망했다. 특히, 북미 선교사들과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모두 자원자들이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경우, 그가 자원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는 가라는 말을 듣고는 갔을 뿐이었다. 대학교에서의 모든 야망, 관상 생활에 대한 모든 열망, 그의 수도회를 위한 모든 좋은 구상 등이 단번에 영원히 허사가 되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별은 바로 죽음이었다. 그 이별에는 자신이 바라던 바와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젊은 선교사의 활기란 없었다. 보통 때에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험사리 드러내던 그가 이별의 순간에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킨 데에는 경건함 말고 아마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인도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지금까지 겪은 실망과 실패가 그를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 같았다. 그가 데려간 동료들 몇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좋은 믿음의 토양을 찾고자 원주민들 가운데서 시작한 무모한 첫번째 임무는 이교도인들의 침입으로 철저히 실패했다. 그는 교황대사와 폴투갈 왕의 대리대사라는 특권을 활동에 방해받을 때 말고는 실제로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왕권 집행을 소홀히 한 이유로 해서 그는 더 멀리 극동 지방으로,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용기가 있는 한, 한 번 이상 그는 자신을 도우려거 파견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보잘 것 없는 인물들에 대하여 불평해야 했다. 유럽의 대학교에서 명성을 얻기위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소위, 천재들을 비난한 것을 보면 그가 이성을 잃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한 일마다 실패했던 것처럼 보이자, 그는 홀로 서인도 제도를 떠나서, 아비시니아, 아라비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로 가고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죽기 전에 보잘 것이 없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아무데든 가고싶어했던 것이다. 그는 심신이 매우 지쳐서, 고아 대학의 정원에서 한 번에 몇주간을 폭 파묻혀 지냈다.

이 고아 대학이란 어떤 학교인가? 서인도 제도 사도의 내면적 인생을 여는 열쇠로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비에르가 발로 이룩한 업적 중에서도 그에게는 성 바오로 대학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유럽에서 그에게 필요한 선교사들을 받기를 바랄 수 없었으므로, 인도에서 자신이 선교사들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들 주위의 이교도인들이나 기독교인들과 되도록이면 멀어져야 그들의 생활에 물들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는 그들을 자기 감독하에 있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데려갔다. 달리 말하면, 그가 인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재건한 대학은 동양의 어느지역에서 왔던지 현지 출신 사제들과 전도사들을 위한 요양원이었다. 그들은 모든 유럽과의 접촉이나 간섭을 받지않고 독립된 그들 자신만의 영혼을 지닌채 성장할 수 있도록 순수한 아시아인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단체가 번창하려면,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수도원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갖은 노력을 했지만, 사비에르에게는 그런 사람이 들밖에 없었다. 한 사람은 사비에르의 강력한 권유로 그가 발로 이루어 놓은 일을 관리하도록 남쪽, 피셔리 해안으로 파견되었다. 다른 한 사람은 폴투갈인은 아니었지만, 네델란드 출신으로서 폴투갈어를 알았다. 그 때문에 사비에르는 그를 임명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수도원장 감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편지를 유럽에 보냈다. 관구장인 로드리게스가 답장을 보냈고, 사비에르가 남쪽으로 떠나있는 동안에, 젊은 예수회 신부인 안토니오 고메스가 호주머니에 수도원장 임명장을 지니고 고아에 도착했다. 그는 정식으로 취임했는데, 대학과 시내 양쪽에서 혼란이 시작되었다. 고메스는 코임브라 대학의 성실한 문도였다. 그는 거기에서 유명해졌는데, 그 대학만 알아서, 그에게는 그 대학교의 생활과 교수 방법이 최고로 완벽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대학들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밖에도, 그는 뛰어난 설교가로서 보고서로 평가한다면 사비에르 자신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그의 예의 범절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총독으로부터 주교까지, 고아의 최고위층들이 손님으로 그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까다로운 고아 귀부인들의 고해 신부로 그를 찾았다. 게다가 그는 유럽에 있는 지부장인 시몬 로드리게스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관구장은 사비에르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그에게 임명장을 주었었다. 그는 구속받지 않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게다가, 사비에르보다 6년이나 늦게 파견되었으므로 학교 운영에 더 많은 경험이 있었고, 예수회 자체의 이념과 활동에 더 정통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성 바오로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자, 안토니오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수도회의 동료들과 함께 시작했다. 식사, 취침, 오락, 영적 의무와 수련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파리와 코임브라의 학칙에 따라서 제정되고 강화되었다. 날씨만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기에 단체의 이념이 완화되어야 했는데도 동양의 특성은 무시되었다. 강한 장상이라는 평가를 받아가자 그는 철봉으로 다스렸다. 누군가가 반항한다고 입증되면, 당국이 반항자를 폴투갈로, 필요하다면 사슬로 묶어서,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에 그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돌렸다. 훈련받지 않고 인도 각지와 극동 지방 출신들이 뒤섞인 젊은이들은 코임브라의 규칙과 관습에 따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결과는 뻔해서, 단시간 내에 그들은 대학 벽을 기어 올라서 달아났다. 그러나 학장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다른 나은 계획이 있었다. 성 바오로 대학은 대학교로 승격되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회에 어울린다. 이렇게 하려면 유럽 학생들과, 고아의 관리들과 유력자들의 아들과 모든 폴투갈 권력층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했으며, 예수회의 인력은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유리하게 사용되어야 했다.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성소자를 찾아야 했다. 프란시스 신부가 마음에 두고있던 지원자들을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사도적 학교들로서 충분했는데, 대도시인 고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바람직했다.

프란시스는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보고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메스는 폴투갈 예수회의 지침을 가르치려 동부 지역에 있는 지회로 파견되었다. 사비에르 자신도 포함되었는데, 해이하고 규율이 잡이지 않은 공동체식 지침은 가르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위기는 프란시스가 동 인도제도에서 돌아와 일본으로 떠날 때까지 고아에 머문 몇달 내에 닥쳐왔다. 항해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 그가 이 기회를 잃는다면 앞으로 일년 동안은 달리 기회가 없을 것이다. 모든 권한을 이 사람의 손에 넘기고 떠나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지만, 이전의 원정 때에는 전임 원장과 늘 이렇게 해왔었다. 그는 그를 고아 밖으로, 오르무즈, 디우, 바세인, 그리고 그의 학식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폴투갈 정착지 중 하나로 보내야 하는데, 그런 곳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염려는 적었다. 그 대신에 그와 가깝고 신뢰하는 인물인 네덜란드 출신의 가스파르 바에르츠 신부를 임명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그렇게 그는 결정했지만, 여건은 그에게 너무나 좋지 않았다. 가스파르 신부는 자기 앞에 놓인 난관을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자기를 그 자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간청했다. 네덜란드 장상은 예수회원도 폴투갈 당국도 좋아하지 않았다. 반면에 안토니오 신부는 괴로와 했다. 그는 폴투갈내 공통 관구의 결정을 무효화 할 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는 친구들과, 총독과, 주교 등의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능력이 탁월하고,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며, 선행을 하도록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사라진다는 데에 놀라움을 표했다. 마침내, 그의 뜻에 너무 많은 반대가 있었고,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어서, 사비에르는 굴복하는 수 밖에 없었다. 폴투갈인 안토니오는 남고, 네덜란드인 가스파르는 오르무즈로 파견되었다. 하지만, 절충안으로, 안토니오의 권한은 대학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선교회와 선교사들의 관리는 사른 사람에게 맡겨졌다.

이리하여 사비에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본행 항해에 올랐다. 뒤에 심각한 분쟁의 씨앗을 남겨 두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가 무슨 일을 떠맡던지 보통은 실패했었다. 그의 계획들은 가장 도움을 기대할 권리가 당연히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해서 어김없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두 달이 지나서 그는 말라카에 도착했으며 한 달 후에는 일본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지닌 염원을 저버리는 마지막 슬픈 편지가 없지는 않았다. 그가 말라카를 떠날 때에 그는 폴투갈의 관구장에게 적어 보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인물에게 장상의 직무는 위험하옵니다. 그러므로 청원하오니 인도에 있는 형제들의 장상 겸 원장으로 이 직무가 영적으로 해롭지 않을 인물을 파견해 주시옵소서. 안토니오 고메스는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나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그의 요청은 관심을 끌었다. 사비에르가 2년 이상을 고야를 떠나 일본에 있다가 돌아오니 고메스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지난 2년동안 그는 심각하게 해를 끼쳤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일본을 개척하느라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 고메스는 유럽에 있는 장상에게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전했다. 그러나 프란시스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프란시스는 멀리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편지로 안토니오 신부에게 경고하고, 단지 그가 맡은 일만 하도록 간청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그대를 사랑하도록 처신하기 바라오. 나에게 편지로 그대의 영적 생활을 말해 주시오.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는 내 마음의 커다란 짐을 덜어줄 것이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메스는 프란시스의 편지를 받았으나, 자기 뜻대로 했다. 그는 프란시스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인 선교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더 잘 알았다. 그는 폴투갈의 장상이 그의 말을 들어 주도록 하였지만, 프란시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장상의 지시에 따라대학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자유 재량권이 주어진 것은 분명했다. 프란시스가 아니라 그에게 선교 정책을 수립할 권한이 있었다. 프란시스가 고아에서 항해를 떠나자마자 도착인 학생들이 다수 퇴학당하고 그 자리에 폴투갈 출신 젊은이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 중 다수가 겨우 읽고 쓸 줄 알았다. 이들 중 다수는 서둘러 졸업시켜 서품을 받게 했다. 이것이 그의 정책이 지혜롭고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그러자 고메스는 도착인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랐다.

프란시스가 일본에서 지낸지 일년쯤 후에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인도에 있는 신앙의 형제들 간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었다. 그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것이었기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1951년 11월에 그는 일본을 떠나 40일만에 말라카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그는 위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동야에 와있는 동안 받은 가장 커다란 위로를 받았는데, 그로써 그는 용기가 솟아 앞으로 닥칠 보다 큰 어려움에 맞서게 되었다. 그것은 이그나티우스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지난 4년동안에 그가 처음으로 받은 것이었다. 그 내용에는 많은 것이 암시되어 있었는데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이그나티우스는 폴투갈의 관구장인 시몬 로드리게스와, 사실상 폴투갈의 모든 관구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 무렵에 그가 작성한 유명한 순명 서약은 폴투갈 관구에 제출된 것이었다. 분쟁은 프란시스와 안토니오간의 문제같지는 않았다. 그것은 주로 관할권과 권위의 문제였다. 시몬은 여전했고, 코임브라의 이념은 안토니오의 이념이었으므로,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추종자 프란시스에게 쏟아진 바로 그 불만으로 그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았다. 할 일은 단 하나 있었다. 그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으나 자유롭게 할 수는 있었다. 그 특유의 행동력을 발휘해서, 인도와 그 동쪽을 폴투갈 관구에서 독립시켜 자기의 관할로 하고 사비에르를 초대 관구장에 임명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편지는 프란시스와 이그나티우스만이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다음 글로 끝맺었는데, 거기에는 글을 쓴 성인과 글을 받는 성인의 성격이 모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결코 그대를 잊지 않겠노라.
오로지 그대의,
이그나티우스

이 문장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늘 이그나티우스의 마음을 지배하는 “interna charitatis et amoris lex”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 문장을 회를 관장하는 모든 현장 위에 두었다. 그것은 많은 실망감을 씻어주었다. 그 이전에 프란시스는 전에 받은 사람들보다 더 능력있는 사람들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부족했다. 그가 개척한 수확을 기다리는 들판을 설명하며,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극소수의 인원만 받았는데,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을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회에서 내보내야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이내의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프란시스는 말라카에서 코친으로 향해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인도에 있는 동안 내내 전적으로 신뢰할 구 있는 사람은 단 두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파르마에서 온 이탈리아 인 안토니오 크리미날레와 가스파르 바에르츠였다. 코친에 도착하자 안토니오가 회교도인들의 습격을 받아 비명에 갔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셔리 해안에 이루어 놓은 사비에르의 성과가 다시 허사로 돌아갔다. 가스파르는 아라비아에 가있었다.

그런데 고아에서 전해진 소식은 가슴 아팠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했고, 그가 모든 신뢰를 두어야 했던 사람인 안토니오가 더욱 더 나빠졌다. 대학의 학장직에서 스스로 부관구장직을 만들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는 로드리게스에게서 받은 신임장이 사비에르가 정한 규정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프란시스가 자신의 부재중에 회를 관장하도록 임명한 사람 좋은 바오로 신부를 무시하고 탄압했다.

그러한 자격으로 그는 어디서든지 문제를 일으켰다. 마침내 토착인 학생들은 모두 대학에서 퇴학당했다. 그는 피셔리 해안 아래쪽으로 죽 내려가며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프란시스가 신중하게 인정한 관습을 안토니오는 금했다. 폴투갈에서 하지 않은 것은 인도 토착인들 사이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대학 확장 계획으로 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했다. 회에서 사용하기로 된 교회들을 그는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다. 고아에서만도 예수회 신부들은 거의 공공연하게 반항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 말에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혼란을 더하는 일로서, 프란시스가 고아에 도착하기 직전에, 관구장인 로드리게스가 장상으로 또 다른 신부를 폴투갈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가 인증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이그나티우스의 서명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분명히 로드리게스가 자기 권한만으로 그를 임명했다. 게다가 그는 동양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신부들은 또 다른 개혁자를 폴투갈에서 받아들일 모험을 하기에는 안토니오만으로도 쓰라린 경험을 충분히 한 터였다. 그는 두려운 현직 장상의 자리를 빼앗도록 허락받을 수 있으려면 프란시스 신부의 도착을 기다려야만 했다.

사비에르는 1552년 2월에 고아에 도착했다. 그는 거기에 두달만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났다. 그러나 이 두 달동안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제는 그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는 관구장이었으므로 안토니오 신부의 직무를 해제할 수 있었고, 동시에 폴투갈에서 온 신참에게 지난번에 겪은 체험을 되풀이 하기가 두려워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안토니오를 해변 위쪽 멀리, 디우로 보냈다. 프란시스는 어떠한 간청도, 총독 자신의 간청조차도 듣지 않았다. 아직도 그는 새로 임명된 멜키올 누네즈 신부를 취임하게 하지 않으려 했다. 사실인즉, 그들이 만났을 때 프란시스 신부가 그에게 물었다. “학장의 직분에 맞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소?” 멜키올 신부는 대답했다. “신학을 6년하고 철학을 3년 했습니다.” “6년 경험이 있어야 하겠군.” 그것이 사비에르의 대꾸였다. 그래서 그가 경험을 얻도록 바세인에 보내버렸다.

그 대신에, 이전에 그가 주저하게 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스파르 신부를 임명했다. 그의 손에 그는 전권을 맡겼다. 비밀리에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 다음 해에 배가 폴투갈로 출항할 때, 안토니오는 해직되어 그 배로 귀국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해의 성목요일에 프란시스는 다시 출항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는 말라카에서 정중한 대우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는 페레이라라는 친구에게 대사 임명장을 주고는 중국의 “왕”에게 동행하려 했다. 그런데 더 많은 문제가 시작되었다. 말라카 총독은 페레이가 가게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프란시스와도 맞섰으며, 그 휘하의 많은 이들이 그가 하는 대로 따랐다. 프란시스는 또 하나의 마음의 상처를 갖고 항해를 떠나갔다. 두 명의 하인이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은 중국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인도인이었다. “내 평생 이같은 박해는 이교도인이나 회교도인들에게서도 결코 받아 본 적이 없다.”가 폴투갈 영지에서의 마지막 체류에 대하여 그가 요약한 말이다. 그리고 가스파르 신부에게 보낸 작별 편지에서 그는, “가스파르 장상, 자네는 내가 여기 말라카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상상할 수 없을걸세.”라고 썼다.

하지만 그것조차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말라카를 7 월에 떠나서, 11 월에는 상찬의 언덕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를 데려다준 배는 사전에 한 마디 말도없이 살짝 빠져나가 버렸다. 항구에는 폴투갈의 외딴 범선 한 척만 정박해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렸다. 사비에르는 사방이 뚫린 임시 피난처에 누워 있었는데, 차디 찬 북풍이 무자비하게 그에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동반자이자 간호사로는 하나는 중국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도인인 두 명의 소년 뿐이었다. 그가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내내 항구에 정박한 배에 탄 유럽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대부분 그러했듯이 죽도록 방치된 채, 또다시 도달하지 못하도록 운명지워져 있는 목표가 눈에 보이는 데서,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서 말하며, 그렇게 그는 죽었다.

그런데 고아에서는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편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유럽으로 돌아 오라는 지시였다. 그의 어린 시절 야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대학교수로서 실패했고, 수도사나 은수자로서 실패했으며, 이태리에서 설교사로서 실패했고, 법정 변론가로서 실패했으며, 결국 결코 알지 못했던 수확을 막 거둬들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아니, 동방의 사도, 프란시스 사비에르 성인은 전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성공했다라면 그의 스승이신, 갈보리의 실패자를 닮는데 실패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승리보다 더 큰, 바로 그 실패야말로 그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함이다. 그 모든 실패를 통하여 그는 결코, 단 한 번도, 움추려 들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송환되기를 간청했을지언정, 소환에 응하기를 망서리지 않았다. 그는 보다 나은 지원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그의 뜻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다. 그는 모든 실패를 통해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를 보았다. 그러나 자기가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전력을 다하여 아낌없이 내어 놓으려고 애썼다. 사비에르는 실패했던 것 때문이라기 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위대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이 선택하신 종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이들 중 하나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다른 면이다. 성공의 위대함 보다 더 큰 위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의 위대함이다. 그것은 격려 받지 않는 인간의 위대함이며 희생의 위대함이기 때문이며, 덜 위대한 자들이 그 과실을 딸 것이다.

그가 사랑한 성 바오로 대학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아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이 교회 몇개만 서있는 황량한 마을을 보게 될 것이다. 종려 나무들이 장터에서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때 엄중한 종교 재판 의식이 거행되었다. 만약에 방문객이 성 바오로 대학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면, 그곳은 길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폐허는 가볼만한 가치가 없다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가보겠다고 한다면, 마을 북관에서 바다쪽으로 일 마일 남짓 안내되어, 옆으로 종려 나무가 있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서 왼쪽으로 아치형의 출입구가 뚫린 하나의 벽만 서 있는 걸 보고서는, 어떻게 받쳐지지도 않고 하나만 아직도 서있는지 거의 의아해 할 것이다. 그것은 대학 옛 교회의 정면이다. 나머지 부분의 기초들은 엉클어진 덩굴 밑으로 숨겨져 있다. 만약에 조금 더 멀리 가서, 도로를 에워싼 벽을 기어 오른다면, 자신이 비슷한 덩굴이 뒤덮인 폐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쪽 올라가면, 나무들 가운데에, 사비에르가 일에서 벗어나 한 번에 한 달 동안 숨어 있곤 하던 정원 안에 있는 작은 성당이 아직도 서있고, 왼쪽으로는 사랑의 절정에서 심장이 터지려고 했을 때에 식혀주던 우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학 건물은 사라졌으나 대학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 성인이 죽고 몇 년인가 지나서 대학이 있던 곳은 말라리아가 건잡을 수 없이 번져서, 학생들과 직원들이 거기를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내륙으로, 더 개방된 지방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는 라출에 고아의 훌륭한 신학교가 그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이룩한 모든 업적들 중에서, 그의 마음에 가장히 소중히 여겼으며, 그밖의 모든 것보다 더한 희생을 치렀으며, 존속해 있는 유일한 것인 이 학교야말로 의미가 없지 아니하다. 그의 정신은 아직도 인도 남부를 내리덮고 있다. 다른 어디에서 보다는 거기에서는 가톨릭 신앙이 더욱 번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직도, 여기에서조차, 단 한 곳에라도 어디에 그가 활동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것이 박해와 침입으로 쓸려 가버렸다. 없어지지 않은 것도 나중에 온 선교사들의 업적과 뒤섞여 버렸다. 라출에만, 분명히 그가 심었고, 심장의 피로 물주었던 나무가 아직도 살아서 분명히 그가 바랬던 열매를 맺고있다.

죄수

십자가의 성 요한
(1542-1593)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전 생애가 적절히 기록된 적이 없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인데, 그의 모국에서조차 그러한 것 같다. 게다가, 그가 쓴 신비적인 저술로 해서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는데도 그의 저작에 대한 전체적인 평론집이 나온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 사실은 대충 살펴보아도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동료였던 성녀 테레사의 생애와 저작이 대단히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언어로 많은 전기물이 출판되었으며, 성녀의 저작은 여러번 되풀이 해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을 듯하다. 성녀 테레사의 생애도 많은 모순으로 둘러싸였지만, 그래도 그녀의 생애조차 그점에서는 십자가의 성요한의 생애에는 뒤진다. 전기 작가의 일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그 모순이 대부분 선하고 열광적인 사람들로 부터 제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을 옹호하려면, 작가는 다른 경우라면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나쁘게 말해야 한다. 그가 쓴 글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도달할 높은 경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고행의 정신이 아직도 글 모두를 관통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열망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이에 따르도록 요구하여 이들을 절망하게 한다. 우리는 그가 가리키는 이상을 인정하나, 그것이 이상일 뿐 그보다 더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한다. 성 요한의 독자들은 “가르멜의 산길”과 “영혼의 어두운 밤”은 읽지않고 넘어가고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을 읽으며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전후 관계와 분리하여 검토한다면, 즉, 작가의 인생과 인격과는 별개로, 그리고 글들이 씌어진 상황과 별개로 연구한다면, 성 요한이 가르친 초연함이란 때로는 완강하고 엄격한 것 같다는

사실을 고백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는 동안에,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는가?”라고 거의 절규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쓴 글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어서, 작가의 견해와 그가 가르친 교리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 다르게 이해하게 한다. 그건 성 요한의 작품이 상당한 정도로 자서전적이기 때문이다. 그 글들은 삶의 기록으로서, 그가 감당한 모든 곤경과, 그로써 배워야 했던 교훈을 적은 것이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 맞이하는 좋은 일로써 스스로 기뻐하며 평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이번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시련을 겪던 시기에 쓴 시들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수 밖에 없었다.

그의 작품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작가 자신과 그의 체험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의 글은 영적으로 포기하도록 훈계한다기 보다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이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요한 데 예빠스는 1542년에 툴레도의 폰티베로스에 살던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귀족 태생이었는데, 지체가 훨씬 떨어지는 여자와 결혼을 했으므로 가족과 완전히 절연당했다. 그는 비단 직조를 생계 수단으로 택했으나, 그걸로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었다. 그는 아내와 세 아이들을 부양하려고 애쓰다가 기진하여 요한이 태어난 직후에 죽었다. 남겨진 가족은 지독히도 가난했다. 아이들은 늘 영양 실조인 상태로 자랐기에, 죽을 때까지 그는 체격이 왜소했다. 성녀 테레사가 어디선가 그를 두고 “반도막짜리”라고 재치있게 농담을 했다.

요한은 처음에 가족이 살던 메디나의 빈민층 학교에 다녔다. 그때는 장사를 배우려 했지만, 분명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열네 살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으므로 메디나 병원의 조수 자리를 구했다. 동시에 예수회 신부들이 운영하던 학교 수업에 출석하려고 궁리를 해냈다.

여기에서 그 소년의 천재성이 드러났다. 그는 타고난 예술가로서 어떤 종류의 예술이던 마음에 들었다. 음악을 제일 좋아했는데, 성악과 기악은 물론, 그가 나중에 이름 붙인, 숲과 물, 그리고

별들이 연주하는 “침묵의 음악”도 좋아했다. 그는 조각을 좋아했고, 회화와 도안도 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시에 빠져서, 시에서 영혼을 표현하는 수단을 찾아냈다. 그밖의 모든 것 중에서도, 요한 데 예삐스는 타고난 시인으로서, 시인의 상상력과, 시인의 야망과, 시인의 불안정과 불만, 시인의 특별한 기쁨,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필요로 하는 리듬과 운율을 찾는 능력, 이 모두를 지녔다. 최근에 시와 신비주의 간의 관계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 되고 있다. 요한 예삐스에게서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시가 신비주의 관점에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것은 아마도 레이먼 라울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신비주의자에게서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머지않아 요한은 메디나에 있는 카르멜 수도회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그가 살라만카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고등 교육을 받도록 회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그 당시는 그 대학교의 전성기였다. 특히 그 당시는 젊은 카스티야 출신 시인들이 새로 등장하여, 갖가지 기교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요한은 곧 이들 중에 속하게 되었다. 그가 나중에 쓴 시에서 볼 수 있는 신비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비유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이러한 표현을 풀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의 영혼의 노래에 나오는 몇개의 시는 살라만카 시절에 쓰여진 듯하다. 영혼의 노래는 성인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당시에 쓴 사랑의 시인데 이렇게 시작된다.

젊은 양치기 홀로 마음 아프네,
그의 마음 즐거울 수 없네,
마음은 온통 양치는 처녀 생각뿐,
사랑에 빠져 있음이로세.

사랑의 깊은 상처,
심장을 두 갈래로 찢었으나,
우는 건 상처때문이 아니네,
제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네,
잊혀졌기에 눈물 짓는 거라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으나, 만족하지는 않았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진전을 이루면 이를수록, 앞에 더많은 것을 보고 더욱더 그것을 열망하였으니, 이는 성 요한의 성격이다. 그는 카르멜 수도회원이 되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는 시인처럼 끝까지 주어야하고, 가진 것 모두를 내놓아야 했다. 그는 학생이 되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원점에서 홀로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카르투지오회 수사가 되어야 했다.

살라만카 생활이 끝날 무렵에 그의 마음 상태가 이러해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던 참에 테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인생 행로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의 나이는 그보다 거의 서른 살이 더 많았다. 그녀도 오래전부터 마음 속 궁전의 환희를 얻고자 고독과, 침묵과, 속세를 초월하는 것 등의 교훈을 터득해 왔었다. 그녀는 요한의 인간성과 그의 꿈에 대하여 들었기에, 그를 만나서 만족스러웠다.

요한도 자신이 가진 열망을 그녀도 갖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들은 하느님만 모시고, 하느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느끼고, 그분만 사랑하고자 했다. 그들은 천천히 죽으며, 속세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를 그분 안에서만 잃어버릴지도 모를 삶 자체를 버리고자 했다.

그 앞에 있는 목표가 확실해지자마자,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이 허약하고 왜소한 남자는 성녀 테레사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한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는 신앙의 형제들을 비웃게 한 방식으로 살아야 했다. 고생에 익숙한 농부들조차도 것처럼 살았으며, 그들이 던져주는 빵조각을 고맙게 좇아먹던 기묘한 놈에게는 그저 비웃어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화가, 시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등의 기질과 고귀한 인품도 그들 만큼이나 두려워 했고 비웃기도 했다. 첫걸음을 내딛었으므로, 그는 승리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다가왔다. 그들이 조롱을 해도 그가 단념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관여해야만 했다. 그들의 동료 수도사가 분별을 잃었고, 조직을 불명예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교황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교황 자신보다 더 가톨릭에 충실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과장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 분은 결코 그들을 이상적인 인물들이라고 과시하지도 않았다. 추종자들이 요한 주위에 몰려들자, 관계 당국은 분개했다. 그는 바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이니 활동을 금지시키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제

처지가 어떤지 가르쳐야 했다. 나라 전체가 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의 생명은 필요하다면 단축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졌고, 가슴은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고, 사람들 모두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모르더라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요한은 그 모두와 싸워 나아가야 했다. 그는 서른 다섯 살이었다. 젊은 시절은 지나가고 성인으로서 원숙해지고 있었다. 예수가 넘은 여인이 그에게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게 포기하며, 비웃음과 불신을 받는 가운데 성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투쟁 없이는 계속 나아 갈 수 없었다. 조롱을 받고도 그가 멈추지 않았으므로, 무력을 쓸 의지를 가져야 했다. 1577년 12월 초의 어느날 밤, 요한은 성녀 테레사의 수도원에서 체포되어 본원으로 끌려가 투옥되었다. 거기서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질 당하고, 물 한 모금 없이 더러운 음식을 먹고는, 보안을 이유로 톨레도로 남몰래 끌려갔다. 여기서 그는 아홉 달 동안 억류되었는데, 좁고, 어둡고, 환기가 되지않는, 벽에 뚫린 구멍보다 나은 것이 없는 곳에서, 빵껍질과 생선 찌꺼기를 먹고, 매주 금요일마다 참회를 하도록 식당으로 끌려나와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난 어깨에 매질을 당하고서야 끝내도록 하였다. 요한의 몸에 난 이 매자국들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도회 선배들은 그를 못살게 굴고, 성사를 받지 못하게 했다. 감방 밖에서는, 테레사의 개혁안이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교황 자신도 이에 반대한다고 공포했고,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 받을 것이라는 헛소문이 나돌고, 그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다. 요한도 이 모두를 들었지만 자기가 들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도 전에 품었던 꿈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며, 굴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절규가 가슴 속 깊은 데서 터져나왔다.

그는 홀로 기도에 자신을 맡기고, 모든 박해가 꿈을 이루어지게 할 뿐임을 믿고서, 기도의 내용을 시로 표현했다. 그 결과 그가 지은 영혼의 노래는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만들었고, 어두운 밤이라는 시는 시인과 신비가들의 반열에서 그를 앞자리에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렇게 살면서, 시를 썼는데, 거기에는 고난받은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때 꿈꾸었고, 지금

깨닫게 된 새로운 이상의 빛에 대하여 썼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이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온갖 쓰라림을 맛보았는데, 그것은 감미로움으로 바뀌었다. 어려움은 안락으로 바뀌고, 혐오는 즐거움으로 바뀌고, 박해는 위로가 되었으며, 노고는 휴식이 되었고, 가장 야비하고 비천한 것들이 그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 주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사실을 가르칠 때에는 이미 알고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쳤다. 경직된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는 그가 쓴 어두운 밤의 의미이자, 사람들에게 어둠에 용감히 맞서도록 하는 그의 격려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가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그 열매를 보았듯이,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어둠 뿐만아니라 영혼의 어둠속으로도 다른 사람들도 인도하고자 했다. 다시 그의 글을 읽으며 우리는 그가 자신의 경험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된다. 맹목적인 믿음만이 이끄는 캄캄한 절망, 괴로워하는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기억의 상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벌이는 논쟁의 무미 건조함, 쓰라림,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혐오감, 의지를 꺾도록 유혹하는 것 등에 대한 경험으로. 그는 그 모든 일을 겪고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잘 것 없이 만드는 그러한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어둠이 영광스러운 햇빛으로 인도하는지 적지않게 알고 있었다. 아니면 그 자체가 어둠이라기 보다는 햇빛이어서, 그 옆에 있는 세상의 빛이 희미해진다. 어둠은 참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발견이며, 시인과 선각자만이 적절히 말해줄 수 있는 진리이며, 그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말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배울 만한 것은 무엇이든 배우고, 소유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소유하되,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허무감에 휩싸여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이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얻어라. 모든 아름다움, 모든 빛, 모든 본질적인 것, 모든 사랑을. 문틈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지하여 기록한 요한의 어두운 아홉 달에 관한 글을 읽으면, 비록 떨어져서이지만, 우리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도 성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이제 기쁨에 찬 영혼이 형성되는 다른 국면이 전개된다. 아홉 달이 지나서 그가 탈출할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를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잡지 말아야 할까? 어둠속에 머문다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에 대하여 아직도 더 많이 배우게 될지 모르나, 기회가 있을 때 떠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놀라운 발견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시간은 있었다. 피골이 상접했지만, 그의 내부에는 아직도 생기와 열정이 있었다.

어느날 밤, 준비를 갖춘 후에, 아마도 한 명이상의 동정심 많은 간수의 목인 아래, 그는 복도를 빠져나가서, 침대로 만든 밧줄을 타고 창밖으로 내려가서는 이웃에 사는 성당 참사 위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는 요한을 맞아들여서 보호해 주었다.

2년이상이 지나, 데레사의 개혁이 승리했음이 확실해졌다. 왕은 그녀 편이었고, 교황도 그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1580년에 성녀 데레사의 맨발 수도회를 그들 자신의 독립 관구로 인정한다는 교황 교서가 발표되었다. 그 당시의 관구장이었던 그녀는 2년 이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모두 끝나지는 않았다. 반대로 새로운 시련이 전개되었는데, 이번에는 도망갈 길조차 없는 또 다른 싸움이었다. 그는 두 가지의 힘든 싸움을 거쳤는데, 첫째는 외부인들과 싸웠고, 다음에는 자기 수도회원들과 싸웠다. 마지막으로 굴복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자신의 동지들이자, 데레사의 추종자들이 그를 거부한 것이었다. 데레사는 죽었다. 요한은 데레사에게서 받은 서한을 단지 시인으로서 소중히 간직했다.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오자 그는 사랑의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그 편지들을 파기했다. 줄 것이 아직도 더 있다면, 내어줄 준비가 되어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제의는 수락되었다.

이제 두 가지 주장이 맞서서 이제껏 이루어 놓은 좋은 성과를 망치려 위협하고 있었는데, 한 동안 팽창 주의가 우세하였다. 반대파도 있었는데, 더 많이 내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완강하고 확고한 신념을 지닌 요한에게 맹렬한 공격이 집중되었다. 그에게 반대하는 인간의 분별과 인간의 실용주의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번에 이 주장은 그가 가장 총애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 데레사를 어머니라고 주장하던 수도사들과 수녀들도 동조하였다.

5년동안 그는 거의 혼자서 싸웠다. 창설자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그는 자기가 즐기는 고독을 희생했다.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원으로 다니며, 설교하고, 글을 쓰고,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데레사와 자신이 지닌 꿈의 진실을 증거했다. 그가 툴레도에서 쓴 밤의노래는 이제 다시 출판이 되어 자세히 해석되고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세상에 마지막 작품을 내놓았는데, 이는 신비적 삶을 산 인간의 가장 심오한 계시록이다.

그런데도 그는 실패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오늘날까지도 카르멜 수도회가 그가 저지른 실패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데레사의 바램과는 반대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어서 교황 식스투스 5세의 재가를 받고는 즉시 소동이 벌어졌다. 그 당시에 요한은 그라나다에서 쫓겨나 세고비아의 수도원장 직을 맡았다.

고난을 받은 정도와 결과, 두 가지 점에서 볼 때, 툴레도의 밤에 상응하며 이를 완성한 것이 되는 세고비아의 밤이 이제 시작되었다. 툴레도에서 그는 본성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배웠고, 세고비아에서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툴레도에서 본성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놓는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 일어섰던 것처럼, 세고비아에서는 더 위대한 이상, 하느님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소멸시키는 영광을 위해 일어섰다. 우리는 멀리서 그를 따를 수 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시인이자 성인이 지닌 이상—우리가 얻을 수는 없을 지라도 그 자신의 손에는 닿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는 말자, 우리 손에 닿을 수 없기에, 그의 가르침은 어렵다, 그리고 누가 그걸 들을 것인가? “마음이 사로잡힌 영혼은 부드러운 영혼이고, 온화한 영혼이며, 겸손하고 잘 참는 영혼이다.” 요한은 그의 경구에서 이와 같이 썼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엄격한 이상 모두와 더불어, 그는 그러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시련이 그중 가장 끔찍했다고 미리 짐작할 지도 모른다. 지극히 순수한 사랑을 지닌 이 영혼은 이상한 불길 안에서 시험되어야만 했다. 로마가 개입하여 분열된 수도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나, 중재를 받은 관구장은 자신을 앞질렀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었고,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요한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퍼뜨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는 사악한 인간이라는 소문이었는데, 여러 손을 거쳐서 상세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고발 이유는 비열하기 짝이 없었고, 대단히 집요해서, 요한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무엇이든 밝히려는 요구를 받게되었다. 교회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고, 몇 명의 수녀가 증언을 하도록 소환되었다. 그들은 그의 면전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대답을 거부했는데, 그들이 침묵을 지킨 것이 그에게 반대한다는 증거로 인정되었다.

관구장은 그에게 평화를 위해서 직무를 중단하고 은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요구받은 대로, 은퇴하여 페뉴엘라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한 듯했다. 그의 은둔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의 반대파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오랜 친구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의 사악한 생활과 위선을 질책하는 편지를 그에게 보냈다.

이후로는 요한에게 좋은 일이라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부활도 사순도 없었다. 극소수의 사람만 그를 신뢰했고, 그의 동료 수사들 대부분이 그를 피해야 할 사람이고 만나게 되더라도 분별있게 대해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수도회의 평판을 위해서 그가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런데,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홀로 있는 사이에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일주일 이상이나 고열로 시달리다가 그는 어느 카르멜 수도회로 기어서 찾아가 좀 쉬게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그에게 바에자와 우베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을 택하라고 했다. 바에자는 그가 설립한 곳들 중 하나였는데, 아직도 그곳에서는 그를 좋게 기억하고 있었다. 우베다에는 수도원장 외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반대파로 선언되었었다.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그를 악명높은 가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요한은 우베다를 택했다.

예기했던 대로, 그는 나쁜 대우를 받았다. 그가 수도원을 말도록 그에게 떠맡겼었다. 그들은 그에게 건물 구석의 외딴 구석방을 주고 내버려 두었다. 병세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묻지도 않았다. 평 수도사 몇 명이 그를 동정했다. 그러자 수도원장은 화가나서 누구든지 다시는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때때로 그는 요한을 방문했으나, 묵은 불만을 들어 그를 비웃어주고, 이제는 자신이 복수할 수 있다고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병세가 악화되었다. 응급조치를 위해서 의사를 불러왔는데, 그는 전에 가엾은 사람을 빼가드려나도록 벤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마침내(1591년 12월 13일), 그를

보러 잠깐 들린 간병인에게, “오늘 밤 자정에 천국에서 만과 끝 기도를 바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시 변화가 일어났다. 수도사들이 침대 주위에 모여들었고, 수도원장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다. 시계가 열두 시를 치자, 그는 눈을 뜨고,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외치고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쉰 살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글들을 읽어보면, 먼저, 그 글에 엄청난 자기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다음에는, 고통만으로, 무엇보다도 불명예와 치욕으로 인한 고통에서 얻어진 교훈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게 된다.

오늘날 성녀 테레사의 시신은 썩지않고 보존되어 있어서 누구나 보고 경의를 표할 수 있다. 성 요한의 시신으로 말하면, 아무도 그 시신이 어디에 누워있는지 모른다. 그 시신이 매장된 장소도 잊혀졌다. 우리가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얼마나 깊이 새겨졌던지를 살펴 본다면, 왜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아마 알게되고 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노름꾼

가밀로 데 렐리스
(1550-1664)

가밀로 데 렐리스의 어머니는 선량하기는 했으나 소심했는데, 아버지는 정 반대였던 것 같다. 그들 둘 다 존경할 만 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들이 기품있는 가족 출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아버지는 군인의 아들이었는데, 오래 전에 가족의 명예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린 건달이 되어버렸다. 그는 평생 군인이었는데, 차라리 모험가에 가까웠다. 그는 보수를 지급하면 누구를 위해서든지 싸우던 그 당시에 흔했던 방식으로 여러 군주의 군대에서 복무했는데, 실제로는 1527년에 로마를 약탈한 제국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는 그 당시 군인의 온갖 악덕을 지닌 것으로 이목을 끌었던 듯하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한량이자 끈질긴 노름꾼이었다. 그가 거의 집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내에게 준 가장 큰 위안이었다.

가밀로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걱정거리였을 뿐이었다. 그는 어려서 죽지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아이였는데, 태어나기 전에 낱 꿈조차 흉조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전의 아기들에게 발생한 나쁜 일도 있었기에 사내 아이를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처음부터 가밀로는 아버지를 빼닮은 것만 같았다. 아이일 적에 그는 호리호리하고,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기 흉하게 키가 크고, 외모는 결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었고, 성품은 게으르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걸 싫어했다. 그는 기질이 난폭했고 고집이 세었지만, 어머니가 그를 두려워했고,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에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가 죽었을 때에 그는 겨우 열두 살이었다. 난폭한 남편과 일찌기 그녀에게

무관심하게 된, 제멋대로 구는 아들로 해서, 너무나 힘겨웠던 삶을 마치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가 죽은 다음에 얼마동안 친척들이 가밀로를 돌보았으나, 그들은 그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의 성격은 동정 받을 만하지 않아서, 그는 마음껏 떠돌았다. 학교에 가게되었지만 몹시 학교를 싫어했다. 배워야했는데도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모험만 꿈꾸어서 자라면서 달아나 아버지와 함께하기만 바랬다. 학교 밖에서는 같이 놀 친구도 없었는데, 아주 일찍부터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

단 한가지 좋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제멋대로였는데도 그는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깊이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이다. 그는 거의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를 믿었고, 영성체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성체를 믿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이 그를 많은 위기에서 구해주었으며 끝내는 그의 구원이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해방의 날이 왔다. 키가 매우 컸고, 일찌기 다 자란 성인인 척 허풍을 떨어왔기에,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걸로 쉽사리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의 나이 열일곱 살을 겨우 넘기자 책장을 닫고 아버지가 있는 외인 부대에 군인으로 입대했다. 거기서 그는 제 멋대로 살게 되었다.

나이 열아홉이 되기 전에 그는 못된 젊은이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서 마음껏 써먹었다. 특히,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그는 전문적인 노름꾼이 되었다. 그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노름판의 주역이 되었다. 사실상 그들은 노름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 당시에는 어디든 전쟁이 벌어져서, 운 좋은 군인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돈이 떨어지거나 빈둥거리는 것이 지겨워지면, 가밀로와 아버지는 남자들이 필요한 어느 장군에게나 입대 지원을 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경력이 있었기에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그들은 갖가지 부대에 입대했는데, 때로는 아군과 싸우고, 때로는 적군과도 싸워서, 어느 관리는 그들이 언젠가 터키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걸 보았다고 말한 듯하다. 그들에게 전투는 그저 전투에 불과했을 뿐, 그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급료를 지급받고, 그들이 바라는 거친 생활을 즐기지만 한다면,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식의 생활이 영원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 그 당시의 거친 군인들 중에서도 가밀로와 그의 아버지는 부대 내에서도 큰 소란꾼이어서, 적어도 한 번은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들의 난폭한 기질로 인해 노름이 격해지면 싸움이 벌어졌고, 노름과 싸움은 반항을 낳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길을 떠나,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카드로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었다.

어느날, 터키군과 싸우기 위해 군인을 모집하고 있는 베니스에 있는 부대에 들어 가려고 걸어서 여행을 하던 중에, 그들은 병에 걸렸다. 아버지가 더 심했다. 그래서 가밀로는 아버지를 간호할 곳을 찾는 동안에 자신이 아픈 것은 최대한 참아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너무 늦었다. 그의 아버지의 병은 너무 진행이 되어, 기진맥진한 몸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가밀로에게 단 하나 위로가 된 것은—그가 살아온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소하면서도 지속적인 위로였으므로—죽어가던 침대에서 그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슬픔에 겨워서 마지막 성체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모시고는, 분명히 회개하고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그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처음으로 가밀로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마지막 장면이 그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게 각인된 채로,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가밀로는 반성하기 시작했다. 노름 습관으로 해서 그의 육신과 영혼은 극도로 피폐해 졌다. 죽음이 그의 아버지를 덮쳤듯이, 언제라도 그를 덮칠 수 있었고,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삶의 방식을 고치고 싶었고, 수도원에서 자신을 받아 들이도록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유혹에서 도망쳐서 수도원에 몸을 숨기고 싶었다.

즉시 그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는 아퀴라 어디선가 수도사로 지내고 있다는 삼촌을 생각해 내고는, 삼촌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했다. 걸어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자마자 그는 삼촌을 찾아가서 수도회에 입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의 삼촌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성소란 것처럼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가밀로는 자신의 의지가 굳다는 걸 증명받으려면 더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했다. 게다가, 그 때에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 몸이 기진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목 위의 난 별것 아닌 상처에서 고름이 오래전에 흐르기 시작하여 좀처럼 낫지 않고 있었다. 프란시스코회 수사들은 친절했으나, 가밀로를 청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에, 그는 다시 한 번 떠돌이로 내쳐졌다.

그리고 그는 떠돌았다. 처음에는 기분에 맞는 옛 친구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다시 노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다리에서 질질 흐르는 고름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도 거의 모르는 채, 혼자서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다. 이는 사도가 될 사람이 버려져서 죽어가던 실로 길고도 힘든 시련기였다.

마침내 그는 로마에 다달았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병원이든 들어갈 허락만 받는다면 다리의 상처를 진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지아코모의 병원에, 입원에 필요한 돈이 없으니, 자기가 하인으로 일하고, 그대신 고름이 흐르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의했다. 이 때에, 프란시스코회가 그의 입회를 거부했기에, 그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은 치료가 되면 다시 한 번 군인 생활로 되돌아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병원은 그가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를 임시로 고용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가밀로는 진지했으며, 최선을 다하려 했다. 그전의 환경에서 벗어나니 가밀로의 좋은 면이 드러났다. 그는 달리 잘 맞는 일도 없었기에, 복도 쓸기, 붕대 빨래, 그곳에서 가장 하찮은 일들을 정성껏 열심히 했다. 의사들은 맡은 일을 다하여,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에게 완치되리라는 희망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의 인생에서 마침내 변화가 왔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에게 배당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한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주위에는 빈둥거리는 하인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아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병원에서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노름에 대한 오랜 열병이 다시 도져서 어찌 해볼 수가 없었다. 그는 카드 한 벌을 구해서 동료들에게 노름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곧 하인 숙소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일할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하인들은 서로에게 불만스러워 했고, 말다툼이 더 잦아졌다. 노름하는 버릇이 되살아나자, 가밀로의 나쁜 기질도 되살아 났기 때문이었다. 그의 방을 조사하자,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카드가 증거품으로 발견되었다. 별다른 소동없이 그는 길거리로 쫓겨났는데, 다리는 아직도 낡지 않은 채였고, 호주머니에는 동전 한 닢 없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삶의 방식을 고쳐보려 한 가밀로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그는 의기소침해졌고, 나쁜 습관이 되살아 났는데도 이를 억제할 수 없는 듯했다. 그는 다시 군대로 되돌아 가서 기회를 잡으려 했다.

다음에 그에 관하여 들은 것은 그가 다시 베니스에 있는 부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군대에서 터키군과 맞서 싸웠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아직도 겨우 열아홉 살이었다. 그는 거기서 육지와 해상에서의 전투에 참여하며 2년동안 근속했다. 여기서도 아직 악령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는 하나, 부대내에서는 또다시 골칫거리였다. 자라에서 노름판에서의 언쟁이 결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일이 커진 적이 있었다. 그와 또 다른 병사간에 결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부대의 하사관이 중재를 해서 겨우 중단되었다. 군인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의 상관들이 지켜워져서 마침내 그는 해고되었다.

그러나 해고되었다고 해서 그의 호전적인 기질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베니스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의 군대에 입대했다. 나중에, 1574년에, 그는 파비오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용병 부대에 있었는데, 가밀로가 그 부대에 가장 끌렸던 점은 부대원 모두가 노름에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대에 있으면서, 그는 북 아프리카 등지에서 싸웠다. 마침내, 팔레르모에서 나폴리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배는 폭풍에 매우 흔들려서 그들이 실종된 것으로 포기되었는데, 마침내 짚어진 옷과 전투용 무기만 지닌 채 상륙했다. 그 부대는 해체되어야 했고, 가밀로는 또 다시 집없는 부랑자 신세가 되었다.

그는 곧장 잘 아는 노름 소굴로 갔다. 거기서 그는 가진 것 모두—칼, 총, 화약 통, 군용 외투—를 걸었는데 몽땅 날렸다. 그는 최소한 걸친 셔츠 한 장이라도 남은 걸 고맙게 여겼는데, 같은 곳에서 지난 번에는, 그것조차 날리고는 공개적으로 쫓겨났었던 것이다.

그의 삶은 어느 때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더 나빴던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친구를 만났던 것이다. 이 둘은 일종의 동업 관계를 맺었다.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며 노름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었는데, 몽땅 잃으면 이를 벌충하려고 구걸을 하기도 했다. 가장 나빴던 것은, 일종의 희망없는 좌절감에 빠져있던 가밀로에게 의지라고는 남아 있지 않은 듯했던 것이다. 그는 못된 친구가 가라는 데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였다. 그들은 여행을 하며 세상 구경을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도중에 전투가 벌어져 있으면 그전처럼 다시 입대하려고 했다.

1572년, 카밀로가 스물 네 살일 때에 처한 상황은 이러했다. 바로 그 때에는, 이태리 구석구석을 뒤진다해도, 가밀로 데 렐리스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례를 찾기란 어려웠으리라.

그런데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났다. 두 부랑자는 만프레도니아로 갔다. 어느날 아침, 그들은 다른 부랑자들과 함께, 교회 바깥의 계단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우연히 행인들 중에 부유하고, 자선 사업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걸인들 가운데에 있던 키크고, 군인 같은 젊은이를 눈여겨 보았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 말을 걸고는, 그와 같은 사람이 불구자들과 무력한 인간들 가운데에서 빵을 구걸하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하고는, 그에게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늘 하던대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기는 제대 군인인데 지금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려하지 않는다고.

부자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때에 그는 마을 밖에 수도원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는 가밀로에게 돈을 주지는 않고, 그를 건축 현장에서 쓰라는 지시를 적은 쪽지를 들려 보냈다. 가밀로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으나, 우선 옛 친구에게서 벗어나 동업 관계를 청산해야만 했다.

그의 말을 듣자, 그의 친구는 이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가밀로가 그렇게 빨리 신앙적으로 변화되었느냐고 조롱하고는, 그가 자유를 내던져 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밀로가 간직해오던 생각을 비꼬았으며, 오랜 열망이 되살아났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술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숙달된 노름꾼과 함께 노름을 할 것이며, 그 전처럼 말다툼을 할 것이라 했다. 그는 다시 해고되어, 이전보다 더 궁핍해질 것이라 했다. 게다가, 제의 받은 일자리는 함정일 뿐이며, 감독관 밑에서 그는 어디에서든지 감시를 받으며, 늘 억류 상태에 있을 것이며,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 했다.

그들 둘 다 만프레도니아를 벗어나 어디에서든지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아니한가! 그러면 그들은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실증이 나면 한 번 더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가밀로는 그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다가 거기에 넘어갔다. 사실 그는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다. 또한 지금껏 살아온 자유로운 생활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길을 벗어나 친구와 함께 길을 내려갔다. 전처럼 무턱대고 그를 따라서. 그들은 만프레도니아를 떠나 12 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다음 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노상에서 가밀로에게 위대한 은총이 임했다. 그는 일자리를 제의한 사람의 선의를 느꼈다. 프란시스코회 수도원을 생각하니 오륙년 전에 개심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되살아 났다. 그에게 놓쳐서는 안될 기회가 왔고, 이런 기회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가 평생에 걸쳐 한 가장 엄청난 노력으로, 그는 친구에게서 벗어났다. 친구가 놀랄만큼, 그는 몸을 돌려서 전속력으로 만프레도니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에 수도원 건축 공사장 인부들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아직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밀로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는 예상되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노동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고된 일을 싫어했다. 게다가 자기가 더 나은 일을 하려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지나간 멋진 생활이 떠올랐다. 천박하고 비참했으나 최소한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굶어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좋았던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옛 친구가 그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는 그 부근에 오곤했다. 그는 가밀로에게 얽매어 산다고 비웃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자기의 자유를 자랑하고, 가밀로가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노름을 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했다.

또 다리에 난 상처도 견디기 어려웠다. 노동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상처는 더욱 더 그를 괴롭혔다. 그가 맡은 특별한 일은 그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런데도 가밀로는 열심히 일했다. 숙련공의 일은 그와 거리가 멀었지만, 다른 일자리는 늘 있었다. 그는 양 옆구리에 매단 광주리에 건축용 돌을 실은 당나귀를 끌었다. 그는 서신을 마을에 전하고, 다른 일꾼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 사람들로서는 한 때 좋은 시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누더기를 걸친 이 키 큰 젊은이를 유심히 바라볼 수 밖에 없었으나 그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의 이전 생활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식은 그가 두른 군용 혁대였다. 길거리의 아이들은 이걸 재빨리 알아보고 당나귀꾼이 된 기병을 놀려대었다. 가밀로는 이 하찮은 일들이 짜증스러웠다. 다 참을 수 있어도, 놀림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견디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야망이었고, 과거의 많은 실패에 비추어 보아 성공하려면 어디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노름을 하는 버릇을 억제하려면 스스로를 경계하고 위험을 멀리해야 했다. 헛된 몽상을 하는 버릇을 극복하려면, 늘 일에 몰두해야만 했다. 기질을 억누르려면 자신을 혹사시키는 일에 따라야 했다.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갖가지 유혹을 진정시키려면 일하고 또 일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 후에 과거를 회상하며 그는 당나귀꾼으로 지낸 이 몇달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인정했다.

그 시작은 보잘 것 없었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어떠한 종류의 감동도 없었으며, 어거스틴이나 다른 성인들의 예에서와 같이 갑작스럽고, 엄청난 개종이 보여주는 극적인 절정감도 없었다. 그래도 한 성인의 시작이었다.

가밀로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곧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는 더 많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시작했다. 자신감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생겨났고, 좋은 평판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확실히 알려진 사실로는, 처음에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유일한 야망은 겨울을 그럭저럭 보내고, 몇 가지 성과를 얻어 봄에 인생을 재출발하는 것이었다. 그가 일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조차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갈 의사가 없었고,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수도회의 몇몇 수도자가 그에게 누더기를 수도복으로 갈아 입으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다. 그는 그걸 받아들이면 다른 일, 아마도 수도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느날, 그가 당나귀를 끌고 마을에서 되돌아 오다가, 그동안 참고 견딘 데 대한 보답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지금까지 살아 온 전 생애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성찰했던 것 같다. 오래 전에 한 맹세가 다시 생각났고, 그는 현재의 직업이 그 맹세를 이루도록 주어진 기회가 아닌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생각에 더 깊이 잠겨서, 그는 그렇게 해서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기억해냈다. 그는 한 수도사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더니 그는 가밀로를 격려해 주었다. 그의 격려는 열망을 되살려, 바로 그는 수도원장의 발 아래에서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다.

이리하여 가밀로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입회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그가 수련기를 시작하자마자 발목 위의 상처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받아 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고름이 흐르는 상처가 나으면 바로 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위로가 되었다.

이 약속을 다짐받고 그는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했다. 그는 전에 일을 시작하여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지만, 또다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는 전에 로마로 가서, 지아코모 병원으로 갔었는데, 여기에서 영육간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창피하게 쫓겨났었다. 그는 그전과 같은 조건으로 받아주어,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간청할 것이었다. 거의 일 년 동안이나 그는 노름에서 손을 떼고, 평생 일을 해보지 않은 듯이 열심히 일하게 되어 프란시스코회 수사들은 그를 칭찬했었다. 그는 관계자들이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것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었다. 가밀로는 1575 년, 성년에 로마로 왔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듯했다. 그는 지아코모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가밀로는 죄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 필립보 네리와 그의 능력에 대하여 들었다. 가밀로는 자신을 성 필립보에게 알려지게 해서, 그가 가밀로를 떠 맡았다.

그의 분별있는 지도를 받아서, 가밀로는 착실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병원에서 허드렛 일꾼으로 일하였는데, 4 년이 지나서 보니 다리의 상처가 나아버렸다. 그러자 또다시 그는 카푸치노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성 필립보가 말렸으나 그는 들으려하지 않았다. 카푸치노회에서 그의 다리가 나으면 그를 다시 받아준다고 약속했기에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자마자 문제가 다시 일어났다. 상처가 재발해서 떠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시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라는 단호한 권고를 받았다.

이리하여 수도사가 되려는 가밀로의 야망은 세 번씩이나 좌절되었다. 다음 해에 또다시 아라코엘리의 엄수 수도회에 입회하려했으나 또 거절당했다. 그제서야 그는 모든 희망을 함께 버렸다.

그가 돌아오자 성 필립보 네리는 기꺼이 맞아들이며 말했다, “가밀로, 그대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프란시스코회에서의 일이 있었을 때에 가밀로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는 지아코모에서 지난 오 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수도회 입회에 실패하자, 그는 기꺼이 다시 받아들여졌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하인들의 감독자로 임명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남자들인 간호사들을 감독하는 임무도 포함되었다.

이제 가밀로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에게 새로운 이상을 갖게 한 것이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체험 덕분인지, 아니면 보다 더 나은 길로 가도록 한 성 필립보 네리의 지도 덕분인지 모르지만, 이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인물이 되었다. 많은 유혹을 억누르는데 효과가 있는 끊임없는 노동의 가치를 그는 이미 알게되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몸바치면 바칠수록 더욱 더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입원한 환자들을 단지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아코모처럼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병원에서 조차, 그가 환자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이 받는 진료로 인한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 병실 가운데 서있는데, 사랑에 바탕을 둔 좋은 간호는 지급되는 급료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록 간호의 수준이 나아지며, 만약 사랑으로 간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모을 수 있고, 그들을 돌보아 줄 급료를 맡아 둔다면, 간호의 수준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음 속에 이런 목적을 지닌 채, 그는 병원의 동료 일꾼들 중에서 다섯 명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들은 그의 제의에 공감하고, 가밀로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아, 수입을 모두 공동 관리하고, 가능한 대로 최대한 함께 생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곧 그게 잘 안된다는 걸 알게되었다. 공공 병원에서 직원들의 일부로서 지내면서 나머지 직원들과 분리될 수 없었다. 그들의 의사를 완전하게 관철시키려면 그들 자신의 가정을 가져야만 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가밀로에게 떠올랐다. 그가 지켜보았더니 일꾼들도 환자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뿐만아니라, 사제들도 그런 때가 종종 있었다. 그가 목적 수행을 위해 간호사들을 데리고 있다면, 사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제가 되려고 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먼저 병원에서 사목을 하는 신부를 찾아서 자신에게 여가 시간에 라틴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 방법으로는 별 진전이 없었으므로 나중에 그는 로마 대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여 예수회 신부들에게 배웠다. 그리고 서른 두 살의 나이에 키가 6 피트 이상이고 호리호리한 이 사내는 문법의 기초를 배우는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당연히 소년들은 재미있어 했다. 그들은 가밀로를 “지각생”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그가 공부하는 걸 주와주겠다고 하곤 했다. 가밀로는 꾸준히 공부하여 서른 네 살 된 해인 1584년에 서품을 받아서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제 마침내 사실상 가밀로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지역인 테베레 강 옆에 집을 구하고는 거기에서 병든 이들이 보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그들을 돌보기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해 둘 만하는데, 그것은 성 필립보 네리가 영적으로 돌보려고 맡은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수를 한 유일한 경우라고 말해진다. 가밀로가 지아코모의 병원 일을 잘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 필립보는 다행스러워 했다. 가밀로가 있던 곳을 떠나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구역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적지 않게 걱정했다. 가밀로의 과거와 그의 노름 버릇을 생각하고는, 그의 새로운 환경은 오랜 유혹을 되살릴 뿐이라고 걱정했다. 게다가 성 필립보는, 가밀로의 새 출발은 회개의 길을 추구하고자 프란시스코 수도회에 입회했다가 허사로 끝난 것으로 이미 드러난 그의 불안하고 고칠 수 없는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가밀로를 엄하게 야단쳤다. 지아코모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지 말고 평온하게 지내라고 충고하고, 만약에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가밀로는 자기 계획을 고수했다. 그는 자기의 참 소명을 찾아내었다는 걸 알았기에 의지를 꺾지 않으려 했다. 그가 성 필립보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지만, 그때부터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필립보 네리와 가밀로 데 텔리스는 절교했다. 이는 지극히 관대하고, 지극히 이해심 많은 성인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또 한 가지 사례이다.

보잘 것 없이 시작했으나 크게 성장한 놀라운 수도회, 선종 수도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의도는 아니다. 오히려 가밀로 자신의 뜻이 어떻게 꾸준히 커져 갔는지, 그리고 새로운 계시에 그가 어떻게 주저없이 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처음에 그는 병원 간호사들의 조직을 구성할 생각을 가졌으나, 곧 병원 안의 환자들보다는 병원 밖의 환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바로 그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특별한 목적으로 삼았다.

다음에, 전염병이 돌 때에, 거의 모두가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운명에 맡겨져서 죽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와 추종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빈민 지역을 방문하기로 굳게 서약했으며, 이 서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의 많은 추종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죽음이 확실해지면, 많은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은 운명에 맡겨져서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밀로가 죽어가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돕는 것을 대단히 특별한 활동 목적으로 삼았기에 이러한 일의 특성만으로 그의 수도회는 결국 선종 수도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의 활동은 확대되었고,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해서 그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라도 그는 돕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가밀로는 회피하지 않았다. 1590년, 그 도시가 굶주림과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게다가 겨울치고도 날씨가 지독히도 매서웠던 어느 때에, 가밀로는 뜰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옷을 받은 두 사람이, 손에 옷을 놓자마자 바로, 옷을 걸고 노름을 했거나 팔아치웠거나 하고는 그들이 한 짓을 가밀로가 보지 못하도록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가밀로가 더 빨랐다. 그의 옛날 체험으로 그는 그들이 왜 달아나는지 알아 채었고 그들을 동정했다. 그는 그들을 쫓아가서 잡았다. 그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옷을 주었다. 당연히 그의 동료들은 항의했다. 그들은 가밀로가 그 불량배들이 한 짓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그들이 팔자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러나 가밀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형제들이여, 왜 그대들은 이 불쌍한 인간들의 누더기만 보는가? 그리고 누더기 안쪽에 있는 불쌍한 인간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성 그레고리오의 누더기를 걸친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네.”

이는 많은 사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사랑을 베풀 모든 위대한 사도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지극한 관용을 베풀 이야기가 것처럼 많이 전해지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우리는 그에게 두 가지 큰 빛을 지고 있기에 가밀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해야 할 까닭이 있다.

첫째로는 그는 현대의 간호 정신을 확립했다고 일컬어지고 있고, 둘째로는 적십자사의 창립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덕분이다. 그가 설립한 수도회가 공식적으로 교황의 승인을 받아, 가밀로는 수도회원들이 다른 수도사들과 구별되도록 그들의 카숙(성직자의 검정색 긴옷)과 망토 위에 붉은 십자가를 걸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했다. 1586년 6월 26일 사목 교서에 의거하여, 그 청원은 허락되었고, 3일 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에, 가밀로와 몇 명의 추종자는 붉은 십자가를 걸치고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가서 그들 자신과 사업을 영원히 하느님에게 봉헌하였다.

하지만 가밀로의 자선은 병자와 임종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뻗었다. 그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그는 어린 시절에 겪은 비참한 생활을 더 생생하게 기억해 내는 듯했다. 그의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것을 종종 거부하면, 그 자신이 예전에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어려웠었다고 대답하고는 그전처럼 밀고 나가곤 했다. 여행을 할 때에는, 그는 언제나 지갑을 도중에 걸인들에게 줄 동전으로 채웠다. 때로는 같은 목적으로 빵을 채운 자루를 안장에 묶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본받곤 했다. 길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게 하고는 그가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소용이 될 돈을 남겨두곤 했다.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과, 아무튼 자신보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습관은 그와 함께 여행하는 이들을 적지 않게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가밀로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베풀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바닥이 나도 가능한 대로 빨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두나, 의복 등을 충당하여 보내주곤 했다. 자신의 집이 가난해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한번은 꿈꿈한 어떤 신부가 공동체에도

충분치 않았던 빵을 정문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금지했더니, 가밀로가 그의 지시를 철회하게 했다.

그는, “당신이 이 빵을 찌뿌리고 수확했소?”하고 물었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에게 잘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에게 해주실 것이요.”

그리고 또 다시, 그의 제자들이 그가 무모하게 베푸는 듯하는 것을 걱정하자,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집쟁이들이여 하느님을 신뢰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의 빵을 생명의 강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을 불멸의 대양에서 보게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제의하자, 그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좋은 것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땅속이라도 파고 들어가야 한다.”

사실상, 누군가가 가밀로의 자선을 그와 동급의 어떤 위인의 행위와 구별한다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려고 늘상 그들을 땅속까지라도 찾아 다녔다.” 로마의 빈민가나 계도를 가밀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터키인이든, 그에게는 모두 똑같았다. 그는 감옥을 자주 방문해서 비참한 죄수들을 씻겨주고 면도시켜주고 했으며, 동료들에게도 그리 하도록 시켰다. 그는 사형수들을 특별히 돌보았다. 그가 찾아내지 못한 가난한 이들이라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곤궁한 처지에 있는 과부들이나 아이들을 알고 있는지 묻곤 했다. 그가 그러한 과부들과 아이들을 찾아내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배달되어온 돈과 의복 꾸러미를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짐승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여야만 한다. 그는 언젠가 분명히 양치기가 잇은, 갓 태어난 새끼 양이 도랑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서 새끼 양을 집어서 외투로 감싸고는 가까운 양우리로 데려가 돌보아 줄 사람에게 주었다. 또 다른 때에, 어찌다 다리가 부러진 개를 보았다. 그는 그 개를 돌보아 주고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다가 거기를 떠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개를 돌보아 주라고 부탁했다. 그는 말하기를, “나도 다리가 안

좋다네, 그래서 걸을 수 없다는게 비참하다는 걸 알지. 개란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충직한 짐승이기도 하지. 내가 만일 개가 주인에게 충직한 만큼 주님께 헤드린다면, 난 아주 잘 하고 있는 걸세.”

우리가 이러한 사례와 이야기를 읽으면 가밀로의 거룩함의 비밀을 보는 것 같다. 즉, 인간에 대한 동정, 강건함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사랑 등의 깊이인데, 이는 젊은 시절의 방황과 훗날의 영웅적 행위의 동기이기도 하다. 모든 위대함에는 좋던 나쁘던, 어느 정도 결과를 무시하는 면이 있다. 말하자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다. 가밀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면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택하도록 했고, 나중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그는 깨달았던 같다.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 자기 소유가 아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까지는 그는 자주 시도하고 또 실패하였으나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실수를 하였다. 여러해동안 그는 끝나는 데를 모르고, 걱정도 하지 않으며 그가 가야할 길을 암중 모색하였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분명히 그의 의지력은 나날이 강해졌다. 스물 세 살일 때에 동료 부랑자에게 저항할 의지가 없었는데, 서른 살일 때는 성 필립보 네리에 맞설만한 신념을 지닐 수 있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지력을 가진 다음에 가밀로가 성숙해진 나머지 이야기는 비교적 설명하기 쉽다. 그는 직업이 군인이었기에, 그에게 삶에서 놀랄만한 것이라고는 없었으며,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알아서 헤쳐나갔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처지가 아무리 비천해지더라도 인간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그는 더 나은 상황에 관한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그보다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하는 희미한 열망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자신의 체험으로 가장 비참한 인간도 비난 받기보다는 동정 받아야 하며, 가능하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고통스러운 10년 동안 그의 영혼을 불태운 이러한 인식과, 이제 행동으로 전개된 의지로, 가밀로에게 내재했던 위대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성인의 염려스러운 경고도, 수도회 장상의 만류도, 그가 하고 있던 선행에 만족하라고 한 교구 사제들의

간청도, 사제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했던 그 자신의 교육의 부족도, 끝까지 분명히 드러났던 그의 천성적으로 열정적인 성품도.

다른 성인들처럼, 그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그들처럼, 그가 준 빵은 그의 손 안에서 여러배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성인들보다 더 한 사례로, 그가 흐르게 한 물줄기는 수도회라는 범위 내에 한정되지는 않고, 독을 넘쳐 흘러서 물질적으로 우리 문명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하느님의 은총은 부랑자이자 군인인 가밀로 데 텔리스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와같이 역사하셨다. 그는 자신의 조직을 설립하여 그의 나이 서른 여섯 살 되던 해인, 1586년에 승인을 받았다. 그 조직은 1591년에 수도회로 승격되었고 가밀로는 초대 총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607년까지 그 직분을 맡고 있다가 동료 수도사들과 교회 당국을 설득하여 사임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에서 보잘 것 없는 직책을 맡아서 7년을 더 살았는데, 이는 성인들의 생애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이며, 어떤 면에서 판단하건데, 이 기간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아니었다.

1613년에 그와 그의 동료 수도사들에게 그가 별로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의 요청에 따라 거룩한 도시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를 로마로 데려왔다. 하지만 죽음을 위한 준비는 그 다왔다. 그가 힘들게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그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게 할 수 없었다. 그가 더 이상 외출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병자들을 계속해서 방문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의연금을 보내어 도와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동료 수도사에게 자선을 계속해 달라는 수많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임종시에 방문한 가르멜회의 총회장에게, "내 무릎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으며, 노름꾼이었고,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이니까요."

그의 마음은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자비가 있는 방향으로 갔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지치지 않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듯했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왔다. 그는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뻗고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1614년 7월 14일 저녁이었다.

바보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
(1603-1663)

가진 것 없이 삶이 시작된 보잘 것 없는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바로 쿠페르티노의 요셉이었다. 그에게는 단 한가지 다행스러운 자질이 있었으니—자신이 그런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영리했건만, 그는 모든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아이로 쉽사리 인정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애교 있고 매력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받는데도, 요셉은 늘 자신을 바보라고 인정해서 결코 특별한 대접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녔으나,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멍하니 있었고, 뭐든 서툴렀고, 신경이 예민했다. 갑자기 교회 종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도 바닥에 학습 교재를 떨어뜨리곤 했다.

방과후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그들처럼 이야기하려 했으나 매번 대화에 실패하곤 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끝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문장의 중간에서 멈추곤 했다. 또 그를 동정해서 다정하게 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귀찮은 존재였다.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는 나쁜 운명으로 낙인 찍힌 듯했다. 직업이 목수였던 그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었으나, 돈을 다루는데 서툴러서 조금이라도 벌면 바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 듯했다. 그의 아들이 세상에 나온 바로 그때에 그의 집은 집달리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재산은 팔려 버렸다. 요셉은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몸을 숨겼던 집 뒤의 헛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인생이 시작되었기에 요셉의 앞날은 지극히 어두웠다. 어린 아이일 때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약했기에 몸골이 끔찍했다. 그는 병이란 병은 다 걸리는 것 같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적도 많아서, 사실을 말하면, 죽었더라면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 때문에 지치기는 했어도 나름대로 착하기는 했으나, 천성이 냉정한데다가, 환경으로 인해 더 냉혹해졌다. 요셉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 무자비하게 벌을 주었다. 그가 일곱 살 조금 지나서 좀처럼 낫지 않은 진행성 궤양에 걸리자, 그녀는 그를 더 괴롭히고, 아이가 자란다해도 아마 가족에게는 짐이 될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를 원하지 않다. 요셉은 그 사실을 일찌기 알아채고 받아들였다. 그는 스스로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다.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 멍하니 있다가 식사를 잊기도 했다. 그 사실을 깨우쳐 주면 대답은 단지, “잊었어.”였다.

그는 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구둣방의 견습생으로 들어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요셉은 너무나 산만하여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정상적으로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결코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배울 수 없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했고 주인은 그를 너그럽게 대해서 뭔가 일거리를 주었다.

마침내, 목적없이 살던 어느 날, 요셉이 벌써 열 일곱 살이 되었을 때에, 구걸을 하러 탁발 수도사가 그의 마을에 왔다. 바로 요셉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아무 것이든 배울 능력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이 생각 때문에 그리 괴로와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탁발 수도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빵을 구걸할 수는 있었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는 머리가 필요 없었다. 그리고 그 생활 자체는, 그 자신의 이상으로서, 이상하게 매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아저씨 두 분이 수도회에 있었기에, 그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그는 집을 떠나서 도전할 허락을 쉽사리 얻었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 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렇다할 공부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그밖에 다른 이유도 쉽사리 많이 댈 수 있었다. 한 수도회에 지원했으나 문은 그에게 바로 닫혔다. 다른 수도회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침내, 어떤 공동체에서 견습 수사로 시험삼아 두겠다고 동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지만, 동료 수사들은 그가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할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대단히 우둔하고 가르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경건함과 방심사이에서 오락가락해서 아주 견딜 수 없게 했다.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벌떡 일어서서는 몽땅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었다. 주위의 상황을 잊고서, 가장 엉뚱한 곳으로 무릎으로 기어 내려가기도 했다. 식기 세척실에서 그릇을 씻거나, 식당으로 음식을 가져 가다가, 갑자기 방심하여,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나게 하기도 했다. 그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개의 표지로, 창피를 주려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뒤풀이 하지 않게 깨우쳐 주려고 깨어진 접시 조각을 수도복에 달고 다니게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갈색 빵과 흰 빵을 구분 하는 걸 잊기 때문에, 빵을 내어 가게 하는 일도 맡길 수가 없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요셉이 수도원에 머무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수도복을 회수당하고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가 나중에 밝힌 것처럼, 그날은 생애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그에게 문을 닫으려고 작정은 한 것 같았다. 수도복을 빼앗을 때는 마치 피부를 뜯어내는 것 같았다고 그는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로써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바깥 길에서 망연자실해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보았더니 평복 몇가지가 없었다. 모자가 없었고, 신발이나 양말도 없었고, 외투는 좀먹고 찢어져 있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좁은 길 아래쪽의 마굿간을 지날 때 개 몇마리가 달려 들어서 그나마 남아 있던 누더기를 찢어서 더 지독한 녀마 쪼가리로 만들어 버렸다.

개들에게서 벗어나서 가엾은 요셉은 터벅터벅 걸으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했다.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들 옆을 지나쳤는데, 그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다. 질문을 받고도

대꾸를 하지 않자 그들은 때리려고 하다가, 다행히도 동정해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서 다른 어려움에 부닥칠 뿐이었다.

그가 길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가자마자 말을 탄 귀족을 만났다. 그는 요셉이 이 동네에 아무 불일이 없는 의심스러운 부랑자로 생각하고 경찰에 넘겨주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나서 찬찬히 살펴보니 그가 너무 멍청해서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가게 내버려 두기로 했다.

마침내, 찢기고, 얻어맞고, 굶주린 채로, 요셉은 아저씨 한 분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갔다. 그는 거기서 돈을 잘 벌었는데, 장사가 잘되는 작은 가게를 하나 갖고 있었다. 요셉은 그에게서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지도 모를 어떤 위로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몹시 낙담했다. 요셉과 같은 조카는 아무리 잘 봐 주려고 해도 돈을 잘 버는 아저씨에게는 늘 환영받지 못하는 법인데, 누더기와 다름 없는 것을 걸치고 불쑥 나타나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셉의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낫지도 않았고, 더 못하지도 않았다. 앞에 서서 깨끗한 가게 바닥을 더럽히고, 맨발로, 누더기를 걸치고는 자신과 집을 부끄럽게 하는 가련한 젊은이를 보고는, 그는 바로 이런 놈을 조카로 둔게 좀 창피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이 놈은 애비의 헤픈 기질을 물려받았어. 좋은 일이란 바랄 수 없지. 벌써 방랑을 하며 망가졌어. 도와줘 봐야 더 나빠질 뿐이지. 게다가 요셉의 아버지는 그에게 빚을 졌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에게 뭔가를 해줄 꺼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제의하는 대신에, 요셉의 아저씨는 형편이 나쁨을 비난하고, 이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 틀림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진 빚에 대하여 악담을 퍼붓고는. 너 같은 아들은 빚을 늘리기만 할 뿐이라고 했다. 마침내는 동전 한 닢 주지 않고 그를 길 바닥으로 밀어내 쫓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가야만 했다. 아무도 요셉을 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고향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오두막으로 갔다. 아버지는 아직도 곤궁했고, 요셉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 부모들이 자기라는 존재를 얼마나 지겨워했는지 기억해내고는 두려움으로 떨며 문으로 다가갔다. 아직도 그는 모험을 해야 했다. 피난처로 기대하고 있는 곳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므로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문을 열고 들여다 보았더니, 어머니는 안에서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지친데다가 발이 아팠고,

굶주리고 시장했기에, 더 이상 서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어머니의 발아래에 쓰러졌다. 그녀를 쳐다보는 반짝이는 그의 눈은 많은 것을 표현했으나,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에 더 이상의 일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뭐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지금 돌아와서 짐이 될 뿐이지 않는가? 게다가 더 망신스러운 것이, 수도원에서 쫓겨나지 않았는가? 이웃에서는 이런 아들을 두었다고 뭐라고 말하고 비웃을 것인가. 쫓겨난 수도사, 아무 것도 못하는 놈, 천한 부랑자 같으니라고. 그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걸 보란 말야.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발아래에 눕자 그녀는 그에게 대들었다.

“수도원에서 쫓겨났지,”라고 그녀는 울부짖었다. “넌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어. 넌 쓸모가 없어. 여기에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나가 버려. 감옥에 가든, 바다로 가든, 아무데나 가버려. 여기에 머무른다면 굶어죽는 수밖에 별 수 없어.”

그러나 그녀는 말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프란시스코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있는 형제가 있었다. 몹시 화가나서 그를 찾아가 수도회에서 아들을 내쫓아서 자기가 다시 떠맡게 한 처사에 대하여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무슨 일을 시키던 아들을 다시 받아 달라고 간청했다. 아들을 안 보고 산다면, 수도회에게 그를 어떻게 취급하던 상관없었다.

그러나 재입회에 대한 프란시스코회의 입장은 완강했다. 요셉은 전에 시험을 거쳐서 적격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수도회 생활을 시켜보았지만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 3 수도회원이 되게하여 어디에서든 하인으로 부리는 것이었다. 그는 마굿간에서 일하게 되었다. 거기에서라면 손해를 끼치지 않는 못할 것이었다. 이리하여 요셉은 수도회의 노새 지기가 되었다.

그리고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사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의 하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요셉은 일을 맡았다. 그는 한 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무엇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바랬었다고 다짐했다. 무슨 일을 하던, 자기에게 맡겨진 일자리를 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나은 대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주는대로 옷과 음식을 받아 입고 먹었다. 마굿간의 널빤지 위에서 잤는데, 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다. 게다가, 둔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둔했기 때문이겠지만, 요셉은 천성적으로 명랑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햇빛이 그에게 희미하게 비치는 순간에 바로 기분이 좋아져서 웃곤했다. 고난이란 다만 그에게 힘든 것이며 예상되는 것일 뿐이었다. 더 나은 때가 오면, 그는 전혀 바라지 않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위로를 받은 사람처럼 즐겼다.

점차로 이러한 사실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수도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굿간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언제나 거기에서 분명히 주인처럼 행복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보잘 것 없이 생각하는지, 얼마나 기꺼이 일하는지 알 수 있었다. 구걸하는 탁발 수도사가 아니었는데도, 때때로 한가한 때에는 자진해서 그들을 위해 구걸을 하러 나갔다. 그의 속편한 마음은 전염성이 있었다. 다정한 말씨는 사람들에게 그를 신뢰하도록 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얼마나 환영받는지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들이야말로 이 괴짜의 내면의 성품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보았던 것이다. 그는 결국 프란시스코회 수도사가 될지도 몰랐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회 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그에 관한 안건이 긍정적인 검토를 위해 지역 평의회에 상정되었다. 별 염려없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수도회 입회를 허락받았으나,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까? 서품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그의 장상들은 그에게 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력해도 가망이 없어 보였다. 마음 가짐은 대단했으나 읽기를 배우기가 지극히 어려웠다. 그리고, 전기 작가의 말에 의하면, 쓰기는 더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결코 주일 복음을 교수들의 마음에 들만큼 해석할 수 없었다. 그가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한 귀절은 단 하나 있었다. 그 귀절은 언제나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책에 나오지 않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루카 복음(11.27)에 나오는 귀절,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복됩니다."였다. 그런데도 그는 서품되는데 성공했다. 그의 성공담은 은총의 신비들 중의 하나이며, 지난 세기에 성 요한 비안네에 이르기까지, 다른 성인들의 삶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이 사실로써 인간이 어떠한 규정을 만들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제직을 그분 스스로의 뜻대로 택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그 당시에 차부제직 같은 하급 성직은 쉽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부제직과 사제직은 주교 앞에서 치르는 특별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형식적이기는 했으나,

성공할 희망도 없이 요셉은 운명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교는 신약 성경의 아무데나 펼쳤다. 그의 눈은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는 복됩니다."라는 귀절에 머무르고는 요셉에게 그것을 풀이하라고 했다. 놀랍게도, 요셉이 말하기를 시작해서는 결코 마치려고 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좋아하는 주제에 열중한 신학자인 것 같았다. 그에게 부제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일 년 후 사제품 심사를 받아야 했고, 요셉은 또 다시 호된 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심사를 받았다. 후보자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심사를 받았는데, 그들의 답변은 평균보다 월등했다. 마침내 주교는 들어서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워서, 심사를 단축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질문없이 합격시켰다. 요셉은 질문없이 심사에 통과된 운 좋은 후보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때에 그는 스물 다섯 살이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 말고도, 그때까지, 그의 우둔함과 기이한 행동 아래에서 드러나지 않는 요셉의 놀라운 단순성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성품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많았다. 몇 사람만이 그가 하느님의 미구에 빠져 있을 때에 명한 상태가 되는 신비를 알아차렸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시험에, 특히 실용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시험에 들었다. 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들로부터 많은 책망을 감내해야 했다. 매우 자주 그는 동료 수사들을 위해 구걸에 나서서는 자루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곤 했는데, 신발이나, 장식 띠나, 목주나, 때로는 수도복의 일부를 잃어버리기가 예사였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 그의 친구들이 기념으로 그런 것들을 가졌는데, 그는 없어졌는지조차 전혀 몰랐다. 수도원에서는 그에게 매일같이 새 옷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오 신부님, 그러면 저를 다시는 내보내지 마소서. 절대로 내보내지 마소서. 제 골방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소서. 저는 어찌 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진실로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서품받았다고 해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살아가면서 몹시 고통을 받았으나, 언제나 자신이 그럴만하다고 이해했다. 마을로 구걸하러 가면, 가난한 이들은 그에게 특이한 존경심과 우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들이 자기를 동류로 보거나, 사실은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동정심으로 자기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사제였으나, 누구나 그가 어떻게 서품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는 점잔을 뽀수가 없었다. 반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사제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요셉은 전에 살았던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접시를 닦았다. 복도와 합숙소도 쓸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장 더러운 일을 찾아나섰다. 수도원에서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 그는 돌과 모르타르를 날랐다. 누군가가 그런 일은 사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만류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것 말고 바보 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보 수사가 골방에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를 때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어떤 성인도 평생 겪지 못한 놀라운 체험이 시작되었다. 그 일은 기도 중에 처음으로 일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요셉이 멍한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몸이 약해서만은 아니라, 대부분 하느님과 주위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사 덕분으로서, 그 모든 놀라운 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 수도자이자 사제가 되니, 환시는 더 확실해졌다. 그에게는 자신이 존재하는 물질적 피조물보다 당신 창조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뵈는 것이 더 쉬운 듯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너무 생생하고, 마음을 사로잡아서, 종일 탈혼 상태에 빠져있곤 했는데, 장상의 명령이 있어야만 현실 세계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이런 일은 어디서든 갑자기 일어났다. 마치 우주 바깥에서 하느님의 눈이 그를 바라보시거나, 하느님의 손이 자연의 표면에서 만물을 정리하며 작용하시는 것 같았다. 요셉은 환시에 사로잡힌 그대로, 동상처럼 고정되어, 돌처럼 무감각하게, 꼼짝하지않고 서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동료 수사들은 감각을 되찾게 하려고 핀으로 찌르거나 타다 남은 장작을 갖다 대어 보아도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는, 그는 이러한 현상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다시는 불을 갖다대지 말라고 간청했다. 한 번은 어떤 고위 성직자가 불일이 있어 왔다가 그를 보게되었는데, 그의 손이 온통 상처로 뒤덮인 것에 주목했다. 요셉은 상처를 감출 수 없었고, 진실을 숨길 수도 없었지만 바로 설명을 하였다.

“신부님, 제에게 어지러움증이 찾아왔을 때에 동료들이 한 짓을 보소서. 그들은 제 손을 태우고, 제 손가락을 찢었나이다. 이게 그들이 한 짓이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매우 자주 그러했듯이, 웃었다. 그러나 그건 눈물을 감추려한 웃음이 아니었다 생각한다.

그리고는 또 다른 어지러움증이 찾아왔다. 탈혼 상태에 있는 동안에 요셉은 바닥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떠다녔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곤 했다. 그는 제대쪽이나 그 위쪽으로, 또는 특별한 축일에 감실로 날아 갔다. 식당에서 식사중에 음식 접시를 든 채로 갑자기 바닥에서 떠올라서 식탁에 함께 앉은 동료 수사들을 매우 놀라게 하기도 했다. 구걸하러 마을로 나가서는, 갑자기 나무 위로 날아 올라가기도 했다. 한번은 일꾼들이 커다란 돌 십자가를 구멍에 끼워넣어 고정시키려 할 때에, 요셉이 그들 위로 떠올라 십자가를 구멍에 끼워넣었다. 공중 부양을 일으키는데는 사소한 일로도 충분했다. 창조주와 그 피조물이나, 하늘이나 길가의 나무들을 찬미하면, 요셉은 날아갔다.

이에 더하여 자연과, 새와, 들판의 짐승들을 다루는 능력을 얻었는데, 그 능력은 그의 수호자인 아씨의 성 프란시스를 능가했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이 능력을 재미있게 사용했다. 수도회에서 멀지않은 곳에 수녀원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따금 거기로 자선을 청하러 갔다.

어느날, 수녀들이 그에게 잘해주자, 그는 웃으며 그들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새를 한 마리 보내서 노래하는 동안에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에 성무 일과를 마치러 갔더니, 참새 한 마리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다. 그들이 노래 부르는 내내 참새도 노래했다. 그런데 그 일은 매일 같이 일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참새가 마치 수녀들 중 한 사람인 것처럼 규칙적으로 거기로 왔다. 그러나 어느날 어떤 수녀가 참새를 지나치다가 손가락으로 찔렀다. 참새는 바로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에 요셉이 수녀원에 왔을 때에, 수녀들이 참새가 가버렸다고 말했으나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참새가 가버렸지요, 그렇지요, 참새는 수녀님들한테 모욕을 받으러 오지 않았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참새를 달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참새는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전처럼 성무 일과를 함께 바쳤다.

그러나 이로써 참새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참새는 친해져서 수녀들은 참새에게 장난을 칠 수도 있었다. 어떤 수녀가 참새 다리에 작은 방울을 달았다. 성 목요일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참새는 그날에 나타나지 않더니, 성주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다. 성토요일에 요셉이 부활 헌금을 받으러 가자. 그들은 참새가 가버렸다고 말했다.

“당연하지요. 나는 참새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라고 보냈지요. 여러분을 참새에게 종치기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요. 성주간에는 종을 치지 않지요. 하지만 참새는 돌아 올겁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참새는 돌아와서 요셉이 이웃에 있는 동안에는 떠나지 않았다.

하느님이 사랑하신 이 종의 생애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들어 보기로 하자. 요셉은 부근에 있는 양치기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는 늘 편안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에 수도원 모퉁이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와 다른 기도를 바쳤다.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서, 그 모임의 인원수는 많았다.

어느 토요일 요셉이 어느 때와 같이 거기에 갔더니,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추수철이어서 양치기들과 마을 사람들은 초원에 나가면서 그날은 올 수 없다고 얘기해 두는 걸 잊었던 것이다. 요셉은 그 까닭을 모르고 하느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을 탓했다. 그러면서 멀리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더니 양들은 들판에 있었는데 양치기는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 몇 명만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요셉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느님의 양떼여, 나에게 오라. 와서 천주의 모친께 영광드리자. 그분은 너희들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바로 주위의 양떼가 모두 올려다 보았다. 양떼는 목장을 떠나서, 울타리와 개천을 뛰어넘어서 질서있게 대형을 이루어서 성당 문 주위로 모였다. 모두 모이자, 요셉은 무릎을 꿇고 시작했다:

“기리에 엘레이손.”(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애.”, 하고 양떼가 대답했다.

“그리스테 엘레이손.”(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애.”

“산타 마리아.”(성모 마리아님)

“매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리고는 요셉은 서서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양떼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목장으로 되돌아 갔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요셉에 대하여 동료 수사들간에 오고간 많은 이야기들 중 몇가지이다. 이밖에도 많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기적이 많다. 눈먼 사람에게 손을 대었더니 보게 되었고, 병든 아이를 들어 올렸더니 나왔고, 그가 쓴 성 프란시스코의 감사 기도문 종이가 마을 을 돌아다니며 기적이 일어났다는가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일이지만, 동료 수사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일은 믿을 수가 없고, 불가능하고,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요셉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성인이기에는 너무 흠이 많고, 모든 종류의 덕성이 부족하고, 공동체에서 대체로 골치 덩어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기꾼이고, 불화를 일으키는 자이고, 시종일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일들은 주교 총대리에게 보고되었다. 총대리는 보고 내용을 믿었기에, 요셉은 재판을 받도록 나폴리의 심문관들 앞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다. 심문관들은 그를 조사하고, 심문을 마쳤으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으므로 석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더 조사를 받도록 그를 로마의 수도회 총회장에게 보냈다. 총회장이 처음에 그를 만날 때는 전혀 호감을 갖지 않았다. 총회장은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다가, 요셉의 사례 말고도 골치 아픈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도원장들이 심하게 대하여도 말문이 막혀서 그저 복종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로 이 복종이 도움이 되었다. 총회장은 그가 겸손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비방하는 모든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총회장 자신이 그를 교황에게 데려갔다. 아마도 예상된 일이었겠지만 교황 앞에서 요셉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이 일어나 창피를 당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는 남은 생애에서 요셉은 새로운 시험에 들게되었다. 이는 수난의 시작이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설명된 바 없었다. 아마도 심문관들이 신기한 능력과 특이한 성격을 지닌 그가 자유롭게 나다니게 허락하는 것이 안전한지 의문을 가졌을런지 모른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열광적인 추종자들은 그걸 실제 이상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기이한 행동을 비방했으며, 그를 경건한 분위기에서 확고하게, 안전한 장소에 억류해야만 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페루지아의 심문관들은 단호한 명령을 받았다. 그를 소속 수도원에서 즉시 내보내어 카푸친 수도회의 수도원장에게 데려가, 산중에 억류시켜, 아주 엄격하게 격리시키라는 것이었다. 그가 그 판결을 듣자 요셉은 얼마동안 부들부들 떨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물었다. 그러나 곧바로 원기를 회복하였다. 무릎을 꿇고 심문관의 발에 입맞추고나서 마차에 오르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평소처럼 미소지었다.

수도회에 도착하고서, 요셉은 지극히 엄격한 대우를 받았다. 주위의 수도회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파문을 각오하여야 했다. 편지를 쓰거나 받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수도원 구내를 벗어날 수 없었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은 차단되었다. 왜 이모든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고, 결코 묻지도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왜 자신이 속한 끈벵뚜알(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카푸친회로 이송되었는지 의아해 했다.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겨질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어디에 격리되어 있는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를 공경하게 된 사람들이 그의 미사에 참여하는 특별한 허락을 받으러 그곳에 왔다.

그는 또 다른 은신처로 보내져서, 또 다시 이전과 같은 규제를 받았다. 여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는 또 다시 이송되었다.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10년 동안은 사실상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아서,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여 끈질기게 찾아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격리되었다.

그가 억류되어 있던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다. 그는 골방에 갇혀있는데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알았다. 그가 정원에 있는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수사들은 그가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보곤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러 와서는, 말하기 전에 그가 그들의 생각을 읽고있어서 놀라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이상으로 알고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그가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와서는 동료 수사들에게 지난 밤에 교황이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또 어느 때에는 우르바노 8세와 이노첸트 10세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세상을 떠나기 6년전인 1657년에, 요셉은 자신이 소속된 꼰벤뚜알에 격리되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감되어, 거기에서 다시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 규제는 마찬가지로였고, 감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했다. 그는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작은 골방에 묵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별도로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사실상, 다른 어떤 것도 거의 할 수가 없었다.

그가 격리되기 전 여러해 동안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허락하기란 불가능했다.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탈혼 상태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식사로 따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마지막 거처에서 그는 혼자 내버려졌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칠 수 없었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우둔한 사람인 그는 거의 끊임없이 아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영에 둘러싸여서 살았다.

그러나 마침내 풀려날 때가 다가왔다. 1657년에, 요셉은 마지막 억류 장소로 이송되었는데, 그는 그곳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를 더 예고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첫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임박했다. 1663년 8월 10일에, 그는 간헐적으로 고열에 시달렸다. 열이 오르내리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 미사를 드리러 일어났다. 마지막 날은 승천 축일이었는데, 시성 기록에 따르면, 그날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탈혼 상태에 빠지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침대로 돌아가도록 강요되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거르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상태가 악화되어 중부 성사를 집행했다. 성사를 받고 그는 한 가지 청을 하였는데, 자신의 시신을 외딴 곳에 있는 모퉁이에 묻어주고, 어디에 묻혔는지 잊혀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성 바오로가 한 말을 계속해서 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Cupio dissolve et esse Christo.) 침대 곁에 있던 누군가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는 외쳤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오, 한 번 더 말시오!” 그는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이다!” 오래 전에 짓던 웃음이 그의 얼굴에 되돌아 온 듯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 1663년 9월 18일이었다. 그의 나이 60세였다.

내적 순교자

복자 클로드 드 라 콜롬비에르
(1641-1682)

복자 클로드 드 라 콜롬비에르에 대한 시복은 영국 가톨릭 신자들, 특히 런던의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역주: 1992년 5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됨) 성 제임스의 옛 거주지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찰스 2세의 임기말에 그가 여기에 2년동안 살았다는 걸 기억해낼 것이다. 그 당시에 들떠있던 세계에서 이상한 모습을 한 그가 펠멜가 아래쪽이나 성 제임스가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종종 눈에 띄었으리라. 프랑스인인데다가 요크 공 제임스의 아내인 모데나 출신인 메리의 공식 설교사였던 관계로, 그는 관대한 대접과 신분 보호를 받았다. 어려웠던 시기였는데도, 예수 성심 축일을 제정하자는 최초의 공식적인 청원을 런던에서 로마로 한 것은 바로 그의 공로였으므로 그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영국 가톨릭 신자들은 가슴속에 각별하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든다면,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클로드 드 라 콜롬비에르는 순교자가 아니면서 시복된 가장 최근의 영국 거주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들 중 한 사람이며, 우리 순교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경력을 조사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거의 없다. 사실상 어떤 사람은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 자신 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가 성녀 마가렛 메리와 만나게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루르드에서의 발현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베르나데트 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알려지자, 처음에는 그가 지녔을 높은 성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의 동시대인들과 친구들이 그를 훌륭한 수도사 이상으로 여겼다는 기록도 없지만, 있었다해도 조건을 달았던 것 같다. 하느님이 찾아내시지 않으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성인들이 있는데, 콜롬비에르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자신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꿈조차 꾸지 않은 성인들이 있다면, 이 경우에 그보다 더 들어맞는 사람은 그 말고는 사실상 없는 것 같다.

클로드 드 라 콜롬비에르의 가족은 아이가 일곱이 있었는데, 그 중 둘은 어려서 죽고, 나머지 넷은 수도사나 사제직을 받아들였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일곱 살에 예수회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거의 전부는 “재능을 보였다”는 정도인데, 그런 평가를 받은 동급생들은 많이 있었다.

열 일곱 살일 때에, 그는 수련자로서 예수회에 입회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생활을 끔찍하게 싫어했다고 하는데, 수련자들 중에서 그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생도들처럼 수련 과정을 잘 거쳤다. 그가 신학 공부를 하는 동시에 콜베르 재상 아이들의 가정 교사로 지명되었다고 해도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경솔한 행위를 저질러 그 자리도 잃어버리고, 대학으로 되돌아가서 보통보다 조금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맡는 직책을 몇 개 맡았지만, 기꺼이 떠맡을 만큼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는 3년차 수련기를 마쳤다. 그 이후에, 서른 다섯 살일 때에, 파레이 르 모니알의 수도원장으로 파견되었다. 대학교에 다닐 때 그는 수사학을 배웠는데, 설교에 재능을 나타내었다. 그 시기에 몸이 허약해서, 과도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파레이 파견이 결정되었고, 거기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이 자신의 재능을 연마할 수 있었다.

파레이에서의 활동은 꺾은 수도사에게 기대했던 정도로서,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는 담당하고 있던 작은 예수회 학교에 활발하게 관여했다. 남자 신도회를 만들고, 병원 설립을 도왔다. 설교에서는 확실히 보통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를 고백 신부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는 그 전부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파레이에 있는 성모 방문회 수녀들에게는 뛰어난 고백 신부였는데, 그 당시에 수녀원에 있던 마가렛 메리 알라푼 수녀가 걱정꺼리였다. 자연스럽게 데 라 콜롬비에르 신부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사례를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편을 들었다. 아마 처음에는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인물로 주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바로 그라고 성녀가 말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믿을 만한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상 지나서 일기에 기록된 글로 판단하건데, 가장 높은 경지의 성덕을 지향하는 동기로 그는 이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는 파레이 르 모니알에 18 개월밖에 살지 않았다. 그 이후에 런던에 살던, 모데나 공작의 딸이자, 요크 공작 부인의 개인 설교 신부로 지명되었다. 거기서 그는 성 제임스의 옛 저택에서 외롭고 제한적인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그가 쓴 편지로 판단하건데, 그러한 처지의 진지한 사제가 거두리라고 기대한 수확이 없지는 않았다. 그 시기 말에는 개종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프랑스인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이단자들과 내통하였고, 국왕에 대하여 불경스럽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티투스 오츠의 “음모” 사건이 일어난 해였으며, 예수회원이요 요크 공작 저택에 살던 라 콜롬비에르가 아마도 정보원이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투옥되어 수없이 교차 심문을 받았으나 혐의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프랑스인이었으므로, 마침내 그는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건강을 해쳤다. 영국의 혹독한 날씨에 더해서, 감옥에서의 고초로, 폐가 나빠져서 엄청난 각혈로 고생을 하였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그는 프랑스로 돌아왔다. 거기에서 리용 대학교의 영적 지도 신부라는 가벼운 직책을 맡았다. 하지만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그는 좋은 기후로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파레이로 왔다. 그런데 1682년 2월 15일에, 막 마흔 다섯 살이 되어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나, 정확히 보통 생각하는 성인품에 오를만한 인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고, 책도 쓰지 않았으며,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었다. 그는 건가이 나빠서 재능을 발휘할 만큼 열심히 활동할 수가 없었다. 수련기를 마치고 고작 6년 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2년은 런던에서 보냈으며, 거기에서 동료 수사들의 누에 띄지 않은 채로, 알려지지도 않고, 눈에 떨만한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지냈다. 그는 훌륭한 인물을 매장할 때에 보통 거행하는 의식대로 매장되었다. 슬퍼하는 이들 중에는 아마도 또 하나의 훌륭한 삶이 사라져 감을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사후에 그가 남긴 서류 중에서 두 가지 귀중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마가렛 메리 수녀는 늘 그가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사후에 성인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그녀의 타고난 열정일 따름이고, 얼마간 편견이 섞인 판단이며, 그녀의 충실한 지원자이자 옹호자를 추모하여 바치는 헌사 정도로 돌려버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서는 그녀가 옳았음을 입증했다. 지극히 고매한 이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글을 쓸 수 없었다. 그가

사람들이 정한 기준까지 살았더라면, 의심할 나위 없이 그는 영웅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료 수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는,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점차적으로 알게되었다. 그의 이름은 점점 성녀 마가렛 메리의 이름과 분리되어 생각하게 되었고, 성녀의 첫번째 추종자였다는 평가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자신의 삶만으로도 교회 성인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대단한 이상 아래에서, 그 이상의 토대가 된 인간의 참 모습을 추적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콜롬비에르는 두 편의 자아 분석서를 썼는데, 하나는 수련기 세번째 해에 쓴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영국에서 가진 피정 기간 중에 쓴 것이다. 이 글들은 지극히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히 주의를 기울여 상세히 씌여져서 그가 실수를 저지르는 걸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고 제외시킨 내용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그림은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천성적으로 콜롬비에르는 낙심을 하고, 거의 절망으로 이끄는 자기 불신의 기질이 있었는데, 그가 대단히 존경했으며 한때 그의 바로 직전 선임자였던 성 프란시스 드 세일스도 그러했다. 그는 미술과 문학을 감상하는 예리한 감각이 있었는데, 이로해서 평소에 영혼이 대단히 예민해서, 사물을 대단히 날카롭게 느꼈고, 명백한 자신의 잘못 말고도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신앙심을 한 두 차례 표현한다고 해도, 늘 그의 기도는 건조하고 메말랐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그는 영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스스로를 맡기고 그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따름이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외적인 평온은,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현대의 전기 작가들조차, 유혹과, 저항할 모든 은총을 바라는 욕구에 대한 열정의 소용돌이로 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영혼이 숨겨져 있는 내적인 평온함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그가 지닌 덕성의 서너가지 특징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이다. 이들은 그가 맞닥뜨린 싸워 이겨야 할 투쟁과, 자신의 경험과, 그보다는 외부 영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마가렛 메리는 환시를 보고, 탈혼 상태에 이르기도 했으나, 콜롬비에르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신의 완덕에 관한 문제조차 그러했다. 그런데 콜롬비에르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분별해내야 했다.

수련기 3년차에 그는 항상 가장 완전한 일만 하기로 서원했다. 위에서 위대한 은총의 빛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본성과 싸우며 부딪친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서원이 받아들여졌음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후에 그는 또다른 서원을 하였는데, 그에게 선택이 하용된다면 기꺼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덕성을 열심히 추구하기보다는 예민한 본성을 극복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게된다. 전생애에 걸쳐 그의 기도의 지향은, 말하자면, 무지향이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조차 않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보편적인 체험을 인식하고, 그로써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에 불과했다.

결국, 성덕 자체에 관해서 그는 거의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썼다. 그가 성덕을 대단히 갈망했으나 자신으로서는 결코 완벽하게 얻을 수는 없는 덕성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자신에게 정해진 바로 그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없어져 버리게 된것이다. 교회의 달력에 기록된 모든 성인들 중에서 콜롬비에르보다 자신들의 성덕을 덜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다.

성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예로 들려면 그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어떤 귀절들과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일관성이 있다. 장기간 피정의 일곱째 날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일곱째 날 아침에, 내가 미래를 위해 설정한 인생의 목표에 대한 불신감으로 시달렸다. 나는 거기에서 가망없는 어려움을 보았다. 어떤 다른 삶일지라도 나에게서는 성인들 처럼 보내는 것이 쉬워 보였기에, 모든 교제에서 분리되어 금욕적으로, 고립되어, 눈에 띄지 않고 사는 정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인생이란 더 즐거울 것 같다. 나는 투옥이나, 끊임없는 질병이나, 죽음 자체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몹시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속됨과 이기심과 죽음으로 인한 경악스러움에 대항하여 영원히 싸우는 것과 비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는 더 즐거운 일인 것 같다. 내가 그 모두를 깊이 생각하면, 인생이 견딜 수 없이 길어져서 죽음이 그리 빨리

오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이해한다: “참는 자는 살고, 또한 즐겁게 죽는다.”(“Patienter vivit, et delectabiliter moritur.”)

이 글은 1674년에 그가 완덕 서원을 준비하면서 쓴 것이다. 3년 후에 영국에서 피정을 하던 중에, “내 평생 받은 가장 엄청난 은총”이라고 생각하며 이 서원을 기쁜 마음으로 되새겼다. 하지만 다음 글은 이렇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일로 비참해졌다. 나의 생각은 무모하고 터무니 없다. 모든 걱정은 내 마음을 뒤흔든다. 모든 것이 연이어서 나의 감정을 감당하기 어렵게 뒤흔들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다. 때로는 나를 정말로 자극하고, 때로는 전적으로 상상이다. 하느님의 자비로 나에게 그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굴복하는 일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어느 순간이든 나의 이 보잘 것 없는 마음을 뒤흔드는 걱정에 나는 사로 잡힌다. 나의 이기심은 어디든 숨을 곳이 없지는 않은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날아다닌다. 나는 내 자신이 매우 가엾다. 아직도 나의 냉정함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이 분노하지 않도록 한다. 소용이 없는가? 나는 하느님께 그분을 섬기고 나 자신을 정화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기적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평화롭게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자네야말로 경외심을 깨뜨리고 하느님 앞에서 목상을 방해하는구려.”(Quis potest facere mundum de immundo conceptum semine, nisi tu qui solus es.”(욥 15,4)

이와 비슷한 귀절들은 이외에도 몇배나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특질을 갖고 늘 벌어지던 투쟁을 지극히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가 서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곳들이 근접해 있기에 사람들은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게 된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의 기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기도의 매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무미건조함에 대하여 자주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언제나 자신의 기도가 평범한 종류로서, 자신이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674년의 피정 중에 쓴 비망록에서 뽑은 다음 귀절보다 그의 마음 더 인상적으로 요약한 것은 없다:

“하느님의 자비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기도에 이끌림을 느끼므로, 나는 하느님께, 아량을 베푸시어, 복되신 동정녀의 중재로, 이 거룩한 영적 훈련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죽음의 순간까지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와 함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정화를 위한 수단이고,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방법이며, 하느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결합시키기 위한 통로이다. 사도의 덕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덕성을 우리 이웃들에게 활용하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분을 섬기려고 그 덕성을 활용하는 동안에 그것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권고라기보다는 계율이다. 항상 기도하라. 이는 지극히 즐거우며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확실히 익히게 된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에 따르려 노력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이 필요하다. 그러니 언제나 기도할 필요가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더욱더 많이 받는다. 나는 기도중에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기쁨을 청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받을 가치가 없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힘이 없다. 엄청난 은총은 나에게 좋지 않다. 그걸 나에게 주시는 것은 모래위에 쌓으시는 것이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구멍 뚫린 큰 통에 귀중한 액체를 붓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하느님께 확고하고, 단순한 방식의 기도만을 청하는데, 그러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를 부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은총과 함께하는 무미건조함과 황량함은 나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행동을 만족스럽게 한다. 그리고 나의 나쁜 기질에 저항하려 애쓰고, 하느님께 충실하려한다, 등.”

바로 그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으로써, 모든 지각할 수 있는 기쁨의 결핍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바라신다면, 내적인 시험으로써, 끊임없이 나의 정욕과 싸움으로써 성화되기를 포기했다.”

그가 이 방침에서 벗어났거나, 기도의 단순함을 뛰어 넘은 적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 듯하다. 1677년의 피정에서 명상에서는 거의 도움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인 하느님 현존을 익히는 데에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게 전부다. 그러나 그건 기도드리는 많은 영혼들의 체험인데, 그렇지만 그들은 성인됨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예수회 밖은 물론 안에서도 기도문 작가들이 예견하고 각오한 바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이제 그의 성덕의 특성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당연하다. 자신과 끊임없이 싸울 필요가 있어서 그가 영웅적인 첫번째 서원을 하고 또 다른 서원을 했음은 이미 시사된 바 있다. 이 서원을 충실히 이행하여 성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첫째 가는 성격상 특징으로 우리는 콜롬비에르의 어린애 같은 단순성에 주목한다. 끝까지 그는 어린애로 머물렀다. 이는 그가 자신에 대하여 쓰는 방식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이는 그의 서한, 그가 말하는 이야기, 그가 주는 충고의 단순성,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확신 등에서 적지 않게 드러난다. 그러나 거의가 모두 성녀 마가렛 메리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처음부터 그가 성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혼의 단순성이었다. 마찬가지로의 단순성으로 그는 지극한 존경심으로 성녀를 생각하고, 성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성녀가 그에 대하여 이야기 해 준 것을 그는 아마도 최고의 격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내용보다 어떻게 더 어린애처럼 단순할 수 있을까? 그는 이전에 겪은 자만심과 인간적 존경에 대한 유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이전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유혹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유혹은 나의 모든 용기를 꺾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구하겠다는 모든 희망을 거의 잃게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만일 자유로왔다면 좋은 시절을 홀로 보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이어진다:

“이 유혹은 어느날 N.N.[성녀 마가렛 메리를 뜻함]이 나에게 한말로 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녀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영혼이 그분에게 소중함을 이해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 영혼을 특별히 잘 돌보아 주시겠다 하셨다 하기에,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아! N.N., 그 말이 어떻게 내가 마음 속에서 느낀 바와 일치할 수 있단 말시오? 하느님께서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대접받을 궁리만 하고, 인간적 존경에 빠져있는 자를 말시오.’—그녀는 대답하기를, ‘오 신부님, 신부님이 이 모든 허물을 지니신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 한 마디 확신에 찬 말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때부터 이 유혹에 대하여 덜 고통스러워 했고, 유혹은 점차 약해지다가 그리 자주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도 콜롬비에르는 성녀 마가렛 메리의 말에 격려 받고 의지했다. 분명히, 그가 그녀를 주로 지지했다면, 그녀는 그 대가로 그에게 덜 해주지는 않았다. 매우 단순하고, 어린애 같고 의존하는 이들이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콜롬비에르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보이는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불신 자체와 이에 따른 낙심에 빠지는 성격과, 열망하는 만큼 결코 일할 수 없도록 하고, 변함없이 잘못되어 가는 듯한 상황에 처하게 하며, 열정의 범위를 거의 주지 않는 체격 조건과, 마지막으로 위로 받기 보다는 종종 적막한 영적인 체험으로 해서, 그의 내부에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자라난 것은 당연하다. 그는 장상들에 대한 신뢰와, 영적인 아버지들을 솔직하게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단순하게 대하는 것과, 우정을 즐기는 것,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극복과 관용의 외적인 표징으로 더 많이 취급될 뿐이며, 자신을 지탱하는 것으로는 덜 고려되고 있다.

그가 하느님께 대한 신뢰에 대하여 말할 경우에는 아주 다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으나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므로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느님과,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과, 인간의 마음과 주님의 성심이 결합하심을 온전히 순명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구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품안에 맹목적으로 몸을 던진다. 영국에서의 피정 마지막날에 한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쓴 곳은 어디에서든 없었다. 그 귀절은 그의 삶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각 귀절에 최대한 유의하여 행간을 읽기만 하면, 콜롬비에르를 잘 알게 되는 것 같다.

“여덟째 날에 (그는 쓰기를) 나는 엄청난 보화를 찾아낸 것 같다. 그것으로 이득을 얻기만 하면 말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선과,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나의 체험에 바탕을 둔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이다. 그것 보다, 내가 프랑스를 떠날 때에 받은 회고록에서 찾은 글인데, 내가 그분께 드리는 신뢰에 비례해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한한 신뢰를 드리고, 모든 일에 신뢰를 확대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내 온몸을 두르는 갑옷으로 사용하여, 그로써 적의 모든 무기에

대항하도록 해야할 것 같다. 그러면 오 나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저의 힘이 되리이다! 당신은 저의 안내, 저의 지도자, 저의 상담자, 저의 안내, 저의 지식, 저의 정의, 그리고 저의 분별이시이다. 저는 유혹을 받을 때에, 무미건조할 때에, 증오할 때에, 지칠 때에, 두려워 할 때에 당신께 의지하리이다. 아니면 차라리 저는 더이상 환상이나 악마의 계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신의 약함, 저의 무분별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자신을 불신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은 제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분명히 저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제 신뢰에 비례하여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나이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우십니다, 오 저의 하느님이시여,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붙이시니, 신뢰로써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찬미할지어다, 오 저의 지극히 사랑하올 주님이시여!

당신이 저의 힘이 아니시라면 아! 저는 어찌 하오리까? 하지만 당신은 저의 힘이시고, 그렇다고 다짐하시니, 당신 영광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오리까? “저를 강하게 하는 분을 통하여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Omnia possum in eo qui me confortat.”) 당신은 어디서나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어떤 위험에 처해도, 어떤 원수가 저를 공격하여도, 후원자가 저와 항상 함께 있나이다. 이 생각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때로는 너무나도 강하고,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안내심을 두렵게 하고, 하느님께서 기꺼이 나를 놓아 두시는 완전한 공허를 보고 떨리게 하는 본능의 분출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성 어거스틴이 이보다 더 솔직할 수 있겠는가? 구제 받을 수 없는 죄중에 있을지라도 설교에서 그가 아직도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절규할 때, 우리는 그의 무한한 희망의 근원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실로 대단히 인간적이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심의 사도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예언이 클로드 드 라 콜롬비에르의 영혼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인

성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
(1748-1783)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시키지 않은 인생의 조건이란 없다.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의 생애를 조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첫번째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1783년에 로마에서 결인으로 죽었다. 그의 사후 일년 이내에 그가 거룩하다는 평판이 유럽 전체로 퍼졌던 것 같다. 그의 인간됨과 그가 일으켰다는 기적에 대한 소문이 1784년이 지나기 전에 런던 신문에서 논의되었다. 그 해에 고해 신부의 펜을 통해서 그의 생애에 관한 믿을 만한 기록이 처음 발표되었다. 그 필자가 서문에서 명백히 기록한 것과 같이 그에 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돌기 때문에 그 글이 쓰여졌다. 1785년에는 내용이 요약된 번역문이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이 흥미를 끈 장소와 시기—고든 폭동이 일어난지 불과 5년후—를 고려할 때, 이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증언이다.

오늘날 우리는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의 이름이 기독교 세계에 퍼진 속도에 놀란다. 성 베네딕도의 시성에는 시간이 더 걸렸으나, 그에 대한 공경심은 더 빨리 퍼졌다. 그 당시는 혁명적인 문제들이 있던 때였고, 통신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루소와 볼테르는 그보다 5년 먼저 죽었다. 10년 후에는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프랑스 혁명의 대량 학살이 절정에 이른다.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의 생애를 연구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베네딕도는 누구보다도 남달랐다. 그의 남다른 점은 주로 이러한 것이다; 그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았고, 봄으로써 그것과 거리를 두려고 하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만족스러워할 것에도 혐오감을 느끼고 언더리를 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바랬지만, 베네딕도에게는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유행과 인습의 노예가 되었으나, 베네딕도는 그 모든 것에

반발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로와지기를 택하였다. 그는 속박되지 않고, 마음껏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고,—세상은 돌아다니기 좋게 되어있지 않은가?— 어떠한 가식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느님께서 매일 주시는 대로 받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느님께서 주신 그대로 온전하고, 망가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되돌려 드리는 삶을 택했다.

그러나 베네딕도는 성소를 갑자기 찾지는 않았다. 반대로, 그러기 전에 수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먼 길을 갔다.

그는 부르고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열 다섯 아이들 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알아서 돌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러분이 그를 만났더라면, 처음부터 그는 같은 부류의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고 말했으리라. 그의 전기를 쓴 두 사람의 주요 작가가 그린 초상은 우리 앞에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속을 헤아리기 어려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고, 쉽사리 오해받고, 일상에서 벗어나 있고, 참여하기 보다는 방관하는 그러한 젊은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친구가 되고 싶으나 친해질 수는 없고, 늘 명랑했지만(전기 작가들은 이 점을 강조한다), 우울한 기색이 있고,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나, 감히 너무 가까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말이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에게 수수께끼의 인물로 보이지만 본능적으로 공경받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 불신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의 생각해보지도 않고 영혼 깊숙히 그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았다.

베네딕도의 부모는 안락한 생활을 하던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진 큰 야망은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사제가 되는 것이었다. 베네딕도는 조용한 소년이었으므로 곧 그들이 그러한 희망을 건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그를 교육시키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에게는 집에서 좀 떨어져서 교구 사제로 지내는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사제가 되기 위한 초기 교육을 떠맡았다.

여기서 베네딕도는 얼마동안 자리를 잡고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했다. 남다른 성격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행복했다. 라틴어 공부를 지켜위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성경은 좋아했다. 한편으로는 골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묘하게 마음이 이끌렸다. 그들은 마음이 순수했고, 그가 싫어하는 기질이 그리 없었다. 그래서 종종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규칙적으로 호주머니를 비웠다. 게다가, 아주 기묘한 곳을 배회하며, 매우 기묘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아저씨의 교회 안, 성체 앞에서 오랜 명상으로 끝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명상을 하더라도, 베네딕도의 아저씨는 그와 같은 성격과 방랑벽을 가지고 사제가 될 수 있을지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베네딕도 자신은 트라피스트회 수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생활이 독특했고, 이념이 정상적인 기질과는 정반대라서, 자신과는 딱 맞는 듯했다. 아저씨에게 물었더니 이 문제를 그의 부모에게 떠넘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부모는 승락하지 않고 더 나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베네딕도는 열 여섯 살 쯤 되었다.

그는 2년 가량 더 사제인 아저씨와 함께 지냈는데, 아저씨는 계속해서 그에게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아직도 그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베네딕도가 열여덟 살쯤일 때,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아저씨와 조카는 병자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일의 분담은 뚜렷했다. 아저씨가 사제로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는 동안, 베네딕도는 소들을 돌보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는 외양간을 청소하고, 먹이를 주었다. 기록자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베네딕도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저씨의 거처에서 학생으로 지내는 생활을 농장 노동자의 생활과 맞바꾸기를 꺼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더 큰 변화가 임박해 있었다. 전염병의 마지막 희생자들 중에는 아저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베네딕도는 거처를 잃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베네딕도는 좀처럼 걱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진 것 없이 하고자 열망하고 있었고, 이제 하느님께서 거처를 가져 가셨으니 그는 마땅히 가진 것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처음에는 자신이 천성적으로 사람들의 보통 생활 방식에 냉담하므로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그를 만류했었으나, 왜 다시 해보면 안되는가? 그는 이제 더 나이가 들었고, 젊은이가 보통 자신의 성소를 결정할 나이가 되었다. 이번에는 그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베네딕도는 마음을 정하고는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그는 부모를 사랑했다—나중에 이에 대한 증거는 많이 보게 된다. 그와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은 보통 드러낼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그들의 동의 없이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간청했고, 또다시 그들은 거부했다. 그의 어머니가 먼저 거부했고, 나머지 가족들 모두가 함께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들이 절망하며 단념할 때까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는 베네딕도는 기쁜 마음으로 트랩 대 수도원 쪽으로 출발했다.

그는 거기에 도착해서 낙담했을 뿐이었다. 그 수도원은 최근에 받아들인 지원자들의 체력이 엄격한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그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원자를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베네딕도는 그들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 나이는 어렸고, 너무 허약했고, 특별한 추천서도 없었다. 특히, 규정을 만든 직후라서 예외란 없었다. 베네딕도는 거절되어 가족에게 되돌아 갔는데, 그들 모두는 그에게, “그러게 뭐했어.”라고 말했다.

아직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얼마동안 그는 먼 친척인 다른 교구 사제와 함께 지내러 갔다. 공부를 계속하고, 무엇보다도 라틴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떠나려는 열망은 그를 사로 잡았다. 트라피스트회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아마 카르투지오회에서는 받아줄 지도 모른다. 적어도 시도해볼 수는 있다.

한 번 더 그는 부모에게 자기의 바램을 말했지만, 그들은 그전보다 더 심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처음에 실패했으니 분명히 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확실한 미래를 분명치 않은 일에 내던지고 있는지, 어떻게 가장 훌륭한 이들이 모두 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가 받을 특별한 교육으로 어디서든 어떻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었다. 여전히 그가 고집을 부리자, 어느날 부모에게서 적어도 해보기라도 하겠다는 승락을 받아내자, 그는 몽트레유의 카르투지오회에 입회를 청하러 떠났다. 카르투지오 회원들이 늘 그렇듯이, 수도승들은 대단히 친절했다. 그들은 최대한의 호의를 표했으나, 그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성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그런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철학을 일 년 공부한 것으로는 부족했고, 평범한 성가도 전혀 몰랐기에, 입회가 허락될 수 없었다.

베네딕도는 거기를 떠났으나 이번에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카르투지오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른 데서는 받아 줄지도 모른다. 롱퀘네세에 수도회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회원이 필요해서 지원자는 더 쉽게 받아준다고 들었다. 그는 롱퀘네세로 터벅터벅 걸어가 지원하였다. 기쁘게도 수도승들은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오래 가지 않았다. 베네딕도는 그 생활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허사였다. 이상하게도, 그가 갈망했던 바로 그 봉쇄 생활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가 추구한 평화를 주는 대신에, 고독한 생활이 그의 마음을 암담함과 절망으로 채울 뿐이었다. 수도승들은 불안해졌다. 그들은 이 묘한 젊은이의 두뇌가 두려워서 그에게는 성소가 없다고 말하고 수도회에서 나가게 했다.

베네딕도는 다시 집으로 왔으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가 옳다고 그 이전보다 더 굳게 확신하고, 아들이 어리석은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수단 방법을 다 썼다. 친구들과 이웃도 가담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비난하고, 하느님의 명백한 뜻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책망하고, 그가 사교성이 없고,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이며, 같은 부류의 다른 젊은이들 처럼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하든, 베네딕도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자기가 옳으며, 마침내는 자신을 바른 목표로 인도해줄 별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다. 카르투지오회에서 말하기를, 공부하려면 필수적으로 일 년은 걸리는 철학과 평범한 성가에 대해 그가 전혀 모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므로, 그는 자기를 기꺼이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았다. 공부가 매우 싫었지만, 그들이 말한대로 일 년을 참고 견디었다. 그리고는 몽트레유에 한 번 더 지원했다. 나이도 더 먹고, 건강도 더 좋아졌으니, 이제 조건은 갖추어졌다. 그는 그들이 준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의지가 굳음을 증명했다. 많은 수도승들이 머리를 저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 끈질긴 젊은이가 결코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기에,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같았다. 그는 그 생활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것도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규칙에 따라 숙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6 주간의 시험 기간이 지나고, 수도승들은 그가 그들에게 맞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떠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더이상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트라피스트회에 또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봉쇄 수도회에 지원할 것이었다. 아마도 이 수도회에서 저 수도회로 마침내는 평화를 찾을 때까지 참고 견디어야 할 터였다. 어쨌든 더이상 부모나 가족을 성가시게 하거나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몽트레유에서 나온 후, 여행 중에,

그는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이는 그의 성격이 독특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음을 증거한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카르투지오회에서는 제가 그들의 수도회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저는 10월 2일에 거기를 떠났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이제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트랩 대 수도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부모님 뜻에 따르지 않은 모든 행동과, 제가 끼쳐드린 어떠한 걱정에도 대하여도 용서를 청합니다.—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어떠한 금전적 부담을 드리지 않고, 어떠한 걱정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이제 부모님께서서는 저에 대한 근심이 없어지셨음을 다짐해 드립니다. 부모님께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결실을 거둘 것을 다짐합니다.—저를 축복해 주시면, 다시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트랩 대 수도원에서 저를 받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실패한다고 해도, 셋퐁에 있는 수도원은 덜 엄격해서 저같은 지원자도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랩 대 수도원에서 받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희망을 품고 트랩 대 수도원으로 갔으나 또다시 낙담하게 되었다. 훌륭한 수도승들은 그의 지원에 대하여 다시 고려해보는 것조차 거절했다. 하지만 편지에 쓴 것처럼, 그는 셋퐁으로 가서, 허락을 받았다. 세번째로 수도승으로서의 성소가 있는지 시험해 보도록 자리잡은 것이다. 이 시험은 단 8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이전의 어느 곳에서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열망을 가진 이 젊은이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도 온전하게 버릴 수 없음을 알게되었다. 그는 아직도 트라피스트 회원보다 더 가난하기를 열망했고, 아직도 더 굶주리기를 열망했다. 더 버리고자 하는 열망과,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가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몽트레유에서 그랬던 것처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병에 걸려서 두 달동안 장애가 왔다. 다시 한 번 그 공동체는 걱정스러워졌다. 그는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분명한 따름이었다. 그가 길을 떠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자, 그들에게서 트라피스트의 엄격한 생활이 그에게는 너무 힘이 드니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소서.”라고 중얼거리며, 몇장의 추천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는 베네딕도는 수도원 문 밖으로 나와 그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래도 이 몇달동안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참 성소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수도회 생활의 열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않았지만, 일상에서 그러한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수도승이 될 수 없다면, 자기 방식에 따라서 될 것이다. 그가 수도원에서 봉쇄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온 세상이 자신의 수도원일 것이다. 거기서 그는 하느님과 함께 고독하게, 외로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버림 받은 자들 중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로, 불쌍한 존재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것으로, “인간이 아닌 벌레, 치욕스러운 인간, 인간 중에서도 버림 받은 자”로서 살 것이다. 그는 부랑자가 되어, 하느님의 빈자로서 나날이 사람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 먹으며, 여생을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로서 살 것이었다. 이때에 그는 스물 다섯 살이었다.

그는 로마를 첫 목적지로 하여 여행을 떠났다. 긴 외투로 몸을 가리고, 허리에는 끈을 묶고, 가슴에는 십자가를 걸고, 목에는 한 쌍의 큰 목주를 걸고서. 발은 신발 대용품으로 감쌌는데, 물과 돌이 들어 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꼼꼼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런 차림으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끔찍하게 춥거나, 온갖 날씨에 용감하게 대처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주춤거리거나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일 없이 맞서서 견디었다. 어깨에는 온갖 소지품을 담은 자루를 짊어졌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과 기도서였다. 그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 먹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길가에 무언가 먹을 것이 있는지 살폈다. 그는 다음날을 걱정 않았으며, 그날 지낼 것보다 더 많이 얻으면 언제라도 변함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게다가 궁핍한 생활을 하다보니, 베네딕도는 곧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 베네딕도에게서 나는 냄새는 늘 유쾌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 대하여 기록한 고해 신부조차도 베네딕도가 고해를 하러 오면 해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고상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성자로 우러러 보게 된 사람들조차, 그가 가까이 오면 옆으로 비켜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베네딕도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는 바라던 것인, 폐쇄된 자신의 정원과 세상 한 복판에서 자신을 가둔 수도원을 찾아낸 것이다. 그가 모욕을 받고 무시당할수록 그만 큼 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했다.

영혼을 어슴프레 비추다가, 곧 환해지게 한 이 광명을 지니고, 베네딕도는 여행을 떠났다. 그는 두 세상 사이에서 그대로 지내며 긴 수련기를 거쳤다. 한 세상은 그가 갖고자 하지 않았고, 다른 세상은 되풀이하야 그에게 문을 닫았다. 이제 마침내 그에게 어울리는 인생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피드몬테에서 부모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마지막 결심을 알아낼 수 있다. 그 때에 그는 막 프랑스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도중이었다. 생기와 온정으로 가득찬 편지였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지닌 것 같았다. 거기에는 괴로움이나 절망을 뜻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불만이 전혀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분명히 그가 가진 단 하나의 두려움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셋풍 수도원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분명히 걱정이 되셔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으며, 어떤 삶을 택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그러므로 제가 7월 1일에 셋풍을 떠났고, 그러자마자 바로 고열이 나서 나홀이나 지속되었고, 지금은 로마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떠나고 나서 그리 빨리 여행하지 않았는데, 그건 피드몬테의 8월이 늘 그렇듯이 너무 더운 날씨 탓입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 있는데, 사소한 병으로 병원에서 친절환 보살핌을 받으며 3주동안 입원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썩 잘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는 수도사들이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수도원들 중에서 어디든 입회할 계획이고, 하느님께서 제 계획대로 잘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저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때때로 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소식을 들으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정해진 거처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꼭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린 모든 일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해주시고, 하느님께서 저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숙모님들, 동생 제임스를 비롯한 모든 동생들, 누이들, 그리고 프란시스 숙부님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좋은 나라로 입국하려 합니다. 이 편지의 우편료는 프랑스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부모님의 축복과, 걱정을 끼쳐드린 모든 일에 대한 용서를 청하며, 자필로 서명합니다.

부모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
피드몬테 로지어에서
1770년 8월 31일에

이것은 그가 가족에게 쓴 것으로 밝혀진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또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썼다면 없어졌으리라. 사실상 이 순간부터 그들 모두에게 그의 소식이 끊긴 듯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14년 후로서, 죽음으로써 온 로마를 술렁이게한 성인으로 유럽 전역에 이름이 널리 퍼진 때였다. 그리고 그도 그들에게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정해진 거처가 없으므로 그들에게 주소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로마에서의 말년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거처가 전혀 없었다. 로마에서도 대부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체국에서도 거의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다음 6, 7년 그가 동안에 그가 방랑한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대략 추측해보는 것 말고, 그가 한 순례를 모두 되살려 볼 필요는 없다. 순례길에 그는 산을 넘고, 숲을 지나고, 대도시와 시골 마을에 들어가고, 흰히 뚫린 하늘 아래나, 그가 찾아낸 아무 대피처에서나 잠을 자고, 그날을 지낼 만큼의 동냥만 받고 그 이상은 거절하였으며, 사람들이 주는 아무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받아주도록 설득한 것을 입었다. 어디서든 하느님과 함께 외로이 지냈을 뿐, 아무도 바라지 않았다. 첫번째 여행 중에 그는 로레토와 아씨시를 방문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발이 아프고 병들어서, 프랑스 병원에서 3일 동안 입원했다. 그리고는 8,9개월 동안 그 도시에서 떠나기를 망설이며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거룩한 곳을 모두 방문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잠을 잤다. 다음 해 9월에는 그는 로레토에서 다시 발견된다. 그 해의 나머지 달에서 겨울까지는, 나폴리 왕국에 있는 모든 성지를 방문한 것 같다. 그는 1772년 2월에도 아직 거기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로마로 돌아갔다. 6월에 그는 다시 로레토에 있다가, 유럽에 있는 모든 유명한 성지로 여행을 떠났다. 1773년에 그는 토스카나를 방랑하고 있었다. 1774년에는 로마를 한 번 더 방문하고 나서, 부르고뉴로 갔다. 그 해 겨울내내 스위스의 아인지델른에 있었는데, 산중에 있는 성지를 방문하는데 연중 가장 추운 계절을 택한 것이다. 1775년은 성년이므로 그는 다시 로마에서 지냈다. 1776년에는 독일의

중요한 순례지를 다녔다. 그해 말에는 분명히 로마에 자리잡고, 이후로는 특별한 순례만 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자신이 좋아한 로레토로서, 매년 빼놓지 않고 거기를 방문했다.

당연히 이 특이한 인물이 여행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한 번에 10 수나 5 펜스 이상은 결코 소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마음 좋은 사람들이 하루 지내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면 그는 한결같이 거절했다. 아마 어디보다도 그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곳인 로레토에서, 처음에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헛간에서 묵었었는데, 인정많은 친구들이 성지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마련해 주었더니, 방에 침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로마에서는, 우리가 이미 짐작하듯이, 여러해 동안 그의 거처는 콜로세움의 폐허에서 찾아낸 구덩이였다. 이 은신처에서 그는 이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매일 방문했다.

아플 때 말고는 그는 거의 구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만족해 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난의 궁핍한 형편을 보고서 페니를 주었더니, 베네딕도는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으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는, 가까이 있던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었다. 돈을 준 사람은 모욕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하고는, 베네딕도가 더 바라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지팡이를 들고는 그를 때렸다. 베네딕도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매를 맞았다. 이 말은 베네딕도 사후에 질문을 받고 그 사람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많은 사례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베네딕도의 나머지 생애는 기도로 연속된 삶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수도회에 속한 트라피스트 회원이었다. 가능한한 그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으므로, 이후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몇달 동안이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지내는 듯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은거하며 혼자 살았으며, 친구나 동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하느님만 모셨고, 몇몇 사람들이 그를 살피러 오고, 그가 허락하면 도와주었는데, 그는 이들을 변함없이 후원자나 은인으로만 대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가 가끔 들르던 수녀원에서 그를 눈여겨 보고는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표하자, 베네딕도는 그들의 존경심을 눈치 채고는 다시는 그들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앙 서적 몇 권과 나무 사발이 전부였는데, 사발은 쪼개져 있어서, 그는 그것을 철사줄로 묶어 놓았다. 그는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우연히, 늘 딱딱한 땅바닥이나 교회의 돌 바닥위에서 무릎을 꿇고, 자주 단식과 금식을 하였기에, 양쪽 무릎에 상처가 나게

되었다. 그는 일부러 모욕을 받고 외면당하고자 했기에, 사람들이 경멸감을 자기들 방식대로 표하지 않을 수 없게되면, 베네딕도의 얼굴은 진정한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가 죽고 1년 후에 그의 삶을 기록한 고해 신부로부터 그와의 첫번째 만남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자:

1782년 6월에, 로마 대학의 성 이냐시오 성당에서 미사를 막 드린 후에, 나는 처음 보기에 도분명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 보이는 남자가 내 곁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다. 그의 다리는 일부만 가려져 있었고, 옷은 허리에 낡은 끈으로 묶여 있었다. 머리는 빗지 않았고, 옷차림은 형편 없었는데, 낡고 너털너털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곁으로 보기에 그는 내가 보아온 가장 비참한 거지같았다. 그게 내가 처음 보았을 때의 베네딕도의 몰골이었다.

베네딕도 이야기의 나머지를 알려면, 이 영적 지도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제일 낫다. 방금 언급한 상황에서, 그 사제가 감사의 기도를 마친 후에, 베네딕도는 가까이 와서 그의 총 고백을 들을 시간을 정해 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고해 성사 중에 사제는 고해자의 준비가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드러낸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에 놀랐다. 그 사제는 그가 거지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더 나은 신분이었으리라고 단정했다. 사실상 그는 그 거지가 분명히 신학생이었으리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고해 성사를 중단하고 그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저말입니까, 신부님?” 베네딕도가 말했다. “저는 그저 보잘 것 없고 무식한 거지일 뿐입니다.”

고해 신부는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즉시 알아 보았다. 그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주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비해 그를 주의 깊게 마음에 담아두기로 마음 먹었다.

하느님께서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만 한다고 걱정하신 숨겨진 성인을 알리는 방식이 종종 그러하였듯이, 분명히 우연히 이루어진 그들의 만남이 베네딕도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일은 1782년 6월에 일어났고, 다음 해 4월에 베네딕도는 죽었다. 이 10개월 동안에 베네딕도가 고해를 한 사제는 그를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 주 한 주가 지남에 따라 그는 누더기 안쪽에 놓인 성덕에 점점 놀라게 되었다. 그런데도 사제는, 예전에는 깔끔했을 것 같은 사람이 조금도 깨끗하지 않았는데도, 베네딕도가 생활 방식을 고쳐도록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의 고해를 듣는 일은

고역이었으나, 그는 결코 이 노고에 대해 두 번 생각한 적이 없었다. 다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해 장소를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정했다.

그가 베네딕도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783년 성주간 전 금요일이었는데, 그 날 그는 여니 때와 같이 고해를 하러 왔다. 베네딕도는 늘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다시 오곤했는데, 이번에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그는 주목한다. 그 다음에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정확히 일주일 지나서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가 베네딕도의 인간성과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알게되자, 여러 달동안 그는 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금욕 생활과 늘 가장 맛 없는 음식을 택하는 습성 말고도, 최근에 그의 몸에는 상처와 종양이 나기 시작했다. 사제는 그에게 이 점에 대하여 말하고, 적어도 상처에 더 유의하라고 훈계했으나, 베네딕도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해 신부도 알아차릴 수 밖에 없었지만, 죽음이 가까와오면서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그로서는 마음속의 하느님 사랑으로 해서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은 성주간 수요일에 일어났다. 베네딕도가 자주 간 성당들 중에서도 콜로세움에서 아주 멀지는 않은 산타 마리아 데이 몬티 성당 만큼 그가 많이 눈에 띈 곳은 없다. 이 성당에서 그는 평소에 아침마다 미사를 보았기에, 이웃 사람들에게 그는 잘 알려져 있었다. 이날 그는 아침 미사에 참례하고, 오후 한 시경에 문밖으로 나갔는데, 계단에 쓰러져 있는 채로 눈에 뜨였다.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뛰어갔다. 그는 물 한 잔을 청했지만, 물잔을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었다. 종종 베네딕도를 친절히 대한 동네 정육점 주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베네딕도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들은 쉬게할 생각으로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러나 바로 그가 죽어가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사제가 불러오고, 종부 성사가 집전되었다. 그러나 베네딕도는 너무나 허약해서 임종 성체를 모실 수 없었다. 임종자를 위한 기도를 바쳤는데, “거룩하신 성모님,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라는 대목에서 베네딕도는 한숨도 쉬지않고, 경련도 일으키지 않고 죽었다. 그때는 1783년 4월 16일이었고, 베네딕도는 서른 다섯 살이었다.

그리고 이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고해 신부이자 첫 전기 작가는 이렇게 쓴다:

이 가엾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자마자 갑자기 아주 가까이 있는 집들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거리 전체를 온통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채웠는데, 한 목소리로, “성인이 죽었다.

성인이 죽었다.” 라고 외쳤다.—그러나 머지않아 베네딕도의 성덕을 발표한 것은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체가 그들의 외침에 가세하여, “성인이 죽었다.”...라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거룩한 점이 뛰어났고, 기적으로 유명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그들의 삶을 마쳤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의 죽음도 이 보잘 것 없는 거지의 죽음보다 더 사람들의 감정을 빨리, 떠들썩하게 흥분시키지는 않았다. 이긴 일종의 전세계적인 소동이였다. 거리에서는, “로마에서 죽은 성인이 있다. 그가 죽은 집이 어디냐?”, 라는 몇 마디 말만 들렸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과장된 것 같지는 않다. 그 일이 있고나서 일 년이내에 썩여져서 누구나 그 진실됨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네딕도가 죽자마자 두 교회가 그의 시신을 소유할 권리를 두고 다툼을 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침내 시신은 그가 가장 자주 다녔던 산타 마리아 데이 몬티 성당에 인도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시신이 거기로 인도되었다. 너무나 엄청난 군중이 몰려와서 경찰 경비 병력이 두 배로 증원되어야 했다. 일렬로 대형을 이룬 군인들이 교회까지 시신을 수행했다. 왕족의 시신이라도 그보다 더한 경의를 받지 못했으리라. 시신이 거기에 안치된 순간부터 교회에는 조문객들이 밀어닥쳤다. 그 다음 날, 성 목요일, 그리고 또 성 금요일까지도, 시신은 성주간 미사 내내 거의 공식적으로 안치되었다. 인파는 내내 늘어만 갔다. 그래서 추기경 대리는 시신을 매장하지 않은 채 나흘동안 그대로 두도록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 걸인 베네딕도의 발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부활절 오후에 그를 교회 안, 제대 옆 부근에 매장했다. 시신을 관에 넣을 때에 시신은 막 운명한 사람처럼 부드럽고 경직되 있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장례식으로 열기가 사그라들지는 않았다. 군중은 끊임없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들이 동원되었다. 마침내 임시 방편으로 며칠동안 교회를 폐쇄하기로 해보았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교회를 다시 열자 군중들은 다시 몰려와서, 이는 두 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런 일은 로마에서도 전에 없었다. 대중이 일치하여 성인으로 선포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걸인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이다.

그러자 소식은 외국으로 퍼졌다. 일 년이내에 베네딕도의 이름은 온 유럽에 알려졌다. 그의 전기가 발행되기 시작했고, 전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이든 아니든, 모든 곳에서 기적이 보고되었다. 그의 고해 신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를 쓰도록 요청받은 것은 많은 창작들 중에서 믿을 만한 이야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하기로 하자. 그동안 내내 베네딕도의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들과 누이들은 부르고뉴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12년 이상이나 그들은 그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그가 죽었으리라고 여겼다. 이제 소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인이 바로 그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났어요. 잃었다가 도로 찾은 것이지요.”

저자 약력

알반 구디어

저자는 인도, 뭍베이에서 대주교로서 봉직한 적이 있는 예수회 소속 사제이다. 그는 기억할 만한 다음 경구를 말한 사람으로서 유명하다: “벗이란 온 세상이 사라져도 찾아 오는 사람이다.”; ‘열광적이라 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늘 어느정도 시험에 들게하는 면이 있다.’: 이밖에도 다수임.

그는 또한 *The Messenger of the Sacred Heart* 라는 잡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높이 평가받는 작가이며, *The Meaning of Life, Saints for Sinners, The Passion and Death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Inner Life of the Catholic*, 등 12 권이 넘는 책을 썼다.